

최선일 박사(문화재 파수꾼)
"잊혀진 匠人 스님 찾아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치렵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0월 22일) · 주간

제1073호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교과서 내 불교서술 대폭 확대된다

2017년 교과서 집필 기준 살펴 보니 성과 '괄목'

2017년부터 적용되는 역사 ·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이 보다 확대 ·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산하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의 제안이 다수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에 앞서 본지가 입수한 집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삼국시대' 단원에서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의 불교수용 사례가 자세하게 서술될 전망이다. 특히 '불교가 수용되어 중앙집권국가의 새로운 이념이며 종교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고 집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삼국이 왕권 강화를 위해 이용한 율령 반포 · 관등제와 함께 불교가 중앙집권체제 성립에 끼친 영향을 인정받게 됐다.

삼국의 불교수용은 현행 역사교과서에도 서술돼 있긴 하지만 단순한 언급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에 불과했었다. 이어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에 대해서는 외적의 침략에 대응한 측면을 유의하면서 서술하도록 해 호국불교의 특징이 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고려시대의 경우 불교 · 유교문화의 특징과 다양성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분했다. 이 단원에서 눈에 띄는 집필기준은 '천태종의 성립과 결사운동 · 조계종의 발달에 대하여 서술한다' 는 대목이다. 현행 교과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학생들이 한국불교의 역사적 기반이었던 양 종단의 활약상을 배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단원에서는 불교가 개인 신앙과 사회통합 기능을 담당했으며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유교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했음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대 문화의 꽃으로 평가받는 지방의 석불, 금속활자와 대장경 조판 등에 대해 다루면서 불교문화의 다양성도 조명하도록 했다.

고려시대 불교에 대해 '정치 · 사회 지배 이념으로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교 교단이 비대화되면서 농민의 토지를 침탈하는 등 사회 병폐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음을 유의한다' 는 기존 집필기준은 삭제됐다. 이처럼 개정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불교를 설명함에 있어 시대적 역할에 중점을 맞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다만 조선시대 의승군의 활약은 의병과 함께 묶여 현행 교과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아쉬움을 남겼다.

제7차 교육과정(1997년 제정) 당시 역사교과서가 '수군과 의병의 활약' 에서 이순신 장군과 유정 스님의 영정을 나란히 실어 의승군의 공을 인정하고, '통신사의 파견' 에서 유정 스님의 활약을 별도의 각주로 다룬 것과는 대조된다.

역사교과서와 함께 도덕교과서에 문제가 됐던 불교서술도 개정됐다. 현행 도덕교과서에서 불교사상의 특징을 △연기적 세계관 △주체적 인간관 △평등의 세계관으로 정의해 모호함을 나타냈던 부분은

삼국 · 고려시대 역할 인정
불교 특징 '자비의 윤리' 로
의승군 조명 안 돼 아쉬움

'자비의 윤리' 로 변경됐다. 이는 조계종 측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불교의 인간관 및 세계관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특징은 통불교적인 관점에서 화쟁 사상과 선교통합이 강조되도록 서술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종교를 다루는 단원인 '자연 ·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는 인격신을 지칭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 · 초월과의 관계' 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 같은 명칭이 종교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김형중 부위원장(동대부여중 교장)은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 국난에 맞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승려들의 활약이 조명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삼국의 불교수용 의의와 불교의 제대로 된 특징 등 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사실 등이 추가돼 다행" 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위원회가 꾸준히 활동하면서 교과서 불교서술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자비의 김치, 소외계층에게로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신도들과 즐겁게 김장을 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1월 21일 봉은사 경내에서 김장김치 9000포기를 담가 독거어르신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했다. 이날 김장에는 봉은사 스님과 신도, 봉은사 산하기관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봉은사는 매년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등에 김장김치를 비롯해 월동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도봉서원 복원 불교 배제 논란

도봉구청, 12월 7일 유학자만 초청해 세미나

국보급 불교문화재 발굴 후
사업 중단… 區 재추진 나서
불교계 "전면 재검토" 주장

2012년 금강령 등 국보급 불교유물 77점이 발굴돼 전면 보류된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최근 불교계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임성태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주무관은 "도봉구청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해도 구청 측에서는 관내 지역의 민원이라 그냥 침묵만 지킬 수는 없다. 현재 재추진 노력을 하는 것은 맞으며, 12월 7일 이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주무관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으며, 도봉서원의 가치와 서원 위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도봉서원의 역사와 위상' 등을 조명할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 측 참여없이 조준호 실학박물관 학예사 등 유교계 학자들만 참석한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순수한 학술 목적의 세미나가 아니라 복원 타당성을 관계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유교계측의 여론몰이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1년 당시 도봉구 측은 지역 유림들에게 서원 재건을 약속한 뒤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불교유물 대거 발굴 소식을 접한 조계종 등 불교계가 서원 재건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8월 27일 문화재청과 서울시, 도봉구청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도봉서원터는 영국사 터이며 출토된 유물은 조선시대 불교 탄압을 보여주는 상징" 이라며 "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 고 주장했다. 서원을 재건할 권한을 지닌 서울시도 이미 "국보급 불교 유구가 발견돼 당장 복원 추진은 곤란하다" 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문제는 도봉구가 8월 '도봉서원 복원사업 재추진 계획' 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 예산 45억 원도 필요하지만 정작 서울시와는 별다른 의견 조율 없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조중원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주무관은 "복원을 하다가 영국사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와 특정 종교 유적으로 복원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2016년 연구용역 후 복원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에 대한 서울시 예산은 이미 배정된 상태" 라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 유대호 주임도 "영국사와 도봉사 존재를 배제한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또한 이에 앞선 철저한 연구 및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유교 편만 들어 서원을 재건축하기에는 불교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도봉서원 터에서 이렇게 불교 유물이 쏟아진 데는 '슬픈 역사' 가 깃들어 있다. 고려 때까지 이 자리에는 원래 영국사(寧國寺)라는 사찰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 사찰은 폐사됐고, 1573년(선조 6년) 사림의 거두 정암 조광조(1482~1519)를 배향한 도봉서원이 들어섰다. 임진왜란으로 전소했다가 1608년 중건된 후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헐어내기까지 약 260여 년 간 유지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민주화 거목 서거 애도합니다"

자승 스님, 김영삼 前 대통령 애도문… 23일엔 빈소 조문

김영삼 前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11월 22일 발표한 애도문을 통해 "김영삼 前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합니다" 면서 "더불어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 말했다.

이어 "김 前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거목이었고, 문민정부를 출범하여 한국사회에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냈다" 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생 지향하고자 했던 민주화와 자유, 평등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고 애도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11월 23일 오전 8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자승 스님은 추도문을 통해 "김 前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와 국민의 큰 나무였으니, 그 그늘 아래서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에게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열리게 했다" 면서 "민주화에 기여한 공덕은 미래를 열어주는 바탕이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이제 다시금 어려운 시절에 민주화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오신 것, 그들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니, 언제나 모두에게 지혜의 힘이 되어 달라" 면서 "명복을 비는 수많은 추모의 마음이 이렇듯 모이였으니, 민주화와 자유평등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모두 함께 향기로운 자취에 감응할 것" 이라고 추모했다.

한편, 11월 26일 열린 김 前 대통령 영결식에서는 종교 의식 가운데 불교 의식이 조계종 의례위원회 위원 화암 스님 집전으로 봉행됐다. 불교 의식은 불교 의례 전통 방식에 따라 거불, 청혼, 반야심경 봉독, 극락왕생 발원 등으로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11월 23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전국 사찰 · 선원 동안거 결제

총림 등 26일 입재법회

전국 주요 사찰과 선원이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동안거 결제일을 맞은 11월 26일 전국 총림과 선원은 일제히 입재법회를 열고 3개월 간 동안거의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의 경우 매년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에 매진한다. 일반 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안거 기간 동안 함께 정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모든 반연을 끊고 시비장단을 모두 내려놓고 견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과 불타는 대용맹심을 내어 간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고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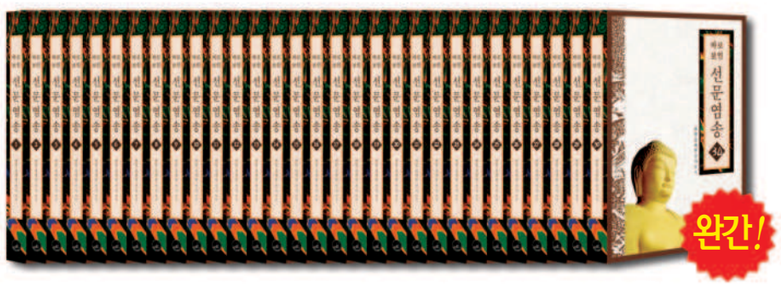
이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안거제도가 제대로 이어오고 있는 곳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 이라며 "부처님의 은혜와 시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일각도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 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종정 · 총림 방장 법어 8면〉

사 령

윤 호 섭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2015년 11월 16일 부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게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 3개국어판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화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3개국어판

본지 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 불기협 기자상 대상 수상 '2관왕'

2015 언론문화상 신문 최우수상에 이은 '쾌거'

본지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이 2015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2015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쾌거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는 11월 23일 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 회의를 열고, 접수된 10작품(기획 · 해설부문 7개, 취재 · 보도부문 3개)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불교신문사 신성민 · 노덕현 기자의 '광복 70년, 불교 70년' 을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의 '김현태가 만난 시니어불자'를 기획 · 해설부문, BTN불교TV 장수정 · 이리나 기자의 '2015 장애인의 날(6회 연재)' 을 취재 · 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본지 기획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광복70년 후 지금까지 불교가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심층 취재 기사로서 한국불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상세하게 조사, 연구,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한국불교기자상 삼사위원은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법사,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이 맡았다.

이에 앞서 불교기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기선)는 18일 회의를 열고, 밀교신문 이재우 편집국장과 불교플러스 박선영 취재부장을 20주년 근속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부처님 혜명 잇고 광도중생하라"

조계종, 23일 대덕 · 혜덕 및 중덕 · 정덕 법계 품서식

조계종 2 ·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에 대한 법계 품서식이 열렸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1월 23일 오전11시와 오후1시 각각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 · 혜덕, 중덕 · 정덕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계를 받은 스님은 대덕 36명 · 혜덕 19명, 중덕 171명 · 정덕 167명 등이다. 대덕 · 혜덕 품서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덕 · 정덕 법계 품서식에서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대도를 성취하고 말겠다는 태산같은 그 기상과 바다같은 신심으로 불문에 들어와 세상사는 멀리하고 오직 각고의 정진으로 오늘에 이르렀음에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위치에 있다"며 "출가할 때의 초심을 다시 다져서 대자비심으로 서원을 다시 세우고 각자의 수행과 중생제도에 진력하여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광도중생하고 불법홍포에 나서기를 기원한다"고 설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출가한지 10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불퇴전의 원력으로 오늘에 이른 스님들의 정진에 격려를 보낸다"며 "이제 여러분은 종단의 중추다. 한국불교 중흥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은 전법도생과 종단화합 · 발전, 불법홍포의 서원을 시달했으며, 이에 대해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불조의 혜명을 잇고 화합과 수행으로써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11시와 오후1시 각각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 · 혜덕, 중덕 · 정덕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지방분권화 시대, '공동체'를 생각하자"

조계종, 마지막 100인 대중공사 '지역불교 발전' 논의

한국사회의 행정 체계는 지방분권화이다. 약 200여 곳의 기초 지방단치단체가 구성돼 지역 민의에 따라 행정이 이뤄진다. 불교 역시 이를 비껴갈 수는 없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역 불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중공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5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72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대중공사는 효율적 토론과 논의를 위해 모둠 토론을 생략하고 종합토론에 역량을 집중했다.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사찰 역할과 공동체 복원, 복지 프로그램 다각화 등의 방안들이 쏟아졌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불교 교리를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포교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삶의 현장에서 감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내가 있는 실상사의 경우 남원에 소재하고 있다. 이곳 인구는 9만 명에 못 미치며 종단 사찰, 암자는 15곳 정도다. 지역사회에서 불교가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교세 확장이 아닌 대안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길 지혜협동조합 이사장은 공동체의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유 이사장은 "사회는 갈수록 지역분권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공유사회 등에 주목하고 있다. 불교가 이런 운동에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귀농 · 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고 정부도 관련 법안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면서 "귀농 · 귀촌 인구에게 불교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게 하는 등 공간을 제공한다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은 신앙 공동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관 스님은 "사찰에서 스님들은 상당히 권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찰은 신앙을

지역불교, 공동체 정신 향유돼야

귀농 · 귀촌인 결합해 지역에 일조

지역 특성 살린 복지사업 필요해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 신앙공동체로서의 사찰이 바로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본사별 학교 건립이나 말사별로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사찰 1복지시설 · 교육시설을 운영한다면 지역 발전에 큰 일조를 할 수 있다. 그 바탕 위에서 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전국 단위별로 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시, 기초지자체 단위 별로 포교를 펼치는 것보다 5000명 단위로 하나의 불교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면서 "교구본사, 지역 사찰별 특성을 살리면서 인구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도시 중심으로 교화를 펼치고, 그 지역사회를 위한 보살행, 행복을 추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 부의장 오심 스님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구축에 공감한다"면서 "나이에 맞는 계층포교 등 다양한 포교의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시 사찰과 농촌 사찰의 유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지역 본사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사찰 간 연합이 힘들다"고 상황을 토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제나 위령제, 산신제 등 불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문제 해결 나설 것"

이에 앞서 열린 9차 대중공사 입재식에서는 그간의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동국 발전을 위한 화쟁원탁회의' 구성하고 동국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경과 보고에서 "대중공사 상임추진위원회는 11월 24일 학교, 학생, 종립학교관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동국발전을 위한 화쟁원탁회의'를 구성했다"면서 "이 논의기구에서 학교 발전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제반사항을 성역 없이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회의 후에는 단식 42일차를 맞은 김건중 학생의 단식 중단을 위해 동국대를 방문했고, 이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의제 논의를 마무리했다. 12월 1일에는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공개 좌담회가 열리며, 12월 14일에는 공식적인 회향식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공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은 11월 25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군포교 진흥위해 사용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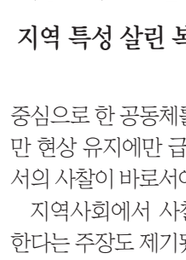
진흥원, 군종교구에 지원금 1억 원 쾌척

불교TV도 2000만원 전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 사진)은 11월 25일 2015년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 스님)에 군 포교 진흥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는 격지 및 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 및 교육, 군 내 독서카페 기증, 불서 지원 등 군 포교 활동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흥원 김규칠 이사장〈사진〉은 "군포교 불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장병들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안정된 군 생활과 군부대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젊은 인재양성 불사에 더욱 정진해 달라"고 군종교구에 당부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군 불교 진흥을 위해 군종교구에 매년 군 포교 진흥기금 1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와 불교TV무상사(회주 성우)는 11월 21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에 9사단 백마부대 신병교육대 내 법당 일승사 건립불사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낙성법회를 봉행한 백마 일승사는 지난 2월부터 군종교구와 군법당 22곳, 범어사와 여래사 등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연해 석가모니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봉안한 약 400㎡ 규모의 법당건립을 시작하고 21일 낙성했다.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은 "불자장병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법회에 동참할 수 있게 부대 내 법당시설을 개선하는 데 불자들의 관심이 늘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송광사 차기 주지 진화 스님 추천

24일 임회 개최, 만장일치 결의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상) 11월 24일 오후 2시 송광사 목우헌에서 동안거 결제 임회를 갖고 차기 주지로 진화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 사진)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정원 25명 가운데 17이 참여한 이날 임회는 안건으로 종무보고, 신임주지 추천 등을 의결했다.

진화스님은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광주 증심사 주지, 서울 봉은사 주지를 역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도 여러분께 告합니다.

宗正예하에 대한 불경죄(不敬罪)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맙시다.

종헌 제 23조 <宗正은 본종 종풍거양의 표상으로서 종통을 계승하여, 종단의 신성(神聖)과 존엄의 최고 권위(權威)와 지위를 가진다.>

종정예하께서는 종헌의 규정에 의하여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시는 것은 불교계의 오랜 전통(傳統)이며, 불문율(不文律)입니다.

그런데 종정예하의 유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종헌 · 종법상 권한 없는 말씀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자식들의 잘못을 꾸짖고 타이르는 아버지의 말씀에 맞서거나 대들거나 심지어 아버지를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면, 그 자식은 불효자로서 배은망덕한 패륜아로 취급을 합니다.

작금에 총무원측에서는 '총무원 종무회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모임(?) 이름으로 〈종정예하의 유시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을 한국불교신문에 발표하였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종정예하의 유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총무원측의 무자격자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혜일스님)는 종단의 분열(分列)과 불화(不和)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제14대 중앙종회의원선거 관련 종무행정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태고종도들이 화합동참하여 종단을 정상화한 이후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제14대 중앙종회의원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종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애종심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원측에서는 老衲과 백련사에 대하여 승려신분과 사찰 지위가 무자격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련사에서는 2013년 11월 5일에 3000만원의 성금을 총무원(당시 이도산 총무원장)에 납부하고, 총무원과 이전까지의 모든 백련사 공과금(사찰분담금, 재적승려의무금 포함)을 해결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련사 주지 동허스님이 총무원 종무특보(임명일 2013년 11월 12일, 임명번호 제15549호)로 임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老衲은 현 총무원사(전승관) 건립에 성금 1억원 (2008년 3월 31일 입금)을 납부하였고, 종보인 한국불교신문 제622호(2014년 5월 2일자)에 승정원 승정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현혹 당하지 마시고, 종단 정상화에 애종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1일

한국불교태고종 정상화추진위원장 홍 인곡

올해의 불서 대상에 〈만해, 그날들〉 선정

45개 출판사 92종 접수 오는 12월 10일 시상식



올해 발간된 불서 중 가장 우수한 도서에 〈만해, 그날들〉(박재현 지음, 푸른역사)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11월 23일 '올해의 불서 10'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만해스님의 삶을 통해 조선독립운동사와 근대불교사를 재조명한 〈만해, 그날들〉이, 우수상에는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지승도, 운주사)와 〈불자로 산다는 것〉(도일스님, 불광출판사)가 각각 뽑혔다.

대상을 차지한 〈만해, 그날들〉은 만해의 저작물 및 만해 관련 연구성과물, 그리고 한국 근대사 분야의 학술적 성과까지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등에 소장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공판기록 등 관련 자료들도 압축적으로 녹여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올해의 불서'에는 45개 출판사에서 92종의 도서가 접수됐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12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새 종회의원 "종단 정상화" 결의

11월 24일, 14대 당선자 연찬회

태고종은 11월24일 AW컨벤션센터서 '14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는 원로의장 덕화스님을 비롯해 14대 중앙종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이 자리가 태고종단의 아픔을 끝내고 다시 새롭게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는 날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당선된 종회의원들이 애종심을 가지고 종도들의 화합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종무원장협의회장 도광 스님은 "7월 이후 전국 교구 종무원장들로 구성된 종무회의가 총무원장을 대신해 종무 행정을 펼쳐 왔으나 새로 종회가 개원되면 우리는 다시 본연의 소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4대 중앙종회는 12월 15일 사간동 서울 법륜사서 개원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한상균 피신 '평화적 중재' 나선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한상균 민주노총 사태 관련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당초 화쟁위는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및 중재 요청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으나, 11월 23일 도법 스님과 한 위원장 만남이 성사된 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표명했다.

"평화적 중재는 불교계 역할"

첫 단추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서 꿰어졌다.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동참자일동(이하 100인대중공사)은 11월 25일 열린 대중공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중재안'을 특별안건으로 다루고,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100인대중공사는 26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12월 5일 2차민중궐기대회가 평화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을 명시했다. 100인대중공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며, 국가는 이 권리를 보호하는 주체다. 그런데 불법진압과 폭력시위란 악순환에 빠져 소모적인 논쟁 및 갈등의 화근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은 평화롭게 시위하고 적법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100인대중공사는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아픈 국민들이 자신 삶의 터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당국자들이 해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의 존재이유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소문 발표에 앞서 열린 '100인 대중공사'에선 한 위원장 사태 관련 '중재 방식'을 두고, 활발한 의견 개진이 펼쳐졌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불교계가 주도해 평화적 시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위 당일 2~300명 스님들이 민경 사이에서 평화지대를 만들고, 평화시위를 유도했으면 한다. 그러면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또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2차 궐기대회에 참여하는 것보단 노사정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3일 화쟁위 측에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의 평화적 성사 △노동자 대표와 정부의 대화 성사 △정부의 노동계약 정책 추진 중지 등과 관련해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화쟁위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 위원장의 요청안 3가지를 전부 수용키로 공식 발표했다.

화쟁위, 3가지 요청안 전격 수락
대중공사서 '중재 방식' 논의돼
2차 궐기대회 평화적 성사 호소



한상균 조계사 피신 일지

- **11월 11일** '불법집회 주도 혐의' 구속영장 발부
- **11월 16일** 오후 10시 30분 조계사 경내 진입
- **11월 18일**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과 면담, 화쟁위 측에 신변보호 및 중재 요청
- **11월 19일** 1차 화쟁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신변보호 및 중재 요청 '사실상' 수용
- **11월 23일** 도법 스님과 한 위원장 면담 한 위원장, 요청안 3가지 전달 은신 8일 만에 공식석상 모습 드러내
- **11월 24일** 2차 화쟁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한 위원장 요청안 전격 수용
- **11월 25일**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 긴급안건 발의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면담 요청
- **11월 26일** 100인대중공사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정부 강경책에 '공권력 투입' 우려

한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과 관련해 정계 안팎에서 "경찰을 투입해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며, 조계사 일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11월 24일 국무회의서 "수배 중인 한 위원장은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며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배후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1월 20일 YTN라디오에서 "조계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단초가 됐다. 이 같은 김 의원 주장에 조계사는 11월 23일 국회에 항의 방문했으나, 김 의원은 사과를 거부해 불교계 공분은 심화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 단체들은 줄이어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권력 투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섰다.

이에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은 11월 25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공권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해 문제 본질을 치유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주장은 불교가치에 대한 폭력일 따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공권력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사회 안팎의 분위기에 경찰은 난감한 기색이다. 과거 1995년 한국통신 노조 지도부 및 1998년 현대중기산업노조원 검거 당시에 조계사에 경력을 투입해 종교계 및 시민사회계의 큰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계종이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분위기다. 화쟁위가 25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공식 면담을 제의했으나 26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쟁위 관계자는 "27일 경찰 측 입장을 전달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공식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신중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영논리 안돼"

사회적대회모임 등, 11월 26일 공개토론회 개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진·보수 입장은 극명히 나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치적 진영논리로 빠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진실과화해를위한사회적대화모임·평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역사교과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도법 스님과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서경석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사리사욕과 진영논리, 정치념 이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도법 스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길이 우리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 과정서 나라와 국민은 오간데 없다"면서 "온 사회가 골병든 와중 어느 한 개인과 집단의 승리와 이익만 추구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 사회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은 11월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익 우익 모두 우리의 역사
공과 명백히 드러내 기술해야

이어 스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실과 진실을 드러낼 것'을 제시했다. 스님은 "상식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진실을 찾아야 한다"면서 "좌익도 우익도, 진보도 보수도 모두 엄연한 우리 역사다. 모두에게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하므로 명백한 진실을 드러내고, 균형있게 기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측 대표 이수호 이사장은 "국정화 논란이 정치적 진영논리로 빠져드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편향된 진영을 결집, 단결시키려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냉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어떤 문제라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유용한 해결법"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서경석 목사는 "국정화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다. 이제는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제일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백해무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목사는 "학계의 역사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앞으로도 좌와 우가 꾸준한 역사논쟁을 통해 하나씩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日 위안부' 해결 위한 25년 감사합니다"

정대협, 11월 20일 '제21회 불교인권상' 수상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이하 불교인권위)는 11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창립25주년 기념법회 및 제21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제21회 불교인권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영예를 안았다. 이번 불교인권상 수상에서 정대협은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점, 정신대 피해자들의 쉼터운영 및 생존자 지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장 법산 스님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인식논란은 일본군의 전시 성노예문제까지 외면하거나 미화시킬 우려마저 있다"며 "이 같은 현실 속 올바른 역사와 인류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대협의 노력과 숭고한 정신이 다시 한번 높이 평가 돼야 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아름 기자



불교인권위는 11월 20일 21회 불교인권상에 선정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 주 문



티벳대장경역경원 삼사순례

진옥 티벳대장경역경원 원장 스님은 11월 14일 문경 봉암사, 법주사, 남장사에서 역경원 삼사순례를 진행했다.



'금강산 관광' 주제 월례강좌

지홍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은 11월 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금강산 관광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월례강좌를 가졌다.



수험생 대상 강연회

현진 청주 마야사 주지 스님은 12월 2~3일 청주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웃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강연한다.



금선사 초청법회 강연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2월 6일 오전10시 서울 금선사 반야전에서 열리는 12월 선지식 초청법회에 강사로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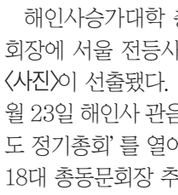
해인동문회, 동명 스님 제18대 회장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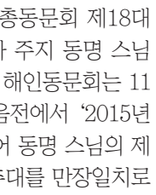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제18대 회장에 서울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해인동문회는 11월 23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동명 스님의 제18대 총동문회장 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1964년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동명 스님은 1975년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부안 내소사 주지와 조계종 종회의원,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전등사 주지이자 시민선원 '전등선림' 선원장으로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동명 스님은 "동문스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소망이다"며 "오늘 40여년을 함께해온 동문스님들의 지지로 총동문회장에 선출된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축문화대상 보각 스님·윤영해 학장



보각 스님



윤영해 학장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제3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로 학술문화상에 윤영해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평화실천상에 자재공덕회 이사장 보각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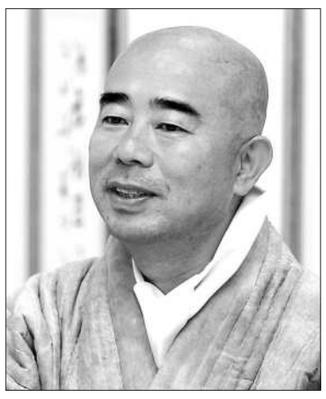
보각 스님은 노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개원하며 지역복지의 취약점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영해 학장은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보물 제734호,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을 최초로 완역해 불교인재 양성과 불교학 연구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하성미 기자**

"소통으로 종단발전 구심점 역할"

조계종 신임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월정사 퇴우 정념 스님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사찰 및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그동안 종단의 크고 작은일에 중지를 모아 종단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의 임기동안 주지협의회가 종단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해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내 24개 교구를 이끄는 교구장 스님들의 협의체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이하 주지협의회) 회장에 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인 퇴우 정념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주지협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서 열린 제 42차 회의에서 회장인 퇴우 정념 스님의 추천으로 수석부회장에 정묵 스님(수덕사 주지), 차석 부회장에 월우 스님(대흥사 주지), 총무에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재무에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을 선임하는 등 집행부 구성도 마쳤다. 임기는 1년이다.



11월 16일 제 42차 회의서 선출 집행부도 함께 구성…소통에 앞장 군법당 자매결연 사업 지속 전개

퇴우 정념 스님은 "그동안 주지협의회를 이끌어주신 전임 집행부 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화합 속에서 주지협의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어느 모임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지협의회는 구속력이 강한 모임은 아니지만 조계종 교구 본사 수장들이 모인 만큼 한국불교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의된 내용들이 때로는 종단의 종무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때도 있습니다. 그런만큼 신중히 논의하고 소통해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피력했다.

정념 스님은 최근 주지협의회가 24개 군부대 군법당과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협력을 약속한 사업에도 큰 관심을 피력했다.

"제가 주지로 있는 월정사도 원주에 위치한 1군사령부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3교구인 속초 신흥사는 8군단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협약 맺은 모든 교구본사들은 군법당 불사를 비롯해 군장병 위문 및 군악대 지원 등에 힘쓸 것입니다. 군포교는 포교의 황금어장임에도 타종교에 비해 우리 불교의 열악한 포교 환경을 항상 안타까워했는데 이번에 교구본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 포교 등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 활성화시키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화엄경 80만자 새긴 화엄각 건립할 터"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5주년 맞은 혜거 스님

탄허 스님의 유품과 저서, 역서를 전시하고 불자들의 공부와 연구를 위한 시설로 세워진 탄허기념박물관이 개관 5주년을 맞이했다. 탄허기념박물관장 혜거 스님〈사진〉은 11월 21일 서울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열린 개관 5주년 법회에서 "탄허 스님의 화엄경 번역을 기념하는 화엄경 80만자를 새긴 화엄각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혜거 스님은 "탄허기념박물관 개관과 함께 시작된 금강경 강송대회를 가톨릭, 개신교 등 각 종교가 함께 각자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종교문화 축제로 전환했으면 한다"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금강경을 외우는 대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김홍래 성우회장, 전 보삼 경기도박물관장, 김현기 서울시의원 등과 5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기념법회는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삼지스님(대전 자광사 주지)의 개회사, 서상윤 금강선원 신도회장의 탄허기념박물관 5주년 경과보고, 배태숙 만일수행결사회장의 만일수행결사 경과보고, 이원형 금강선원 신도회 고문의 탄허대종사 행장 소개와 내빈 축사, 혜거스님 인사말, 금강선원 가가



합창단의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

점심공양 후 금강경강송대회 역대 수상자와 참석대중이 함께 하는 금강경 합송에 이어 중요무형문화재 동희스님의 집전으로 수륙대재가 봉행됐다. 전통순당의례로 시작된 수륙대재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동체대비심으로 보호하고 그 영혼까지 천도하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위덕대, 日후쿠오카대와 교류협정

위덕대(총장 홍욱헌)는 11월 23일 위덕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후쿠오카현립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후쿠오카현립대학은 1945년에 후쿠오카현립 보건부학교로 설립, 1991년에 4년제 후쿠오카현립대학으로 변경하여 특히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등이 특화된 학교이다.

위덕대 홍욱헌 총장은 환영사에서 "일본 후쿠오카현립대학과는 상당히 유사한 학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대학간 협력의 폭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상호 우호증진을 통한 학문간의 교류를 비롯하여 활발한 학생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후쿠오카현립대학 시바타 총장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21세기 사회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인성이 강화된 자율적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단기, 장기 교환유학생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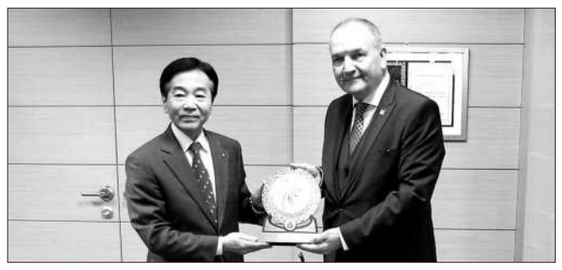
미륵종 송정 스님 2주기 추모재



한국불교미륵종은 11월 18일 미륵종 총본산 김해 관음정사에서 前 총무원장 만암당 송정 스님의 열반 2주기 추모재를 거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부산 금강사 회주 혜성 스님, 선운사 조실 법현 스님, 복천사 회주 혜문 스님 등과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추모재 봉행위원장 묘각 스님(미륵종 총무원장)은 "2년 전 열반하신 송정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미륵종단을 훌륭한 종단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스탄불 문화국장 초청 특강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아시아연구원은 11월 23일 터키 이스탄불시청 문화국장 압둘라만 쉔(Abdurrahman Sen)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쉔 국장은 '실크로드 서쪽과 동쪽 끝의 우정과 새로운 만남'의 주제로 강연했다.

특강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오랜 친구인 한국과 터키, 이스탄불과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폭넓은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압둘라만은 "양 기관의 만남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원각사, 소외계층에게 장학금 전달



서울 남현동 원각사(주지 연호)는 11월 26일 남현주민센터를 방문해 이희창 남현동장에게 지역의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에 써달라며 1백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원각사의 나눔 실천에 대해 주지 연호 스님은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 지만 지역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큰 희망의 불씨가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훗날 사회에 진출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2월 28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응송 스님 열반 25주기 추모 학술 세미나
인연있는 명사들의 축사에 박수 쏟아져

응송 스님 아니면 일지암 복원 불가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응송 스님 열반 25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과 몽성선원장 진우 스님,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정양모 백범기념관 관장,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이 축사를 맡아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의 모습을 전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혜국 스님 | 진우 스님 | 박동선 이사장 | 정양모 관장 | 박권흠 회장 | 김종규 이사장

"동춘차에서 응송 스님 인품 느껴"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응송 스님께서 전수하신 차를 마셔보면 응송 스님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하얗게 쌓인 깊은 산사에서 초의 스님으로부터 내려와 응송 스님을 거쳐 박동춘 선생에게 이어지는 동춘차, 즉 '열탕'을 마시노라면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차와 차를 우려내는 팽주와 그 차를 마시는 사람, 이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선문에서는 '선다일미'(禪茶一味)라고 하고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고 합니다.

응송 스님과 박동춘 소장이 차 마시는 모습을 그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떠온 물로 차를 다려 서로 반쯤을 마시니
몸과 마음 상쾌하여 하늘에 오를 듯
나는 백을, 저는 흑을 잡고 바둑을 두는데
혹 이기거나 지더라도 조용히 웃음을 지을 뿐

"초의 다맥, 응송과 박동춘 소장에게"

몽성선원장 진우 스님

은사이신 백운 스님께서는 조계종 스님으로서는 유일하게 응송 스님을 법사로 모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 또한 응송 노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인 1989년 완도 신흥사에서 시봉을 하였습니다.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노스님을 모셨지만 당신께서 살아온 그 내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맥에 관한 것으로서 응송 스님이 초의다맥의 적통이란 점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응송 스님은 차의 전반적은 부분은 박동춘 소장이 전승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인 스님으로서의 법맥은 백운 스님으로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송 스님 업고 일지암터 찾아"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1979년으로 기억합니다. 차인들이 한데 모여 차문화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선결과제는 초의선사가 기거한 일지암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쳐졌는데 도대체 일지암이 있던 곳이 어디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인들이 응송 스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처음 응송 스님을 만났을 때 이 분이 아니면 한국 차의 역사가 있을까 의심할 정도로 고마움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응송 스님이 몸이 불편하셨는데 스님을 업고 일지암 자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스님이 안계셨으면 일지암 장소도 몰랐을 것이고, 일지암 복원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차 받는 이 생각하는 것이 '다법'"

정양모 백범기념관 관장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차가 성행해 전국에 차생산이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차회가 생겨났지요, 그런데 격식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송 스님을 모셨습니다. 1981년과 1982년 스님께서는 두차례 강연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격식과 예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에 매달려서는 차 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큰방에 노스님이 앉아계시면 그 스님이 오른손을 쓰시는지, 왼손을 쓰시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왼손을 쓰는 스님에게 오른쪽에 차를 놓아선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 차를 받는 이가 받는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리 차를 앞에 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도는 인성교육, 동다송 교재로"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일지암은 한국 차문화의 성지가 됐고, 일지암에 한번 가보지 않고는 차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2년 한국차인연합회장으로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한국다도대학원을 만든 일입니다. 현재 22기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공부가 '동다송'이며, 첫 답사가 일지암 답사입니다.

우리는 인성교육이 다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됨을 알고 있습니다. 다도가 희망입니다.

"다도로 옛 선조 발자취 되새겨"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초의 스님이 주석하신 일지암은 추사와 소치, 다산과의 교류가 함께 남아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여야와 지역을 초월한 화합의 모습을 초의 스님은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적인 발전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스마트폰에 오염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도를 통해 이런 오염된 정신을 맑게 하고 옛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교육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도와 학문이 만난 추모의 장

'응송 박영희의 삶과 차' 세미나 현장

이날 세미나 현장은 다도와 학문이 한데 어우러진 자리로 펼쳐졌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전통 차문화 연구서의 선구가 된 응송 스님의 '동다정통고'를 보시했으며, 동춘차를 시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세미나 쉬는 시간마다 대중들이 다도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세미나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응송 박영희 스님의 독립운동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교수는 "응송 박영희 스님이 일생동안 보여준 헌신과 가치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불교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립유공자로 이름을 올린 후 친일인사로 폄하당한 스님들 중 유일하게 응송 스님만이 후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고 있다. 스님과 연고가 있는 조계종과 태고종, 동국대, 대흥사 등에서 선양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는 응송 스님의 불교청년운동과 승려로서의 활동 및 차문화 중흥 등의 활동을 조명했으며 김미선 청주대 한문교육과 교수는 응송 스님의 '수연설법(隨緣說法)의 제법문'을 기초자료로 시문학 세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응송 스님 다법의 연원 및 특징을 살피고 초의, 범해, 원응 스님으로 이어져온 대흥사의 다법을 이은 것임과 고온에서 찻잎을 덖는 덖음차가 초의다법임을 밝혔다. **〈발표요지는 본지 1072호 9면에 보도〉**



세미나 휴식시간에 참석자들이 다도를 체험하기 위해 줄서 있다.

[특별기고] 내가 본 응송 박영희

김대성 前한국일보 편집위원



장삼에 가사를 걸친 초의스님의 모습을 갖가지 자연색으로 그린 '진영'과 〈동다송〉 필사본, 〈만보전서〉에서 옮겨적은 〈다신전〉 필사본은 용인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세월이 지날 수록 차인들에게 아낌을 더하고 있는 이 세가지 작품이 없었다면 우리의 수천년 차문화 역사에서 내세울 근거는 초라했을 것이다.

응송 스님이 차계 발전을 위해 끼친 영향은 이들 다서를 지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제 압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킨 이들 고전은 1937년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 후인 1955년까지 20년간 응송 스님이 지켰다. 대흥사 주지로 지내며 일본인들의 횡포를 무릅쓰고 항아리에 넣어 대청마루 밑에 파묻어 보존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일본인들이 조선의 차문화 전적을 찾아 혈안이 됐을때 스님은 초의스님의 차이야기가 기록된 전적을 지켜낸 것이다. 빈약한 문화를 차로 꽃피운 일본인들이 응송 스님에게 회유 반 협박 반으로 맴돌았지만 스님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선에는 막걸리만 있지 차는 없다'는 일본인들의 막말과 광복 후 왜색다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때 떳떳하게 한국 차문화사를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어 1980년대 차문화가 수면위로 뜨면서 전통기법이라는 단서로 무장했지만 흉내만 냈던 시절, 응송 박영희 스님의 차는 획기적이었다.

뜨거운 차를 후후 불어 한모금 두모금 조심스레 마시면 향기로움이 혀뿐만 아니라 목젖 뒤로도 올라왔다.

스님이 평생을 마셨던 차, 그 마지막 한모금의 맛은 어땟을까. 내생에서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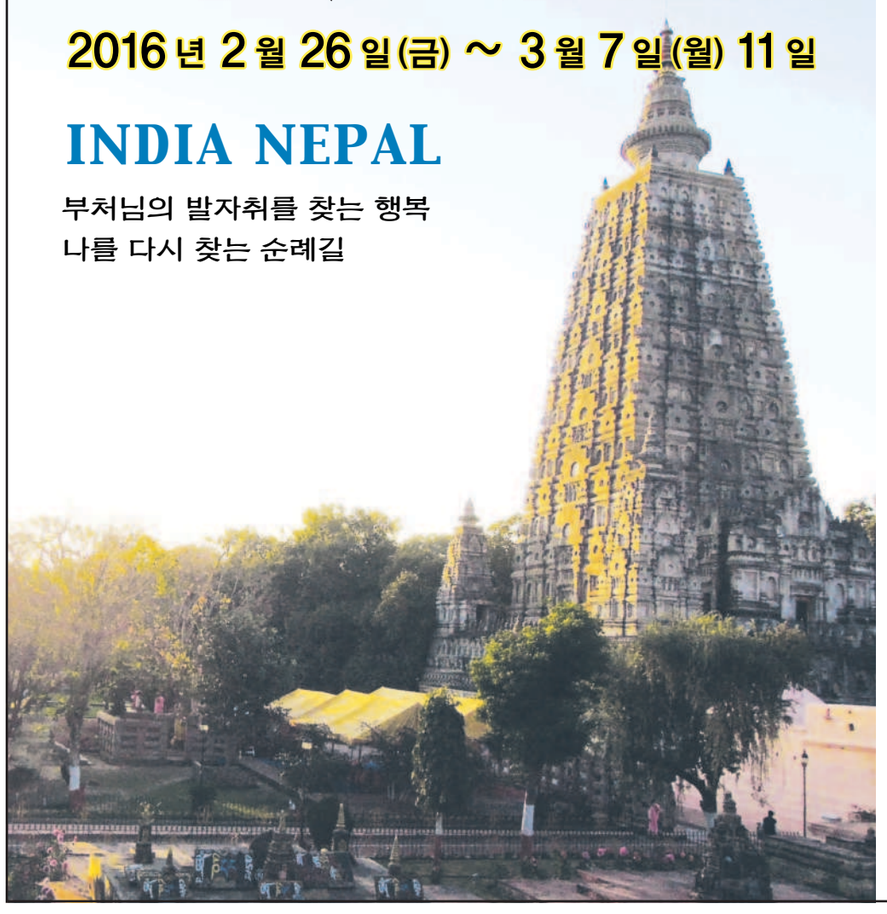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네팔 성지순례

2016년 2월 26일(금) ~ 3월 7일(월) 11일

INDIA NEPAL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는 행복
나를 다시 찾는 순례길



순례지도법사 – 법현스님



• 활동사항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BTN 즉문즉설 출연 방송중
◇저서 〈추워도 향기를 팔지않는 매화처럼〉 외 다수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순례지도법사 – 효진스님



• 활동사항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행복도량 광덕사 주시
◇마음치유 MOST 행복센터 평생교육원

인도 · 네팔 성지순례 특별 동행

힐링 명상 음악가 김태곤 가수, 보건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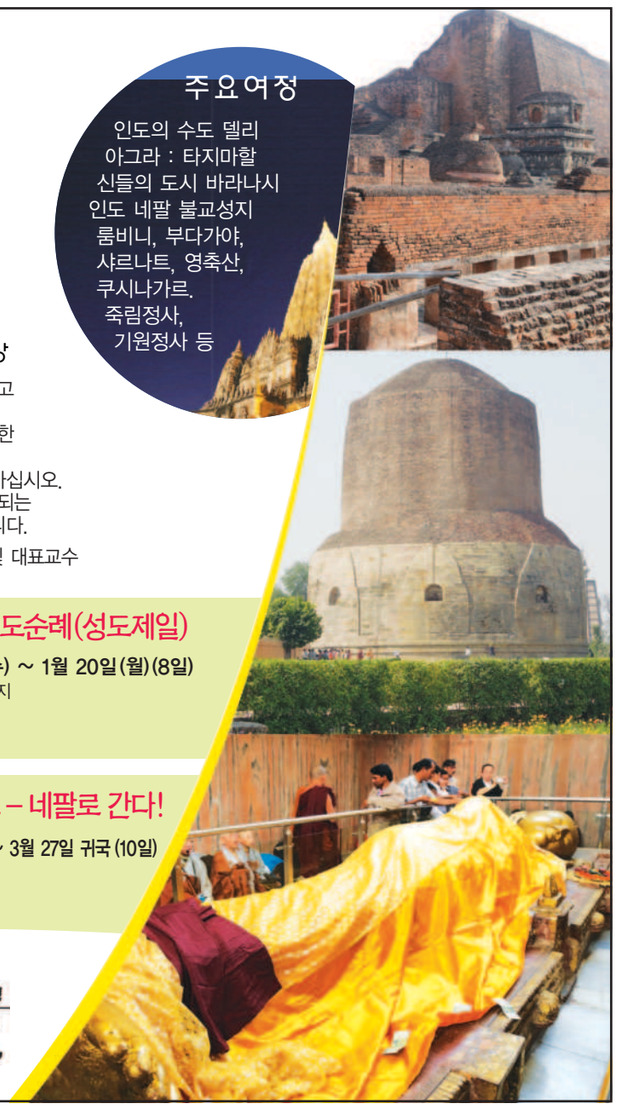
오감만족에만 그치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느끼는 음악을 통해 청정함과 참 자아 찾기 그리고 기계적이 아닌 자연진동에 저절로 흔들이는 참 생명력
• 히트곡 : 망부석, 송학사 등
'심신건강증진 음악으로 긍정에너지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동행> 마음 치유 명상 힐러 김기호 원장



당신은 지금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인생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늙지 않습니다.
한해가 흘렀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또 다른 청춘이 시작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하루입니다.
• 아름다운 삶 교육원 원장 및 대표교수

주요여정
인도의 수도 델리
아그라 : 타지마할
신들의 도시 바라나시
인도 네팔 불교성지
룸비니, 부다가야,
샤르나트, 영축산,
쿠시나가르,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6년 2월 5일 (금) 까지
■ 동 참 금 : 275만원
■ 신 청 금 : 50만원
■ 1차 접수 : 265만원 (12월 30일까지)
2차 접수 : 275만원 (2월 5일까지)
■ 여권사본과 신청금을 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권사본 보내는 방법◁
팩스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 fung101
■ 문의접수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412호
불타 여행사
TEL : 02) 733-9317 / FAX : 02) 732-9317
■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드가야 대각 성도지 기도순례(성도제일)
■ 출발날짜 : 2016년 1월 13일(수) ~ 1월 20일(월)(8일)
■ 접수마감 : 2015년 12월 24일 까지
■ 지도법사 : 향림사 주지 경진스님
■ 순례비용 : 235만원



나는 붓다를 느끼려 인도 – 네팔로 간다!
■ 출발날짜 : 2016년 3월 18일(금) ~ 3월 27일 귀국 (10일)
■ 순례비용 : 239만원
■ 부처님 성지 – 아그라 – 델리

불타 붓다 BUDDHA BOHEMIAN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

우바이들, 15년 보살행 그 폭을 넓힌다

불교여성개발원 창립15주년
향후 역점 사업 발표

"지난 15년간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모두 가진 재능과 능력을 기꺼이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고 감동하며, 행복하게 활동했습니다. 이제 그간 다진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이 창립15주년을 맞아 우바이로서 보살행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2000년 11월 대승보살 원력으로 여성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는 사명 아래 창립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 이하 여성개발원)이 창립15주년을 맞았다. 여성개발원은 15년간 여성 불자 역량결집, 양성평등, 나눔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사회 다방면서 활동하며 불교계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는 약 1천 명 회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며,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리더십 교육 실시, '자비나눔 바자' 개최, 합창단 운영,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만들기 교육, 교정교화 활동, 한부모가족 지원 등 분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으로도 역량을 확대해 2006년과 2013년 각각 부산지원 및 강원지원을 창립했다. 산하기구로 여성불자108인회 · 가족지원센터 · 교정교화센터 · 명상리더십센터 ·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 불교여성연구소 · 승만경연구회 · 사찰음식문화센터 · 웰다잉운동본부 · 지혜장학회 · 성남시 고등동복지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이 연극 '토라진 부처님'을 공연하고 있다.

특히 여성불자108인회는 불교여성개발원을 대표하는 산하단체다. 사회적 귀감이 되는 불교여성지도자를 발굴해 대사회적 공헌도를 알림으로써 여성불자 간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키 위해 2003년부터 격년마다 선발하고 있다. 지난 7월 7차 여성불자 108인을 발굴하며, 총 7백여 명이 여성불자108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에는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을 공식 출범함으로써 종교 단체로서 활동 범위를 극복, 대사회적 활동을 펼쳐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문화관광부 소속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회참여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대중적 포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여성가족부 소관의 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전국 11개 산하 약 1천 명 회원
양성평등 · 교정교화 활동 등 '활발'
'지혜로운여성' 설립 후 대사회화
15주년 기념해 장학사업 출범도
"미래불교 위해 인재양성 힘쓸 것"

이에 따라 (사)지혜로운여성은 성남시 고등동복지관 위탁 운영 및 다문화가정지원 전문자원봉사자양성교육 실시 등 정부 및 지자체와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여성개발원은 창립15주년을 맞아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장학생을 선발, 인재양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에 여성개발원은 중앙승가대 재마 스님, 박애경 · 김태섭 씨에게 각각 장학증서 및 장학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여성개발원은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불교여성광장 건립' 이란 대원력을 세웠다. 불교여성광장은 여성불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 교육 및 수행 · 봉사활동의 체계화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 중인 결집의 공간이다.

박순 원장은 "불교르네상스의 꿈을 향한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과 발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포교원장 대행 송묵 스님,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본각 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묵 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은 남다른 신심과 원력으로 지역과 단위 사찰, 해당 분야 활동을 넘어 종단과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회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며 "여성불자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진흙 속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남지심 · 임완숙 작가 극본의 '토라진 부처님' 연극을 선보였으며, 기념식 후에는 월호 · 진명 스님 등과 함께하는 토크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가 진행됐다.

글=박아름 기자 · 사진=윤호섭 기자

조계종 교구신도회 전국창립 눈앞에

22일 해인사 신도회 창립… 12월 18일 24교구신도회 체제로

진종삼 전 경남도의회 의장 초대회장
12월 6일 마곡사 · 18일 신흥사 창립

조계종 교구신도회가 전국 24개 교구 체제 구축을 눈앞에 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1월 22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제12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진종삼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와 함께 12교구신도회는 홍정숙(법명 감로행), 김현조(법명 해인심) 씨를 부회장으로 김종복(법명 법흥), 하성수 씨를 감사로, 조선화(법명 법성광) 씨를 사무처장으로 선출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진종삼 회장은 경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용성 스님이 주석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화과원을 국가사적지로 지정추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 회장은 "불법의 진리 아래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활발한 신행활동으로 외호대중의 역할과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창립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과 수말사 주지 스님,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해 교구신도회 발족을 축하했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신도회 결성은 사부대중이 함께 법보종찰 해인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도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회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신도국장 덕산 스님은 "향후 제12교구 신도회가 해인총림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불교인재 발굴과 양성 그리고 교육 및 대사회적 실천 사업 등 다방면에서 사업의 영역을 펼치리라 믿는다"며 교구와 지역에서 다양한 신행활동과 포교활동을 부탁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2월 6일 제6교구 마곡사 신도회, 12월 18일 제3교구 신흥사 신도회를 창립해 전국 24개 교구에 교구신도회를 모두 구축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는 교구신도회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7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청도에서 2015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1월 22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제12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원연수에는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 등 조계종 포교원 스님들과 17개 교구신도회와 16개 신도단체 대표, 각 교구본사 종무실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2개 군법당, 십시일반 '군법당 불사'

군종교구, 21일 고양 백마일승사 낙성법회 개최


군종교구는 11월 21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육군 9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백마일승사 낙성법회를 거행했다.

시급한 군법당 불사에 전국 22곳 군법당이 십시일반 동참해 화제다. 군종교구는 11월 21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육군 9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백마일승사(주지법사 서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9사단 신병교육대대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기존법당이 1996년 안전문제로 폐쇄돼 부대 강의장에서 법회를 진행해왔다. 올해 2월 신병교육대대 자장면 대중공양 행사에서 이런 상황을 본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불사를 발원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연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22곳의 다른 부대 군법당에서 불사금 4200만원을 모연했다. 여기에 군종교구 5000만원, 범어사 3000만원, BTN불교TV 무상사 2000만원, 일산 여래사 1000만원, 관산여래사 1000만원, 일산 길상사 500만원, 일산 원각사, 정혜사, 진각사에서 각 300만원 등 전국의 불자들이 총 2억2000만원을 모아 불사에 동참했다.

낙성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고양시 조계종주지협의회장 보산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3군사령부 보명 공영호 법사 등 3군 예하 군승, 9사단장 강천수 소장, 군장병, 무상사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낙성법회에서 "사부대중의 아름다운 보시가 모인 이곳에 군장병들이 따뜻한 병영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사단장 강천수 소장은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이 모여 마련된 백마일승사는 앞으로 백마부대 장병들의 마음을 닦는 진리의 도량으로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성법회 후 진관사에서 후원한 자장면이 9사단 장병들과 불사 동참불자 등 750여 명에게 제공됐다. 노덕현 기자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열려

BBS불교방송, 12월 19일 본선무대 개최

12월 3일 예선 접수 마감

어린이들의 끼와 창의력을 '찬불 동요'를 통해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

BBS불교방송이 12월 19일 서울 마포구 불교방송 법당 다보원에서 '창사25주년 제6회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을 개최한다. 이날 무대는 12월 3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하는 예선작 중 비공개심사를 통과한 본선진출자들의 공연으로 펼쳐진다. 본선진출곡은 12월 4일 BBS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응모분야는 △작사 · 작곡 △가창 △독창 및 중창(8인 이하) 등이다. 작사 · 작곡은 연령제한 없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가창과 독창 및 중창은 전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르는 가요, 국악, 힙합(랩) 등 불문하지만, 가사는 반드시 불교적 내용이어야 한다.



제6회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공식 포스터

시상내역은 △대상(1팀) 상금 2백만 원 △금상(1팀) 상금 1백만 원 △은상(1팀) 상금 50만 원 △동상(1팀) 30만 원 △인기상(1팀) 상금 30만 원 등 시상한다. 또한 본선 진출작 전원에 대해서는 상장이 수여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교 복지공동체, 주민참여 제도화가 열쇠"

김형용 동국대 교수, 조계종복지재단 20주년 심포지엄서



"스웨덴의 경우 근린협의회가 지역 사회서비스 계획에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라면 이용자이사회는 개별 기관의 예산을 결정하고 운영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건 · 복지영역에서 모색되고 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도 시설과 이용자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사진〉는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에서 불교계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앞서 한동우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분과위원장이 발제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공동체 구축방안' 에 대한 토론에서 복지강국인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예로 들어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지행정과 관련해서 북유럽의 이용자 주체 개념을 적극 차용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을 이용자이사회가 직접 운영하게 하고, 이용자 대표는 지역사회주민협의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 이라며 "이는 국가복지의 일부분을 이용자에게 이양하는 것이자 이용자들의 역량강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용자들에게 책무성을 부여하기보다 수직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전문 기술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실패요인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찰을 바탕으로 한 복지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운영 방식과 다른 혁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실패요인을 먼저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면서 "관료적 복지행위와 공동체문화가 사라지는 시설, 삶과 유리된 복지급여, 새로운 활동에 대한 두려움 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유공자로 선정된 10인과 조계종 호계원장 지원 스님(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 김 교수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규범과 윤리 강화 △사찰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 추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현장성 강조 △지역사회 시민통제(시민평가) 개념 적용 등을 제시하면서 "불교계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5시에 봉행된 기념법회에서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과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을 비롯한 10명이 재단 20주년 기념 유공자로, 윤학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등 18명이 2015 불교복지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주민협동스쿨', 전국 우수프로그램

신사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평가서

3년마다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 전국평가에서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의 '따사로이 주민협동스쿨' 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은 11월 23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열린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세미나' 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상을 수상했다.

수상은 사회복지관 부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따사로이 주민협동스쿨' 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관이 서비스제공자라는 기존의 관점을 바꿔 지역주민 자생단체를 지원 · 양성하고 '마을지향복지관' 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따사로이 주민협동스쿨' 은 올해 △어르신 및 결혼이주여성 모임(소셜다이닝-밥상공동체) △주민모임(품앗이 육아 · 꼬마도반 · 동화나라 옹달샘) △마더센터 준비모임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임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주민 활동가를 발굴하고 지역 아젠다를 형성해 주민들의 주체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지완 스님은 "앞으로 복지관이 주민들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를 풍성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관 · 양로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종에 걸쳐 진행됐으며, 840여개 시설 중 27개 시설 프로그램이 최우수 및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윤호섭 기자

공생회 대구지부, 성내3동 취약계층 돕는다

'이웃사랑 쌀항아리' 동참도

지구촌공생회 대구지부(지부장 선지)는 11월 20일 중구 성내3동주민센터(동장 민형기)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후원 협약을 맺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지구촌공생회 대구지부는 성내3동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5가구에 매월 5만원씩 지원하게 됐다. 더불어 대구지부는 이날 주민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이웃사랑 쌀항아리' 에 동참해 쌀을 기탁하기로 했다.

대구지부장 선지 스님은 "작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됐으면 한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형기 동장은 "주위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지구촌공생회와 선지 스님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남성 독거어르신들 "삶의 질 높아졌어요!"

은평노인福, 자립심 향상 프로그램 수료식

사회 고령화에 따라 독거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고립감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복지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11월 25일 경기도 이천에서 '남성 독거어르신의 일상 Up-grade 활기찬 삶! 멀리 있지 않아요' 수료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총 48회기(전 · 후반기 24회씩)에 걸쳐 남성 독거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식품구입법 · 조리법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수납 · 청소도구 사용법 △관계단절 예방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인문학 교육 △정서적 지지 및 자조모임을 위한 캠프 등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많이 적적했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많은 친구들이 생겨 즐겁고, 혼자 생활하는 데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긍정적인 생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뇌졸중 평가 최우수

100점 만점에 99.8점

동국대 일산병원이 '급성기 뇌졸중'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5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 에서 1등급을 획득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심사평가원이 18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기록을 토대로 진행했으며 동국대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100점 만점 중 99.80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동국대 일산병원은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서 치료대기시간을 줄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민구 동국대 일산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치료 시기가 중요한 질환에 대한 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며 "환자 안전에 한 걸음 더 앞서가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일산병원은 15세 미만 '유 · 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에서도 84.19%의 평균 항생제 처방 비율보다 낮은 53.66%로 1등급을 획득했다.

노덕현 기자

"쪽방촌에 자비의 온기 전해요"

아름다운동행, '아이연탄맨' 첫 출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첫눈이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의 시작을 반기고 있지만 쪽방촌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겨울나기에 대한 고민으로 무겁기만 하다.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아름다운동행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1월 25일 (주)동서식품의 후원을 받아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저소득가정 9곳에 각각 연탄 200장씩 1800장을 전달했다.

동서식품 임직원 27명이 봉사자로 동참한 이번 연탄나눔은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연탄맨' 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전달한 연탄 외에도 11월 말까지 저소득가정 11곳에 연탄 2200장을 추가로 지원했다. 12월에도 동서식품과 2차 연탄나눔을 통해 4000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정릉3동 5통 변진수 통장은 "정릉동에는 여전히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 많고 연탄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동네의 지형이 매우 가파르고 언덕과 계단이 많은 산동네에 위치해 있어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아름다운동행과 동서식품의 도움 덕분에 정릉3동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감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월 25일 정릉3동에서 연탄나눔봉사를 하고 있는 동서식품 임직원들.

지난해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릴레이로 시작된 '아이연탄맨' 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첫해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면서 한동안 기부문화를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는 모금액이 소폭 상승했지만 사회적으로는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겨울, 총 3만장의 연탄을 소외이웃에게 지원하겠다는 아름다운동행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 02)737-9595

윤호섭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7회 원효학술상(元曉學術賞)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철학, 한국 철학 속의 세계' 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해 한국 철학이 국제 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효학술상을 공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공모 주제** :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
  (* 상기 전제하에 다음 각 부문 중 자유선택 · 1인 1편 응모)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 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 · 박사 과정 학생 3인 이내 :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11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
  (저서는 ISBN 등록본).
  3)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1) 접수 기간 : 2016년 1월 4일(월) ~ 2016년 2월 29일(월)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3) 접수처 : 주소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719-2606
  •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kbpf@chol.com).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2016년 4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 2016년 4월 말 또는 5월 초(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www.kbpf.org 문의 : 02-719-2606

일각(一刻)도 방일(放逸)하지 말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順水使船猶自可(순수사선유자가)
逆風把ㅣ]世間稀(역풍파타세간희)
雖然好箇擔板漢(수연호개담판한)
到頭未免落便宜(도두미면낙편의)
什　人恁　來(십마인 임마래)

흐르는 물에 배를 띄움은 오히려 쉬움이나 바람을 거슬러 키[ㅣ]를 잡음은 세간에 드묾이라. 비록 이 좋은 담판한(擔板漢)이나 마침내 편의(便宜)에 떨어짐을 면치 못함이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옴인고?

금일은 동안거 결제일이라.

이 삼동구순(三冬九旬) 결제 동안 모여서 안거를 시작함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자연의 이치처럼 인간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세월의 흐름만 한탄하게 될 것이니, 대중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의 대오견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안거제도가 제대로 이어오고 있는 곳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얼마나 수행하기 좋은 곳인지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은혜와 시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일각(一刻)도 방일(放逸)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이 몸은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므로, 이 몸은 참다운 나가 아니다. 참다운 나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까닭에 중생들은 나고 날 적마다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인가?" 이 화두를 일상생활 가운데에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다. **〈중략〉**

그렇게 정성껏 잡도리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두가 익어져서 밤낮으로 흐르고 흐르다가 문득 참의심이 발동이 걸리게 되는데,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며칠이 지나가는지 몇 달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니, 이것이 일념삼매인 것이다.

이처럼 일념삼매가 시냇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지속될 때, 홀연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됨이로다. 그리하면 어떠한 법문에도 석화전광(石火電光)으로 바른 답이 흉금(胸襟)에서 흘러나와 여탈자재(與奪自在), 살활종탈(殺活縱奪)의 수완을 갖추고 억겁세월(億劫歲月)이 지나도록 진리의 낙을 수용하며 불조(佛祖)의 스승이 되고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천하를 횡행(橫行)하는 대장부의 활개를 치게 됨이로다.

덕산(德山) 스님은 중국 북방지역 사찰에 거주하면서 일생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 주(註)와 소(疎)로 일관하여 〈금강경〉에 달통한 스님이었다.

하루는 덕산 스님이 "남방 선지식들로부터 들려오는 말들이, '직지인심(直旨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라, 곧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룸이라 하니, 이러한 말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남방에 가서 모든 남방 선지식들을 일봉(一棒)으로 때려서 벙어리가 되게끔 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북방을 출발하여 남방으로 향하였다.

여러 달을 걷고 걸어서 남방의 용담사(龍潭寺) 부근에 이르니, 점심때가 되어 요기를 하려고 사방을 살피던 중 노변(路邊)에 빵을 구워 파는 노보살이 있기에 다가가서,

"점심 요기를 좀 합시다."하니,

그 빵 굽는 노보살이 물었다.

"스님 바랑 속에 무엇이 그리 가득 들어 있소?"

"〈금강경〉 소초(疎秒)입니다."

그러니 노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금강경〉의 한 대문(大文)을 물어서 답을 하시면 점심을 그냥 대접할 것이고, 만약 바른 답을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하니, 덕산 스님이 자신만만하게 물으라고 하였다.

노보살이 〈금강경〉 한 대문을 들어 묻기를,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심(過去心)도 얻지 못하고, 현재심(現在心)도 얻지 못하고, 미래심(未來心)도 얻지 못한다' 하니, 스님은 과거심에다 점을 치시렵니까[點心], 현재심에다 점을 치시렵니까, 미래심에다 점을 치시렵니까?"하니,



덕산선사 알기 위해
화두 성성히 챙겨
정진에 정진 거듭하라

그 물음에 덕산 스님이 벙어리가 되어 답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이에 노보살이 말하기를,

"약속과 같이 바른 답을 못했으니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10리쯤 올라가시면 용담사라는 큰 절이 있으니 용담선사(龍潭禪師)께 가서 불법을 물으십시오." 하였다.

그러면 이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큰 용기와 신심으로 남방 마구니들을 한 방망이 때려서 벙어리로 만들겠다는 북방 덕산 스님의 그 용기와 큰 그릇됨[器]을 아시고 문수보살이 빵 굽는 보살로 나투시어 접인(接引)한 것이다.

요기도 못하고 노보살에게 방망이를 맞고는 곧장 용담사를 찾아가 용담선사 방문 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용담이라 해서 찾아왔더니, 못[潭]도 보이지 않고 용(龍)도 나타나지 않는구나!"하니,

용담선사께서 그 말을 듣고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그대가 친히 바로 용담(龍潭)에 이르렀네."

하고 방으로 맞으셨다.

밤이 늦도록 대담을 나누다가 덕산 스님이 객실로 가기 위해 방을 나오니, 밖이 칠흑같이 캄캄하여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으므로 다시 방문을 열고 ,

"사방이 칠흑 같습니다. 불을 좀 주십시오."

함에 용담선사께서 용심지에 불을 붙여 주니, 덕산 스님이 그것을 받는 순간 용담선사께서 입으로 불어 불을 꺼버리셨다. 불을 끄는 이 찰나에 덕산 스님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이후로는 천하 도인의 언설(言說)을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거기서 크게 진리의 눈이 열린 것이다.

뒷날 아침에 용담선사께서 대중방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중 가운데 이빨은 칼날과 같고 입은 피를 담는 항아리와 같은 이가 있나니, 그가 몽둥이로 때리면 머리를 돌이키지 못하느니라. 이후에 고봉정상(孤峰頂上)에서 나의 가풍의 도를 세워 가리니,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조심하고 조심하라!"

하셨다. 그런 후에 덕산 스님이 법당 앞뜰에서 〈금강경〉 소초에다 불을 댕기면서 말하기를,

"모든 현현(玄玄)한 웅변으로써 진리의 법을 설한다 해도 한 터럭을 허공중에 날리는 것과 같음이요, 모든 세상의 요긴한 기틀을 다하더라도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던지는 것과 같음이라."

하고 〈금강경〉 소초를 불살라 버리고 용담 선사께 예배하고 떠났다.

시회대중은 덕산 선사를 알겠는가?

덕산선사를 알기 위해서는 각자의 화두를 성성(惺惺)히 챙겨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와야 천불만조사(千佛萬祖師)와 더불어 동참하리니 모든 대중은 정진에 정진을 거듭할지어다.

필경에 덕산선사를 알겠느냐?

萬　峯頭坐(만인봉두좌)하여
呵佛罵祖(가불매조)나
脚下數三尺 會也　(각하수삼척 회야마)

만 길이나 되는 높은 산봉우리에 앉아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음이나 다리아래 두 자, 석 자가 됨을 아느냐?

"견성 깨달아 중생제도 나서자"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若人透得向上關(약인투득향상관)
始覺山河大地寬(시각산하대지관)
不落人間分別界(불낙인간분별계)
何拘綠水與靑山(하구록수여청산)

만약 어떤 사람이 향상관을 뚫는다면 산하대지에 걸림 없음을 알게 되리라. 인간세상의 분별에 떨어지지 않나니 어찌 푸른 산 깊은 물에 구애됨이 있으랴?

옛날 중국에 낭야 스님이 계셨습니다. 낭야 스님은 분양스님의 제자인데 자명 등 여러 도반과 함께 분양 스님 회상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무척 추운지방이었는데 분양스님께서 낭야 스님을 단련하기 위해서 찬물을 뿌리고 재를 뿌리면서 나가라고 해도 낭야 스님은 나가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여 마침내 도를 깨달아 임제종선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장수 스님이 낭야 스님께 여쭙기를 "허공과 같이 깨끗한 법계라 하는데 어찌 산하대지와 차별이 복잡하게 벌어져 시끄럽게 되었습니까?"하고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정본연(淸淨本然)커니 운하홀생산하대지(云何忽生山河大地) 닛고?"

"청전본연커니 어째서 산하대지가 생겨났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낭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정본연커니 운하홀생(云何忽生) 산하대지(山河大地)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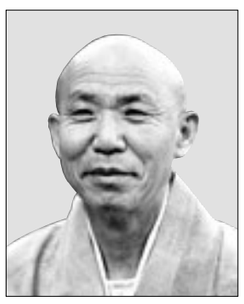
"청정본연한데 어째서 산하대지가 생겨났다고 하는가"하고 되물었습니다.

거기에 천동각(天童覺)스님이 송하기를 "견유불유(見有不有)요 번수복수(飜手覆手)로다" "있다고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한다. 손바닥을 뒤집기도 하고 엎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중략〉**

處處綠揚堪繫馬(처처록양감계마)
家家門外通長安(가가문외통장안)

곳곳에 푸른 버들이니, 말을 매어두기 알맞고, 집집마다 문 밖의 길은 서울로 통해 있도다.

거사로는 인도 유마거사, 중국 방거사, 우리나라 부설거사가 유명한 도인거사입니다. 하루는 방거사가 석두 스님을 찾아가서 "만법(萬法)과 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道)란, 진리(眞理)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 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방거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자 방거사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중략〉**



우리 총림의 대중들께서도 삼동결제 동안 애써 정진하여 견성(自性)을 깨달아 확철대오(廓徹大悟)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도록 합시다.

無常忽到敎誰替(무상홀도교수체)
有償元來用自還(유상원래용자환)
若要不經閻老案(약요불경염로안)
直須參透祖師關(직수참투조사관)

죽음이 갑자기 닥치면 누구를 시켜 대신하랴. 빚이 있으면 원래 제가 갚아야 하느니. 만일 염라 늙은이의 심문을 받지 않으려거든 모름지기 바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리라.

"일념화두, 망상에 무뎌지지 않게 하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十年端坐擁心性(십년단좌옹심성)
寬得深林鳥不驚(관득심림조불경)
昨夜松潭風雨惡(작야송담풍우악)
魚生一角鶴三聲(어생일각학삼성)

십년동안 오롯하게 마음하나 끼고 앉았더니 넉넉해져 숲속의 새들도 놀라지 않는구나. 지난 밤 송담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는데 고기들은 한쪽 모퉁이에 우글거리고 학은 두세 번 우는구나.

깊어진 수행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선사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밝혀서 깨달음의 환희에 젖어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안주한다면 참되다 할 수 없습니다. 큰 깨달음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자비심을 일으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보살님과 역대조사님은 일체중생을 제도하기위한 깨달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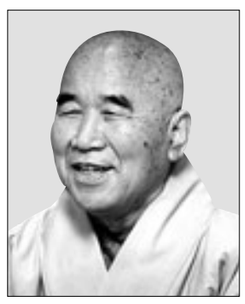
무연대자(無緣大慈)라는 말이 결코 수고로움을 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명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에 헤매고 있는 중생을 향한 연민심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숲속에서 마음 하나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잊고 앉아 있다 보니 새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머리 위에 앉았다가 어깨에도 앉았다가 날아갑니다. 산 짐승들도 머리로 툭 치고 가기도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분별심이 있다면 그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定)에 들었는데 비바람이 몹시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소나무 위에 잠자는 학들은 괜찮은지, 연못의 고기들은 괜찮은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선정 속에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날이 밝자마자 정에서 일어나 연못가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은 한쪽 모퉁이에 바글바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님 저희들 이렇게 지난 밤 동안 무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울건너 소나무 위 학들이 두세 번 소리 내 우는데 '저희들도 무사 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이처럼 미물에게까지 자비심이 일어나는 자기 성찰이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철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지혜와 얕은 자비심으로 만족하거나 자신을 속



여서도 안 됩니다.

이 집안에서는 부처의 길로 통하는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각자의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용맹심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오늘 결제는 모든 망상을 내려놓고 용맹하게 그 문으로 들어갔다가 무량중생을 제도하기위해 호방하게 다시 그 문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념화두의 칼날이 어떤 망상의 사슬에도 무디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法海行一珠(법해행일주)
無色亦無相(무색역무상)
日用而無盡(일용이무진)
長夜常自光(장야상자광)

불법의 바다에 굴러다니는 한 개의 구슬이여!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구나. 날마다 쓰고 또 써도 다함이 없는데 기나긴 밤에는 항상 저절로 빛나네.

"무명과 애욕은 본래 공하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粉骨碎身破無明(분골쇄신파무명)
飜天覆地入空界(번천복지입공계)
懸崖撒收進一步(현애철수진일보)
金烏夜半徹天飛(금오야반철천비)

분골쇄신 정진하여 무명을 타파하니 천지를 뒤엎고서 공한경계 들어가네. 벼랑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니 밝은 해가 한밤중에 하늘 위로 오르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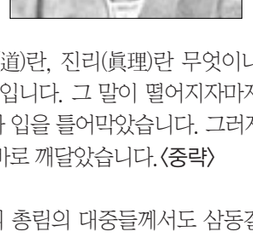
煩惱鑛中(번뇌광중)에 含藏眞寶(함장진보)를 大衆(대중)은 還可採得摩(환가채득마)아 若是了得者(약시료득자)인댄 且道一句來(차도일구래)하라. 如何卽時(여하즉시)오 良久(양구)에 '一喝(일할)' 云(운) 面南看北斗(면남간북두)하니 閃光(섬광)이 照十方(조십방)이로다.

번뇌광중에 참다운 보배 함장한 것을 만약 알아 얻은 자일진댄 한마디 일러보라. 어떤 것이 곧 옳은고? 잠깐 있다가 '할' 을 한 번하고 이르시되 얼굴을 남쪽으로 하여 북두칠성을 보니 번쩍이는 광명이 시방을 비추도다.

是會大衆(시회대중)은 諸聽(제청)하라. 天下叢林(천하총림)이 須是大治寮(수시대치료)니 將來鑛石(장래광석)하여 百千鍛鍊(백천단련)하고 分類銅鐵(분류동철)이어든 撿出眞金(염출진금)하야 提示目前(제시목전)하야사 始得(시득)다. 若也不實(약야부실)인댄 黑山下鬼窟活計(흑산하귀굴활계)니 雖坐彌勒下生時(수좌미륵하생시)인들 有何奇特(유하기특)이리요 一念卽下契悟(일념즉하계오)하야사 卽是了事凡夫(즉시료사범부)니라.

시회대중은 자세히 들어라.

천하총림이 큰대장간이니 광석을 백천번 단련하여 구리와 쇠를 분류하거든 진금을 가려내어 눈앞에 보여야사 비로소 옳다.



만약 또한 진실하지 못할진댄 검은산속 귀신굴의 생활이니 비록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앉아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한생각 즉하에 깨달아야사 곧이 일 마친 대장부이니라.

革凡成聖珍貴社(혁범성성진귀사)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
全致眞金無鑛石(전치진금무광석)
無明愛河本來空(무명애하본래공)

범부 고쳐 성인됨이 가장 귀한 일이니 잠깐의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말라. 온전히 진금 되면 광석은 없어지니 무명과 애욕은 본래 공했도다.

"마음 단속 잘해야 동요하지 않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세월의 흐름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금년에도 동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 되어서 능히 온갖 묘함을 갖추고[常爲諸佛之師能含衆妙], 언제나 현인들의 어머니가 되니 가히 유현하다고 할 만합니다[恒作　賢之母 可謂幽玄].

이러하니 이 마음이야말로 깊고 깊어서 도저히 알기 어려운 그야말로 현묘(玄妙)하고, 현미(玄微)해서 심원(深遠)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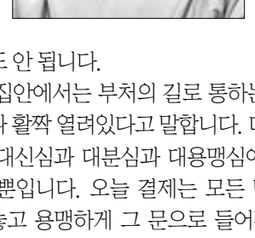
한편 이처럼 심원한 불교의 우주관적 마음세계는 과학적 관점에서도 소립자 물리학자들의 견해인 "모든 입자는 서로 다른 입자를 만드는 데 도와주는 소위 '자체조화(自體調和)' 속에서 일종의 우주 그물을 짜고 있다"는 구두끈 이론에서 그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화엄경〉에 나오는 인드라 하늘에 있는 진주 그물의 비유는 소립자 물리학이 나오기 2,500여 년 전에 인간의 마음을 탐구함으로써 창조되어진 최초의 끈 이론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과학과 불교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의 유사한 사유방법으로 인하여 불교의 위대한 사상체계가 현대과학의 인식체계를 통하여 여실하게 예증(例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신앙체계는 용심(用心)을 통해 안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마음수행을 요구하고 있기에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자다운 고고한 인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업연에 의한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기본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인고의 노력 또한 절실히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깨침을 향한 수행자라면 할절신체(割節身體)의 고통도 인욕바라밀로 견디신 석존의 수행이력을 깊이 되새겨 수행정진에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안거에 들어가는 수행납자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대상을 찾고, 그 마음을 잘 단속하여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의 동요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요가 일지 않는다면 마구니들이 감히 그 마음을 훔치려고 달려들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唯心淨土 別無地(유심정토 별무지)
自性彌陀 何異形(자성미타 하이형)
衆生迷此 在塵中(중생미차 재진중)
是故能仁 開淨土(시고능인 개정토)

오직 마음의 정토만 있을 뿐 따로 부처님 세상은 없고, 자성미타가 어찌 다른 모습이겠는가. 중생이 미혹하여 티끌세상에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석존께서는 정토를 여셨도다.

"〈조선불교총서〉 간행은 한·중·일 프로젝트"

혜원 스님, 동국대 · 동양대 공동학술세미나에서 밝혀

"1920년대 조선의 찬술문헌을 모은 〈조선불교총서〉 간행 추진은 한국 조선불교회가 주체가 되고 일본과 중국의 불교계가 협력한 프로젝트였다."

일제 시대 이능화와 정황진이 추진한 〈조선불교총서〉 간행이 한중일의 협력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사진〉은 11월 19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제4회 동국대 불교대학 · 동양대 국제철학연구센터 공동연구세미나에서 미완인 1920년대 〈조선불교총서〉 간행과 관련된 내용을 밝혔다.

혜원 스님은 "1920년대 조선불교회가 진행한 〈조선불교총서〉 간행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조선불교총서취지급내용견본회규서목〉을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혜원 스님은 〈조선불교총서〉 간행의 중심에 이능화와 정황진이 있음을 들었다. 특히 혜원 스님은 정황진에 대해 주목했다.

혜원 스님은 "1911년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반포 후 조선 불교계는 일본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1914년부터

'…화규서목' 토대 근거 밝혀

승려 정황진 활동 중심 고찰



일본 불교계 대학에 조선인 승려가 유학하게 됐다"며 "총 13인인 승려 중 조동종 대학에 유학한 이가 정황진"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정황진은 1925년 6월 조선불경간행회의 주무편집원으로 중국불교 중심인물인 태허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조선불교총서 간행을 하고 있음과 간행에 도움을 요청한다. 경위와 함께 게재 목록을 보낸 것"이라며 "1928년에는 일본의 대학에서 협력을 자청했다. 정황진의 인연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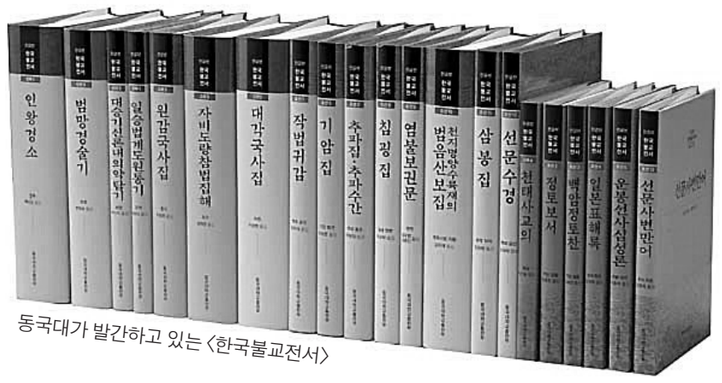
하지만 스님은 〈조선불교총서〉 간행이 재정적인 문제로 진행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스님은 "당시 조선불교계의 중앙승려들은 조선불교총서 간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중앙교무원에서도 원조한 기록이 없다. 1931년, 조선불서간행회에서 두 번째 서적 〈법화령험전〉이 간행됐으나 대표가 일본인의 이름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미완이긴 하지만당시 한중일,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이 고심하여 땀흘린 역사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대기 한 · 일 양국 불교의 변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동국대와 동양대에서 3명씩 총 6명이 발표를 진행했다. 박인성 교수의 '변행심소(遍行心所) 촉(觸)에 대한 후카우라 세이분(深浦正文)의 해석', 고영섭 교수의 '뇌허 김동화의 불교 인식'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전서〉 50권 출간 눈앞



동국대가 발간하고 있는 〈한국불교전서〉

동국대가 추진하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가 50권 발간을 앞두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올 연말 〈청허당집〉, 〈경허집〉,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연주기회편〉, 〈범망경보살계본사기 상권〉 등을 출간해 50권을 채울 예정이다.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간행사업은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인에 의해 저술된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한문불전인 〈한국불교전서〉 전14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대작불사다.

동국대는 2010년 6월 1차로 7권을 출간한 이래, 매년 6~7권 씩을 펴내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2016년 상반기에 활동과 학술적 성과를 조명하는 기념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청허당집〉은 조선 중후기 불교계 태두로 일컬어지는 청허휴정스님의 문집이며, 〈경허집〉은 근대 선불교 중흥조 경허스님의 선풍을 드러낸 문집이다.

그동안 〈한국불교전서〉 역주 사업은 불교학과 국문학을 비롯한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학자 배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300권 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 은 한글대장경 완간에 버금가는 대작불사"라며 "올해까지 출간될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0권을 토대로 한국학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

총 300권 대작불사 초석 다져

2016년 상반기 학술세미나 예정

대해나가겠다.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출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0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0권 발간기념 도서목록' 팸플릿을 제작해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동국대 출판부는 "전서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읽혀 전통문화 창달과 한국불교 중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탑돌이는 불교의식이자 민속문화"

중앙승가대 불탑신앙 조명 세미나 '눈길'

타파, 스투파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불탑은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곳을 칭한다.

부처님 열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탑은 예배와 공경의 상징조형물로서 무한한 공덕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동안 불탑의 양식과 가람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무형요소인 탑돌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탑돌이 신앙에 대한 고찰이 이뤄져 관심을 모은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은 11월 27일 승가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불교문화와 사상 속에서의 탑파' 를 주제로 제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심재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불탑신앙관과 민속' 발표를 통해 한국의 탑돌이 의식이 인도불교의식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전통적인 민속놀이의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평창 월정사 8각 9층석탑 탑돌이 모습.

심 학예연구사는 "사찰 내 탑의 의미는 조형물이 아닌 진리의 상징으로, 〈불설시가라월육방예경〉에는 탑을 돌면서 염불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불탑이 곧 여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학예연구사는 "탑돌이는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의례를 했다는 성격에서 생활문화 중 의례생활에 포함된다"며 "탑돌이는 이미 불교의례뿐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민속문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성우 스님이 '불탑신앙의 원형' 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중앙승가대 오인 스님의 '불탑과 방편사리-경전을 중심으로' △김동하 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의 '신라불탑 부조성에 대한 일고찰-경주지역 불탑을 중심으로' △일본 불교대학 혜명 스님의 '한일 사리장엄 비교-백제와 고대 일본자료를 중심으로' 등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성주 법수사지서 고려시대 건물 배치 확인

건물터 6개 드러나… '법수사' 기와 등 3000여 유물 출토



9세기 초반 창건된 성주 법수사 터(法水寺址)에서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심사역(사찰의 중심이 되는 구역)의 건물 배치가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성주군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4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려시대 축조돼 조선시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 6개와 기타 시설물의 흔적을 찾아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조사가 이뤄진 곳은 보물로 지정된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으로, 1호 건물지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 금당(金堂, 부처를 모신 건물) 터로 짐작되는 건물지가 드러났다. 1호 건물지에는 동서 방향으로 계단과 보도 시설이 있어 다른 건물로 이어지는 동선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당으로 추정되는 2호와 3호 건물지는 바닥에 벽돌을 깔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형태의 대규모 불단을 갖췄던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가구를 짜듯이 구성한 가구식 기단(架構式 基壇)과 뛰어난 석재 가공기술로 미뤄 이들 건물의 품격이 매우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자기, 기와, 청동불상 등 유물 3000여 점이 출토됐다. 특히 '법수사금당'(法水寺金堂)이라고 새겨진 평기와와 '법수사시왕당' (水寺十王堂)이라는 글자가 조각된 청동합 등 사찰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유물이 나왔다.

법수사는 통일신라시대에는 금당사(金塘寺)로 불렸으나, 고려시대에 중건하면서 법수사로 사찰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문화층이 발견됐다.

1677년 성주 지역에서 간행된 책인 '경산지' (京山志)에는 법수사가 금당 9개, 종각 8개 등이 있는 천 칸 규모의 사찰이라고 기록돼 있다.

노덕현 기자

"구인사 생전예수재, 보존 가치 충분"

천태종, 22일 '생전예수재 전승 · 가치' 학술대회

"구인사 예수재는 참회문화를 사회에 알리는 기능 · 역사적인 전통문화유산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11월 22일 서울 관문사에서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전승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에서 "생전예수재는 생전에 본인이 스스로 공덕을 닦아 사후에 극락왕생하겠다는 내용으로 스스로를 참회하는 성찰이 담겨있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사회에서 예수재를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홍 명예교수는 "예수재는 정신적 · 사상적 · 신앙적 근거가 되는 경전, 그에 내재된 신앙심을 표출하는 의례집, 의례집에 따른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기능 등 세 가지 문화유산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신앙공동체까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전승과 설행' 에서 "구인사 생전예수재는 수륙재 · 영산재 · 예수재가 융합된 의식"이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범패와 전통 불교의식의 기능을 수용해 천태종의 의례로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천하대도로 일체종교를 초월 만년말법을 지킬 약사미륵 달마묘법 팔품경으로 당신도 부처될 수 있는 불국정토 평화촌으로 남북통일 세계평화종교통일 만든다. 지구촌 천지개벽과 각종 질병을 넘어 만법을 다스릴 수 있는 진광도법 이생에 명부를 천부에 올려 수명이 늘어나 도인, 신선, 선녀 일류스승되는 금강진법의 루진통 대법회

진광진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최대이슈 원, 방, 각, 해인도법의 잣대를 얻어 하늘땅 각종 종교에 감춰진 마음이 생명의 빛이 업에 쌓여 수행마장, 기도마장, 병마장으로 말과 글, 염불, 목탁, 참선, 각종수행으로는 마음과 생명이 들어다니는 현관을 찾지 못하는 초우주에 감추어진 마음에 문을 귀신도 모르는 진법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빛으로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자성, 즉 견성성불을 남여 노소 학력 나이 관계없이 비구니 보살도 성불 받을 수 있는 초능력으로 하늘에 도법을 부여받아 각종질병과 현재 부리는 신도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빛을보아 도를 통한 도인만이 병겁을 다스리는 인류스승으로 전법사, 포교사, 철학운명사, 건강관리사 자격을 얻어 포교원을 개원하는 일류 스승되는 진광도법 루진통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빛을 보는 도통군자 일류스승 되소서 이경신은 천서없이는 허주에 빙의되는 것이며 부처님께서도 루진통을 하지 않는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신 천하 대도법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제일 :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해시 ■ 해제일 :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세면도구,무박 2일 ■ 입제비 : 10만원 (농협 029-02-167866 곽한영)

■ 유불선이 하나로 우주에 빛으로 눈과 두뇌를 열어 영육이 하나로 성불도통하는 묘법팔품경 출간 [값, 삼만오천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 3층 천지공사 유불선 십경신도통회 총본산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용천사 032)502-6625,6619 / 010-9292-3110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부평역하차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 부평시장역하차 1번 출구쪽 승강기 타시고 하이마트에서 시장쪽 횡단보도 건너 재래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아울렛DC 백화점 3층 용천사

지역 소외계층 위한 먹거리 한마당 열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자연음식문화원(대표 곽인순)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먹거리 한마당을 벌였다.

자연음식은 문화원은 11월 21일 사찰음식 전문가 대전 영선사 법송 스님을 초청해 '지역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먹거리 한마당' 을 진행했다.

전라북도청이 후원하고 (사)자연음식문화원이 주최한 이번행사는 음식의 고장 전주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대안운동으로써 사찰음식 정신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역주민 중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소외계층 장애인학부모를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작된 먹거리 한마당은 이주민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자연음식을 소개해오고 있다.

법송 스님은 "사찰음식은 깨달음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제가 가능하니 눈에 보이는 음식을 조절해 몸을 가볍게 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도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떳다방 포교당 OUT" VS "정상적 포교활동"

전북 18개 불교단체, 26일 마애사 포교원서 항의 집회

전주 지역을 비롯해 각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교원을 개원하고 조상 위패와 원불모연 불사를 하고 있는 경남 함안 마애사 포교원에 대해 전북지역 신행단체들이 이를 성토하고 나섰다.

전북불교신도회, 전북불교네트워크,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대불청 전북지구, 대불련 전북지부 등 18개 단체 대표자들은 11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마애사 포교원을 방문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마애사 포교원은 몇 개월 단위로 지역 건물을 임대해 떳다방식으로 옮겨다니며 위패와 원불을 판매하고 있다" 며 "진정한 사찰의 역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화전법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마애사 포교당의 형태는 비불교적 떳다방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법당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님이 상주하지도 않으며 단기 임대된 공간에서 노래방 기계와 생필품 제공을 미끼로 지역 주민을 현혹시켜 궁극적으로 수백만 원의 위패와 원불을 판매하고 있어 지역 불자들과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애사가 수 개월전 비불교적 영업방식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물의로 언론에 보도되자 포교당을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금 포교당을 여는 것은 지역불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며 "불교단체들은 즉각적인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교구본사, 대각회, 조계종 총무원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몇 개월 단위 임대해 옮겨다며
위패 등 판매… "떳다방식 운영"
"비불교적 행위로 佛心에 상처"
마애사 "근거없는 낭설" 일축

이에 대해 마애사 허세창 신도회장과 전주 포교원 임종국 문화원장은 "전주 포교당은 예불등 정상적인 포교당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며 "지역 불자들이 생각하는 떳다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불교네트워크 등 18개 단체 대표자들은 11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마애사 포교원을 방문하고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마애사 회주 무진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애사 포교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정도 운영하고 있다" 며 "100여명의 포교사들이 각 포교당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각 포교당은 조석 예불 등 정상적인 포교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불자들이 마애사의 포교 활동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며 "각 포교당에서 모연된 불사금은 전액 마애사로 입금되고 있고 포교사들에게 일정액의 보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떳다방 포교당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마애사에서 포교당을 직영하고 있다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등 증거자료 제출 요구에는 '사생활' 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즉시 철수를 원하는 지역불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우선 운영하고 그 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마애사 포교당은 관세음보살 원불과 조상 위패 봉안 불사금으로 각 120만원과 윤회탑불사 1인당 30만원에 모연하고 있다.

불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진 스님은 "불사금이 부담되면 안하면 된다"며 "그 외 일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성복 마애사 종무실장 역시 "불자들의 환불 요구가 있을시 즉각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계종 호법부는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해 생필품 등의 선물을 배포 △단기 운영 △법회와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와 만담 등 유흥 위주의 운영 △스님이 없거나 재가자가 점장 · 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비용을 요구하고 할부, 분납을 강조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을 유사 포교당의 피해 사례로 제시하며 불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 불교계 김장 나눔 지역 소외이웃에 전달

불교 · 원불교 · 천주교 · 개신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과 봉사자들이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진안군청 광장에서 '2015 김장김치 나눔 축제' 를 펼쳤다.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 · 보경 스님(쌍봉사 주지) · 진송 스님(혜인정사 주지) · 정해 스님(탑사 총무)을 비롯한 스님들과 태고종 나누우리자원봉사단, 지역불자 등 40여 명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동참해 관내 3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각각 300kg씩 김장을 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4대 종단 종교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김장나눔축제에 동참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안군 관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전 전수 범음범패, 빛고을 장엄하다

광주전통불교영산회, 18일 정규 시연회 개최

광주시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 영산재' 의 시연이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11월 18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제11차 전통불교영산작법 시연회' 를 갖고 광주전남지역에 전승돼온 영산작법을 선보였다.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된 시연회에는 광주영산재 범음이수자 혜령 스님, 바라이수자 호산 스님, 작법이수자 월인 스님을 비롯해 40여 명의 회원스님들이 직접 시연에 나섰다.

행사는 영산재 도량에 부처님과 영가를 청해 모시는 의식인 시련을 시작으로,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청해 모시는 신중작법, 영가를 부처님의 감로법으로 깨끗이 씻어 드리는 대령관욕, 지장청, 신중퇴공, 영가단에 공양을 베푸는 관음시식, 봉송이 3시간 가까이 이어져 장엄함을 더했다.

회장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영산작법이 전해진 문헌은 찾을 수 없지만 고려 진각국사가 처음 경기도와 호남, 영남에 의식을 전한 것이 구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남지역 영산재의 특징은 가장 힘이 있는 형식을 띤다"고 설명한 뒤 "광주전남지역에 범음범패가 일반인에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과 이웃, 종교간 화합과 소통에 동참"

순창 사암聯, 24일 한마음 대법회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알려진 전북 순창에서 지역불교발전과 소통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대법회가 봉행됐다.

순창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암, 장덕사 주지)는 11월 24일 순창군 문화원에서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한마음 대법회를 봉행했다.

한마음 대법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전주 남고사 원혜 스님,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순창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황숙주 순창군수, 강동원 국회의원, 이기자 순창군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장 및 지역불자들이 대거 동참해 성황을 이루었다. 암도 스님은 '잘 사는 법' 이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건전해야 하며 말은 건실하게 해야 한다"며 "자비나눔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소통과 협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호남권 신도회 간담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1월 19일 광주불교회관에서 제17교구(금산사), 제18교구(백양사), 제19교구(화엄사), 제21교구(송광사), 제22교구(대흥사), 제23교구(관음사), 제24교구(선운사) 신도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5권역별 교구신도회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취지 설명, 종단신도조직 현황 및 중앙신도회 주요사업 안내, 교구별 활동 공유, 교구신도회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각 지역 교구신도회가 대부분 창립돼 활동하고 있다. 교구신도회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은 협의를 거쳐 중앙신도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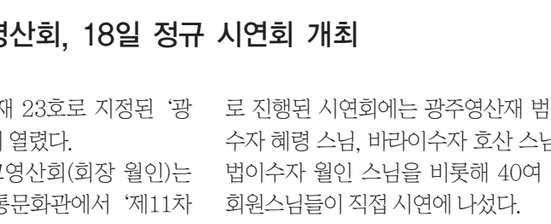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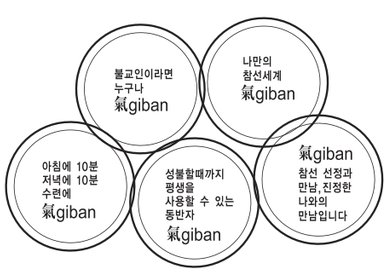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사찰 물에 잠긴다, 예방책 마련하라!”

부산 청량사, 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공사에 몸살

전통사찰인 부산 강서구 청량사(주지 운암)가 인근에서 진행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에코델타시티 공사로 인해 심각한 수행환경 침해를 받고 있다. 하루 4500대에 달하는 덤프트럭이 사찰 앞을 지나면서 환경을 오염하는 것은 물론, 공사가 완료되면 청량사 인근 지반이 3~5m가량 높아져 침수 등의 문제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량사 주지 운암 스님과 김무겸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은 11월 25일 청량사 일주문 앞에서 수행도량 수호에 대한 결의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총 360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친환경 수변도시로 서울 여의도 4배 면적에 달한다.

이날 주지 운암 스님은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일주문 쪽에 도로가 완공되면 청량사는 도로의 먼지와 쓰레기 상시 유입은 물론이고, 상습침수지역으로 변해 사찰 기능이 마비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수많은 청원과 탄원을 통해 시행사와 건설사 등 관련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무성의한 자세와 관행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공사가 끝나면 청량사를 경계로 두고 있는 지반의 높이가 3~5m가량 높아져 도량이 분지형태를 띠게 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김무겸 신도회장은 “절에 기도를 하러 오려고 해도 달리는 덤프트럭의 위협에 쉽

하루 덤프트럭 4500대 지나다녀

소음·진동에 수행 불편 겪어

완공 시 주변 지반 상승에 침수 우려

건설·시공사 대책 마련 미흡

사리 올 수 없는 이 현실은 누가 만들었는가. 믿음과 안전한 기도처를 앗아간 것은 수자원공사”라고 규탄하며 “청량사는 강서구 유일의 전통사찰이며 자손대대 이어가야할 보존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청량사는 △우회도로 건설 및 건식 청소, 방음벽 설치 △미세먼지 방지돔 설치 △ 북풍문제 해결 △주민 안전 위한 출근시간 차



부산 청량사는 11월 25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량 통제 △진목마을 주변 2km 내 시설 공사 건설계획 공개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청량사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내 부지와 인접한 위치에 있는 동일 면적의 대체 부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신도회장은 “사찰을 둘러싸게 될 지반 높이의 경사를 완만히 하고 최대한 수행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부대중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에코델타시티 공사팀은 “앞으로 지반 보강을 통한 진동방지 및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침수 우려는 공사를 통해 영향 받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주변 주민들이 남아 있어 도로 개설이 늦어진 상황이다. 청량사 뒤편 공사가 진행되면 우회도로를 설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량사는 제14교구 범어사 말사로 1959년 홍경선사가 주석한 사찰이다. 법당 후불탱화는 2005년 지방문화재로 등록됐으며, 마을의 수호사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나눔 실천은 곧 허공법계에 불사하는 것”

삼광사, 사단법인 나눔광장 출범식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자비희사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삼광사(주지 무원)는 11월 25일 지관전에서 (사)나눔광장 출범식을 거행했다. 나눔광장은 베풂과 봉사 그리고 기부 활성화 및 자비희사를 실천해 포교에 앞장서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목표로 설립됐다. 이 자리에는 삼광사 240여 명의 간부 및 회원과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사단법인 나눔광장은 허공법계 보이지 않는 곳에 큰 절을 지은 바와 같다”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은 시방세계 경계가 없어 도를 넘고, 국가를 넘어 찬탄 받을 일이다.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나눔광장은 상임대표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공동대표 이헌승·나성린 국회의원, 우보현·문창섭·문병기·노기태·조윤섭 대표, 그 외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하성미 기자

정법회거사림 창립50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정법회거사림(회장 남두희)은 11월 23일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2층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초청지도법사 현각 스님과 동화사 재무국장 능혜 스님, 정법회거사림 지도법사 설호 스님 및 기관단체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정법회거사림은 ‘불교포교와 불교단체 활동’ 모범단체로 인정받아 총무원장 표창을, 남두희 회장은 감사패를 받았다.

남두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불교의 정법을 공부하는 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청법사인 현각 스님은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고 또한 나 자신을 찾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불법만이 정법이다. 참



선과 화두선으로 참 나를 찾아 나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화두로, 정법회거사림 사부대중이 불교를 발전시켜 현시대 젊은이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법문했다.

정법회거사림은 재가불자 11명이 발기해 1965년 11월 대구 동화사포교당 보현사에서 창립돼 전국 최초로 신행단체 등록을 받아 조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창건할 것”

부전선원 개원 3주년 기념법회

부산 부전선원(선원장 안국)이 개원 3주년을 맞아 11월 20일 문화대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 법회와 2부 야단법석 토론 ‘부산불교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구성됐다.

토론에서 토론자 및 사부대중은 부산불교의 중흥을 위한 과제로 인재불사와 현대적 포교방식 도입을 꼽았다.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부산불교 발전에 뜻을 모아 ‘불교중흥실천협의회(가칭)’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부전선원 선원장 안국 스님은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내년 3월을 기점으로 현판식을 거행하고 10월에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을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


부산 부전선원(선원장 안국)이 개산 3주년을 맞아 진행한 토론 발표 모습.

로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전선원 개산 3주년 문화대제는 원로의원 정관 스님(영주암 회주)의 법어와 천성예술단의 국악연주, 장애우 지원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수석부회장 자광 스님, 부회장 도원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재가자 동안거 입재

11월 20일 홍법사서

부산 재가불자들이 90일 동안거 수행을 시작했다.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11월 20일 홍법사에서 ‘재가안거수행’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 전 재가자들은 〈금강경〉 독송과 108배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날 회장 수진 스님은 법어에서 “회광반조(廻光返照)의 뜻을 새기고 안거기간 동안 밖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의 빛을 내면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거기간이 끝날 때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이곳에서 입재법회를 하게 돼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동안거에는 해인정사, 홍법사, 발원사, 선암사, 대광명사, 원오사, 영주암, 가야사 등 총 26개 사찰로 2000여 명의 재가자가 참가했다. 또한 부산 포교사단과 국제선센터에서 새롭게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천불정사 찾은 부산대 행정고시 합격자

고시생들 돕는 고담 스님

인재불사 원력에 감사 인사

부산대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11월 25일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을 예방해 감사의 절을 올렸다.

이광수(99학번·통계학과), 황준우(02학번·행정학과), 박환준(05학번·행정학과) 씨는 모두 천불정사에서 마련한 고담정(古潭亭)과 신목정(信木庭)에서 고시공부를 하며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합격한 이들이다.

고담정은 법학 및 행정고시생들을 위해 천불정사에서 2006년~2013년 동안 무상으로 마련한 기숙사다. 신목정은 부산대 행정고시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다. 고담 스님은 인재불사를 위해 매년 신목정에 1000만원씩 지원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광수 씨는 “고담정에서 지내면서 시간도 절약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정보 공유도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며 “또한 힘든 시기 천불정사에 보살님들이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께 인재불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예방한 부산대 행정고시 합격자들과 지도교수.

초대해주셔서 따뜻한 음식으로 응원해주셨던 것도 기억한다.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환준·황준우 씨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 받고 경제적, 심적인 것 모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담 스님은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불교에는 회향의 정신이 있다. 앞으로 봉사할 곳을 찾고 후배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고담 스님은 현재 행정고시생 지원을 비롯해 결손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 지원, 숙식 제공을 하고 있으며, 청송 교도소 교정위원회 고문 및 금정경찰서 경승으로 활동하며 인재불사를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뭐꼬’ 자기 안에 깃든 부처 자리 찾아라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①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복(福)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인연 작복이라 했던가. 삶의 나이테가 늘어날수록 좋은 인연을 짓는 복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불연(佛緣)에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정법빠리사-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공동체’ 도반들과의 만남도 그렇다. 지난 10월 18일 창립법회에 축하 인사차 갔다가 보기 드문 수행의 열기에 끌려서 입회하게 되었고, 108 선지식 구도순례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격월에 한 번씩 국내외 선지식을 찾아 1박 2일 정진, 국내외 출 · 재가 선지식뿐만 아니라 이웃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거장까지 만날 예정이라는 정법 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장장 18년이나 걸리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동안 ‘남의 다리 긁느라 세월 보냈다’ 는 회한이 컸기에 만사 제쳐놓고 동참했다.

특히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을 찾아뵐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석 달 전 불교TV ‘뜰 앞의 잣나무’ MC로 스님과 대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남진제 중대원 북송담’ 이라 하는 까닭을 알았다. 무엇보다 시민선원을 개설해서 출가와 재가가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평등하게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점에 감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수행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연이 닿았으니 이래저래 일체유심조다.

참선, 본래 부처임을 아는 최상승법

11월 17일 첫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법회에 참석한 도반들을 보는 순간 ‘유유상종’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20대에서 60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만큼은 같은 빛깔이었다.

밤 10시, 학림사 오등선원 철야정진 참선법회가 시작되었다. 김장철인지라 다른 때에 비하면 동참인원이 적다고 한다. 15분 포행으로 몸을 풀고 삼귀의례 후 대원 스님이 직접 소참법문을 내렸다.

참선은 화두 참구를 통해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바로 알려면 중생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금강경〉 ‘사구게’ 에 중생계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착 대사가 이르기를, “지혜가 없는 어두움 가운데 저 빛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이 가진 식(識)을 별빛에 비유하고 반딧불에 비유했습니다. 해가 뜨면 별빛도 없어져버리고 반딧불도 등불도 다 없어집니다.

유위법은 전도(顚倒)된 견해입니다. 평소 지혜의 눈으로 보면 바로 보고 바로 알면 집착할 게 없습니다. 이 우주만물이, 하늘도 비치고 구름도 비치듯이 식에 비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눈병 든 사람처럼 허망한 것을 바로 못 보고 거꾸로 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중생견에 가로막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육근 육식의 항복을 받아내고 생사에 자신이 있게 됩니다. 참선하다 말고 아미타불 염불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참선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를 심어야 왕대가 되듯이 참선이라는 상상근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무상(無常)을 바로 보고 화두로 밀어붙여서 지극하게 일념삼매에 들어가면 됩니다. 무상을 느껴야 분심(忿心)이 나오고 치열한 정진력이 나옵니다. 다급하면 일념이 됩니다.

제대로 발심도 안 되고 무상도 못 느낀 상태에서 화두를 들고 있으니 멍한 상태로 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착 대사께서 이르시되, “과거에 행한 것이 생각 속에 다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듯이 상상근기를 심어야 설령 이생에 못하더라도 내생에는 공부를 마칠 수 있고 불국토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성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토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뭐꼬’ 화두를 밀어 붙여서 자기 자신 안에 본래 깃들어 있는 불성을 보기 바랍니다.

나이 · 직업 다른 도반과 철야정진
“부처 알려면 중생상 바로보라”는
스님의 소참법문 감동으로 다가와
우연히 가진 차담, 질문이 쏟아졌고
선지식은 폭포수처럼 답을 내렸다
“출산할 때처럼 공부해야 합니다”
격월로 선지식 찾아 정진 계획



학산 대원 스님은 …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2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으며, 1965년 수선안거 이래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전국 유일의 특별용맹정진 참선도량 학림사 오등선원 창건, 조실로서 전국의 수많은 출가 재가 제자들의 눈을 밝혀 주고 있다.



정법빠리사 회원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회원들과 대원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원들은 학림사 텃밭에서 울력을 진행했다.

푸른 허공처럼 순수한 불성 만나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대중의 참선 수행 열기가 고조되는 듯했다. 나 역시 저절로 허리가 곧추세워졌다. 길다란 장군죽비 소리에 맞춰 대중 모두 빙 둘러 앉아 각기 마음의 소를 찾기 시작했다. 적막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나 고요해서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신기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전날 밤 10시부터 45분 참선, 15분 포행, 새벽 3시까지 5시간 수행했는데, 비록 본 것도 없고 밝아진 것도 없지만 반가부좌로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 마치 명현 현상처럼 내 몸의 문제부위를 느낀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었다.

아침 공양 후 철야정진 수행 대중들과 대원 스님과의 차담이 있었다. 수행의 궁극은 지혜와 자비일진대, 스님의 소참법문을 들으면서 스님이 직접 차를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지혜와 자비를 자유자재로 굴리시는 선지식을 만난 환희심,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차담 시간, 자유롭게 질문해 보라는 스님의 말씀에 몇몇 분이 질문을 했다. 공부에 필요한 질문을 해 준 도반들 덕분에 더욱 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도반들을 그간 수행하면서 느낀 점과 궁금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고, 대원 스님은 막힘없이 답을 했다.

질문: 스님, 방석이 뜨고 머리가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요?

대원 스님: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익힌 중생심을 자연스럽게 쓰고 살아가는데, 공부를 하면 중생심이 문제를 일으켜서 갖가지 경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 별 느낌이 없는데, 빨리 걸어가면 숨이 차고, 달리면 더 숨이 찹니다. 평소에 중생심으로 살다가 일념으로 화두를 챙기면 여러 가지 경계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힘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느낌이 오는데,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중요하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경계가 오면 오는 대로 다 놓고 오직 화두만 끈질기게 일념으로 참구해서 푸른 허공처럼 순수한 불성을 만나야 합니다.

중생심은 질기디 질긴 마음의 습관입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로켓을 발사하는 데 힘이 들지만,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무중력 상태라 공기 저항이 없어 자유롭게 잘 작동합니다. 중력처럼 중생심의 기운이 아무리 크다 해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면 공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아기를 낳을 때처럼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기가 나와야지 엄마가 삽니다. 공부도 사력을 다해 아기를 낳듯 그렇게 힘을 들여야 합니다.

밥을 할 때, 연탄불에 밥 앉혀 놓은 상태에서 반찬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도 밥을 태우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의 힘을 얻어야 환한 불성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스님, 오등선원에 와서 도반들과 할 때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마음먹고 앉아도 자꾸 망상만 들고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대원 스님: 생활의 터전인 집에서 수행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생활양상, 분위기, 기운 자체가 다르잖아요. 좋은 도량과 도반, 도인을 3도라 해서 공부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부터 좌청룡에서 물이 흐르면 인물이 난다고 했어요. 풍수가들마다 오등선원이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처럼 도인이 나오는 명당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굳이 그런 말을 빌지 않더라도 수행을 해 보면 압니다.

함께 한 도반이 진정한 선지식

구도 순례를 마친 도반들은 모두들 환희심에 젖었다. 정은용 대표 도반은 “평소 수행을 하면서도 길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면서 “제방의 선지식 들을 찾아뵙고 그간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첫 회부터 뜻을 이룬 듯해 기쁘다”고 밝혔다.

이남재 정법빠리사 운영책임도반은 “금생에 만나기 힘든 국내외 선지식들 108분을 찾아뵙고 번뇌를 보리로 바꾸는 인연 공덕의 씨앗이 되자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됐다”면서 “첫 구도순례법회를 기획하면서 도반과 함께 일주일 용맹정진을 했는데, 법 앞에 평등함을 몸소 보여주시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음의 소를 찾아야겠다’ 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도반들과 함께 하는 수행이 너무 좋았다는 소감도 있었다. 조명숙 씨는 “도반들과 함께 이 좋은 도량에서 졸더라도 수행한 것 자체가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참석해서 꼭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미경 씨는 “수행을 혼자서 하다 보니 잘 안됐다. 그래서 도반과 수행 도량,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 정법빠리사를 만났다”면서 “살아 있는 동안 선지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배우고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박 2일 수행을 함께한 정법빠리사 도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반들이 나의 진정한 선지식으로 다가왔다. 이 귀하디 귀한 인연을 잘 싹틔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108분의 국내외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우리 안의 불성을 볼 수 있기를, 날마다 새로운 날, 진정한 행복을 창조하는 삶이 되기를 합장 발원해 본다.

정리=사기순 민족사 주간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② 조계종 전국수좌회 의장 의정 스님

일시 : 2016년 1월 16~17일
장소 : 양평 성운사
문의 : 운영책임도반 이남재(010-5217-2878)



불교·茶 평생 의지처로… 초의의 막후 후원자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⑧ 유산 정학연

유산 정학연(酉山 丁學淵, 1783~1859)은 다산의 장남이다. 초명은 학가(學稼), 자는 치기(穉箕)였다가 후에 치수(穉修)로 바뀌었다. 호는 유산(酉山), 백아노초(白雅老樵), 철마산초객(鐵馬山樵客) 등을 사용하였다. 시문에 능해 추사나 홍현주, 홍성모, 이만용 같은 사대부들과 교유하며 두릉시사(杜陵詩社)를 주도했다.

그가 강진 동문매반가(東門賣飯家)로 부친을 찾아간 것은 1802년 겨울 무렵이며, 1805년 겨울에 다시 부친이 계신 강진으로 내려갔다. 당시 고성암 보은산방(寶恩山房)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에게 주역(周易)을 강학하던 부친을 모시고 겨울 한 철을 보낸다. 당시 유산이 강진에 내려왔지만 동문매반가의 단칸방에서는 이들 부자가 함께 머물 수 있었던 형편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런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아암은 이들 부자가 함께 추운 겨울을 편히 보낼 장소를 마련했는데 이곳이 바로 보은산방이다. 따라서 유산은 고성암 보은산방에서 만덕사 승려들뿐 아니라 일부 대흥사 승려들과 넓은 교유를 확대했으며, 이들과 교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차를 가까이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초의는 1809년 운흥사에서 대흥사로 수행처를 옮긴 후에 다산초당을 드나들며 유산이나 황상, 윤종영, 윤종심 등을 만난다. 이들은 평생토록 교유하며 우정을 이어갔다. 특히 초의가 추사를 만난 인연도 유산 때문이었으니 그는 초의와 경화사족들을 이어준 가교이자. 후원자였던 셈이다. 따라서 유산이 초의에게 미친 은덕(恩德)은 그의 부친만큼이나 컸기에 초의의 막후 후견인으로서 미더운 우정을 나누웠던 이들의 만남은 조선 후기 아름다운 유불(儒佛)의 교유로 회자될 만하다.

한편 유산의 일생은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아버지의 정치적인 어려움에 묻혀 자신의 소신을 펼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에게 말년에 겨우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로 임명되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녹녹하지만은 않았다. 사옹원 봉사로서 분원의 개혁의지를 드러냈지만 그의 포부와는 달리 정치, 사회적인 질서가 허물어지던 시기의 현실에서 그가 뜻한 대로 이행하기는 어려웠다. 이미 사옹원을 둘러싼 관리들과 종친의 이권개입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 백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진왜란에 잡혀간 조선피로사기장(朝鮮披露砂器匠)의 후손들과 접촉하는 등, 분원의 개혁을 시도하려했던 그의 뜻은 실현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음서직(蔭敍職)으로 분원의 관리가 된 그였기에 현실적으로 과거를 통해 등용된 관리들의 차별을 감수해야만 했다.

실제 학계에는 그가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에 임명된 것은 1855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1846년 2월에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가 분원의 일에 간여난 시기가 1855년보다 앞당겨 보아야할 듯하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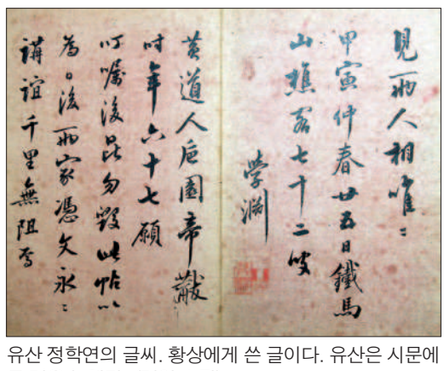
수룡스님이 입적하셨다니 천리에서도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이 노스님께서 일찍이 고성암 보은산방에서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라 (누구보다)그립고 아낌이 출중(出衆)납니다. (더구나)옛 친구가 돌아갔다니 어찌 슬퍼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비는 마쳤겠지요? 모든 일이 끝났겠지요. 봄추위가 품을 파고듭니다. 이런 때에 수행은 청건(淸健)하시며 용상(龍象)도 모두 편안하지요. 철우 노스님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소식을 듣지 않은 지가 아득히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망연히 노심초사하여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늙은 저는 4년 동안 괴이한 병이 들어 머리가 부도(浮圖)의 정수리처럼 되었고 이빨은 마치 썩은 흙 장승 같으며, 눈은 해골 구멍처럼 광채를 다 잃어 일말(一末) 싸늘한 시체와 같습니다. 수룡스님의 좌탈한(坐化)것과 견줄만하여 도리어 한 계책을 따를 뿐이니 스스로 가련해한들 어쩌겠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야 사뿐히 걸어 천천히 멀리 가는 객과 같겠습니까. 어느 날, 내직(內直)께서 상원(上院) 여암(如菴)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 스님들과 편안하게 담소한 것은 이사람 뿐이었습니다. 부고를 전하는 글을 대하니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분원(分院, 광주분원) 자기 창에서 생산되는 묘한 그릇 중에 스님께서 쓰실 정병(淨甁)과 발우(飯鉢)를 찾아 둔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인편이 마땅치 않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어찌 해야 할지요. 마침 감천(紺泉윤종심)이 파수(灞水)를 건너간다고 하니 산란한 마음으로 몇 줄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만. 1846년 2월 28일 유산 병부 화남(袖龍笙寂 千里傷神 此老曾侍先人於山房野寺者 而眷愛出衆矣 舊交零落 寧不悲歎 已茶毗否 萬事已矣 春寒入懷 此辰 法履淸健 龍象皆安 鐵牛老師禪ø∨更如何 漠未聞消息 有時 A然 勞心無以忘矣 老物怪疾四年 頭如浮圖頂 齒如朽ßÞ人 眼如 孔 神彩都亡 一末冷屍 比袖龍坐化 還遜一籌 自憐 奈何 何由快步如徐霞客 一日內直到上院如菴之間 與師輩 拂穩談此生已矣 臨紙潸 然耳 分院瓷廠産妙瓷 覓師輩淨甁飯鉢 置之已久 而無以因風吹送 亦復奈何 適因紺泉渡灞行 悋憚數行書 未知何日達梵展 都留 不究書式 丙午 二月 廿八日 酉山病夫 和南)


강진 백련사 응진전 전경. 이전에는 만덕산에 있다고 해서 만덕사라고 불리었다. 정학연은 아버지가 기거했던 보은산방에서 만덕사, 대흥사 승려들과 깊은 교류를 나눴다.


윤종영의 〈가련유사〉. 정학연의 불심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다.


유산 정학연이 범해 각안에게 쓴 편지. 유불간 교류를 알 수 있다. 일산 원각사에 소장돼 있다.

고성암 보은산방서 스님들과 교류
만덕사·대흥사 대중들과 더욱 각별
정병·발우 마련, 초의와 우의 다져
만덕사 수룡 스님 입적에 절절한 애도


유산 정학연의 글씨. 황상에게 쓴 글이다. 유산은 시문에도 매우 능했다. 〈개인 소장〉

이 편지는 1846년 2월에 보낸 것이다. 그가 "분원(分院, 광주분원) 자기 창에서 생산되는 묘한 그릇 중에 스님께서 쓰실 정병(淨甁)과 발우(飯鉢)를 찾아 둔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실제 그가 분원에 간여한 시기는 학계에 알려진 1855년경 보다 앞선 시기인 1846년경부터 간여했다는 것을 밝힐 자료가 발굴된 셈이다. 따라서 그가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로 분원의 일에 간여한 시기는 1846년경 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의 편지에서 언급한 수룡색성(袖龍嘖性, 1777~1848)은 만덕사 아암의 고족(高足)으로, 차를 잘 만들었으며 시와 글씨에도 능했던 승려였다. 수룡이 다산의 전등계제자 중에서도 으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그만큼 다산과의 인연이 돈독했음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수룡의 입적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유산의 사옹원 봉사의 임명 시기와 수룡의 입적 시기가 1846년이었음을 함께 밝힌 자료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수룡은 유산이 강진을 내왕하던 시기에 만나 오랫동안 교유했던 승려로, 유산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내직(內直)은 다산이 예문관 검열과 사간원 정언(正言), 사헌부 지평(持平)에 제수되었던 적이 있었기에 이리 부른 듯하다. 상원(上院)내암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승려들과 담소했다는 사실에서 다산이 머물던 고성암이나 만덕사가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무엇보다 친밀하게 소통했던 수룡의 열반은 유산에게 있어 "천리에서도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이 노스님께서 일찍이 고성암 보은산방에서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라 (누구보다)그립고 아낌이 출중(出衆)납니다. (더구나)옛 친구가 돌아갔다니 어찌 슬퍼 탄식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던 것이다.

수룡의 열반 소식은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으리라.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초의를 향한 그의 속내는 "분원(分院 광주분원) 자기 창에서 생산되는 묘한 그릇 중에 스님께서 쓰실 정병(淨甁)과 발우(飯鉢)를 찾아 둔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인편이 마땅치 않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어찌 해야 할지요(分院瓷廠産妙瓷 覓師輩淨甁飯鉢 置之已久 而無以因風吹送 亦復奈何)"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자신이 관여하는 분원에서 생산되는 자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초의에게 보내고자한 그의 마음은 이처럼 친밀하고 따뜻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마침 초의와도 내왕이 있는 윤종심이 해남으로 떠난다기에 이 편지를 쓴다는 사연도 함께 밝혀 두었다. 바로 감천(紺泉)은 윤종심으로 다산의 다신계제자이다. 다산이 해배된 후에도 해남의 다신계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대흥사 승려들과 교유하며 시회(詩會)를 여는 등, 스승의 유풍(遺風)을 잊지 않았는데 이는 윤종심이 쓴 〈가련유사(迦蓮幽詞)〉에서 확인된다.

유산이 시문에 밝았던 선비였음은 이미 두릉시사(杜陵詩社)를 이끌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거니와 선종의 수행법인 참선(參禪)에도 이해가 깊었다. 이러한 사실은 1831년경에 지은 그의 시를 통해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그랑 울리는 대지팡이 소리,
오히려 멀리서도 들리는데(玆竹錫遠猶聞)
슬피 바라보니 참으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학과 같구나(望眞同放鶴群)
느릅나무 서 있는 서당에는 오직 담담한 달빛뿐
(鍮葉西塘惟澹月)
귤 꽃 피는 남쪽 산마루에 외로운 구름이라
(橘花南嶺自孤雲)
참선을 파하면 도연명의 꿈을 품을 수 있겠지만
(罷禪可有懷陶夢)
잔병에 지쳐 글 지어 보낼 수도 없네
(淹病仍無送暢文)
연사에서 동맹을 맺음이 부질없는 일이라
(蓮社結盟渾 事)
서리 내린 귀밑머리가 이미 삼분의 일이라네
(鬢邊霜雪已三分)

초의의 시에 화답할 당시 그의 나이는 불혹(不惑:40살)을 지나 오십에 가까웠다. 귀밑머리는 이미 삼분의 일이나 서리가 내린 듯 백발이 되었다고 하였다. 분명 "쟁그랑 울리는 대지팡이 소리"는 초의를 말하는 것이며 그의 수행자다운 품색은 "무리지어 날아가는 학과 같"다고 했다. 이는 학은 깨끗한 기상을 가진 초의를 빗댄 말이다. 이미 학처럼 맑디맑은 초의와의 이별도 그저 "슬피 바라"볼 뿐이었던 그였다. 남쪽 산마루는 초의가 있는 곳, 산마루에 걸린 자유로운 구름처럼 초의는 걸림이 없는 운수납자였다.

유산 자신도 속세에는 살고 있지만 참선하고 나면 유유자적하던 도연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린 그로서는 글 쓸 힘조차 없었다. 그의 우환은 이미 앞서 소개한 편지에도 "늙은 저는 4년 동안 괴이한 병이 들어 머리가 부도(浮圖)의 정수리처럼 되었고 이빨은 마치 썩은 흙 장승같으며, 눈은 해골 구멍처럼 광채를 다 잃어 일말(一末) 싸늘한 시체와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의 같은 승려들과의 굳은 결의도 부질없는 일이라 하였으니 그는 무상함과 공(空)도리를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욕이 교차된 그의 삶에서 승려들과의 교유를 통해 불교를 이해했던 일이나 차의 진미를 알았던 것은 실로 간난했던 그의 일상의 의지처였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찍이 부친의 가르침으로 농사법이나 의술 등, 실용적인 학문에 눈떴던 그는 〈종축회통(種畜會通)〉, 〈유산총서(酉山叢書)〉를 남겼다. 그가 지은 시는 〈삼창관집(三倉館集)〉에서 그 규모를 살펴 볼 수 있고, 두륜산(해남 소재 대흥사)을 유람한 후 쓴 '유두륜산기(遊頭輪山記)'를 남겼다. 이 밖에도 그의 편지를 묶은 〈유산척독(酉山尺牘)〉과 〈십병함해(十病函海)〉가 전해진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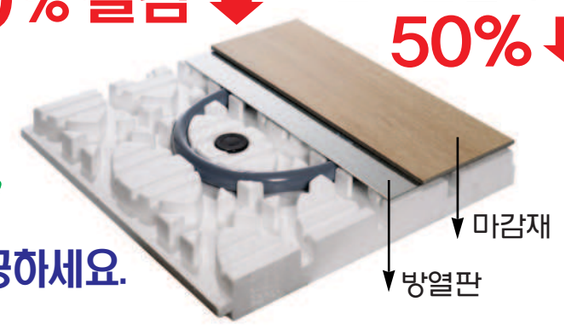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절대 악과 선은 없으니, 중도 가르침 실천해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㉗ 한국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 제시



그림 · 최주현

서유기만의 매력적 새 시각
사회 관계 다시 생각하는 계기
증오와 악의를 자비로 회복해야

전 시간에 이야기한, 요괴가 보살 문중으로 이적해버리는 이야기……. 조금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서유기를 소재로 한 게임과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며, 실제로 조그만 시도를 해 보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지 않습니까요? 아이들이 즐겨 하는 컴퓨터 게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게임을 즐기기도 하구요. 그러다 보니 게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들들 게임 중독을 걱정하고,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쫓아다니며 컴퓨터 게임 못 하게 한들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보다 훌륭한 게임을 만들어 줌으로써 게임에서 오는 나쁜 영향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런 훌륭한 게임을 통해 좋은 성향과 심성을 형성해 낼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며 주변을 돌아보다 보니 서유기처럼 좋은 게임의 소재가 없더군요. 우선 재미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화두(話頭)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 재미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재미없으면 그걸로 끝! 재미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 점에서 서유기야말로 우선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웬만한 사람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영만 화백이 그린 '날아라! 슈퍼보드' 라는 만화 때문에, 한때 말귀 어두운 사오정이라는 유머가 유행하기도 했구요. 또 일본에서는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을 캐릭터로 하여 '드래곤볼' 이라는 만화가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서유기는 친숙하고도 재미있는 소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유기가 단지 재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서유기에 담긴 의미를 풀어나갈 정도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중간 중간에 나오는 요괴나 마왕들이 많은 경우에 수행과 인격완성의 길 가운데 만나는 장애를 상징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의 행태에 대한 신랄한 풍자인 경우도 많죠. 그렇게 의미를 듬뿍 담은 서유기를, 또 서유기가 가진 재미 속에 살려내면서 게임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시도를 해봤지요. 이리 저리 수소문하여 게임 제작을 하는 분을 만나 이런 취지를 설명했더니 매우 큰 관심을 보이기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서유기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고, 직접 서유기를 읽어보기를 권했지요. 그랬더니 서유기를 읽고 나서 이 게임제작자가 하시는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했어요.

"선생님! 서유기를 소재로 한다면 기존의 게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을 만들어야 하고,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괴가 보살 문중으로 이적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기존의 게임들은 거의 한결같이 어떤 존재를 절대적인 악(惡)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말살시키는 것을 그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유기에는 그 절대적인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요괴가 보살 문중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네요. 그때 삼쾌선생, 본디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이지만 서유기가 가진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본래적으로 선과 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선으로도 악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서유기가 가진 기본적인 사유방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유방식이야말로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도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본디부터 나쁜 존재로 생각해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대상을 증오하고 말살하려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꽤 오래 지난 이야기지만,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지요? 그리고 그 존재를 말살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했구요. 과연 그럴까요? 그 나라가 악의 축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어느 쪽이 좀 더 정의로운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따질 수야 있겠지만, 과연 그 존재가 절대적인 악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와 입장이 다르거나,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치는 존재를 본디부터 악한 존재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말살하고,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져 왔던가요? 인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잔혹한 일들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종교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잘못 해석된 기독교에도 그 탓이 있다고 보는데요. 기독교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악의 상징! 그러한 사탄과 같은 존재가 본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가 현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존재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나요? 그저 죽이고 말살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지요. 그러한 존재는 아마도 상징일 것 같은데, 그러한 존재를 현실에서 인정하는 순간 피 흘리는 역사, 피 흘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성, 즉 자기와 다른 입장에 있는 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강하고, 또 전혀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의 적대감이 가장 강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네요. 그게 무슨 탓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슬픈 역사, 남북분단이 빚은 심성이지요.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집단이었던가요? 절대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존재, 말살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저 젊던 시절에는 휴전선 근방에 가면 "미친 개 김일성을 몽둥이로 때려잡자!" 는 구호가 시뻘건 페인트로 쓰여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지요. 그렇게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눈앞에 두고, 그러한 존재에 대한 적대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던 역대의 정권들…….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들은 적대적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적대감, 그 존재를 말살해야 한다는 강열한 의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외국 이민을 갈 경우라던가 할 때, 심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자신과 다른 입장,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강렬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람 전체가 일종의 정신병적 증후를 앓고 있다고 봐도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타협과 화해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걸핏하면 색깔 논쟁으로 나가고, 자기와 다른 입장을 '좌빨' , '보꼴' 로 몰아가면서 적대감을 표출하는 거 아닐까요? 자신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그냥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악으로 여기고,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몰아가면서, 말살을 외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각이 바로 서유기에도 있고, 주역과 같은 동양의 고전 속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관계론적 사고방식' 이라고 부르지요. 어떤 존재 자체에 선과 악이 본래적으로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드러날 뿐이라는 식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적대적인 상대편은 지금 어떤 관계망 속에서 '악' 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망이 바뀌면 어떤 존재의 선악도 그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대편을 공격하지만, 그것은 그 존재가 절대적인 악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같은 항아리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상대편과의 다툼도 크게는 우리 전체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사고도 나올 수 있지요. 주역(周易)이라는 고전 속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같이 하면서도 다르게 한다" 또는 "다르면서도 같음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큰 지향을 같이 하면서도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다름 속에서도 같음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큰 사고에 바탕하면 우리는 다투면서도 상대편을 말살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큰 같음을 향해 나간다는 건강한 행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구요. 그리면 우리의 삶과 역사도 건강하고도 밝은 과정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증오와 악의는 줄어들고, 피 흘리면서 부러지는 역사는 지양되고…….

흠, 나칠계님. 진부한 이야기라구요? 좀 길다구요? 그래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게임 제작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느냐구요? 그런 게임 나왔다는 소식 못 들었으니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구요? 에고, 나칠계님은 남의 아픈 곳을 그렇게 푹푹 찌르십니까? 맞습니다. 실패했지요. 아니 실패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도도 제대로 못한 단계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역시 자금! 가장 중요한 자금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생각에 단순히 게임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영화감독들까지 몇 분 만났었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 생각에 머리를 끄덕여주는 그런 분들은 왜 한결같이 그 '돈' 이 없는 것입니까? 결국 '돈' 도 별로 없는 삼쾌선생 주머니에서 몇 번의 회식비만 지출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지요. 생각하니 다시 슬퍼지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 아이디어는 살아 있습니다. 누가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기만 하면! 반지의 제왕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영화 소재가 몇 개는 서유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면서도, 거기다 재미까지 있는 게임을 충분히 제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물 창고가 바로 서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서유기 게임제작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라고 독점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혹 자본 튼튼한데 좋은 데 쓸 곳을 찾고 있는 분 있으면 이 아이디어 좀 전파해 주세요. 이 '손오공이 기가 막혀' 연재와 더불어 그런 움직임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기대 속에 다음 주로 갑니다.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영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쾌락을 추구할수록 무지해진다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8〉

동물은 개념적 자아가 없으므로, 감관결핍 해소에 따른 쾌락강도가 줄거나 사라진다고 해도 개념적 자아의 훼손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쾌락경험을 개념적 자아감 수립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쾌락강도의 감소와 소멸을 '1인칭 개념자아의 불안과 훼손' 으로 경험한다.

생물적 본능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강도를 더 높이려는 욕망, 줄어드는 쾌락강도를 재강화하려는 욕망, 사라지는 쾌락을 복원시켜 지속시키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쾌락의 강도와 지속 여부를 자아감의 강도와 안정의 문제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쾌락강도가 떨어지면 자아감이 떨어지고, 쾌락감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아감이 위협받으며, 쾌락감이 소멸하면 자아감의 훼손을 경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감관의 대상인 맛 · 소리 · 모습 · 감촉 · 냄새 · 지식 등의 내용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 쾌락강도를 더 올리거나, 떨어져가는 쾌락강도를 유지하거나, 사라져가는 쾌락을 복구하려 한다. 자아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에게 자아감의 안정적 확보문제는 삶을 관통하는 과제이기에, 감관쾌락의 보존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아감에 대한 기대는 곧 '불변 자아감' 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인간에게는 '불변 자아감을 확보하기 위해 감관쾌락의 보존에 매달리는 욕망' 이 발생하여 뿌리내린다. 이것이 탐욕이다. 이 탐욕을 '쾌락탐욕' 이라 불러 본다면, 쾌락탐욕은 감관쾌락의 속성상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감관결핍을 채워서 얻게 되는 감관쾌락의 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쾌락감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관쾌락의 이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크게 두 유형이다. 한 유형은, 쾌락강도의 복구나 쾌락의 지속을 위한 노력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쾌락강도의 감소와 쾌락감의 자연적 소멸을 적절히 수용하는 경우로서, 이런 유형의 쾌락감 지속욕망은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 '약한 쾌락탐욕' 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변자아라는 환각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는 '풀려나야 할 욕망' 이다.

또 하나의 유형은, 쾌락강도의 감소와 쾌락감의 소멸을 수용하지 못하여, 어떻게 해서든 쾌락강도를 복구하고 쾌락감을 지속시키려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쾌락감 지속욕망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강한 쾌락탐욕' 이다. 강한 쾌락탐욕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쾌락강도를 복구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 그리고 사라져가는 쾌락감을 붙들어 지속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허영이나 변태적 욕구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감관쾌락을 맴돌며 달리는데, 그 결과는 삶과 사회적 관계의 심각한 오염과 훼손으로 나타난다.

강한 쾌락탐욕은 '이기적 자기중심성' '무한 증폭' '노예적 의존성' '무지 고착' 의 속성을 지닌다. 어떻게 해서든 쾌락강도를 확보하고 쾌락감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태도를 취한다. 쾌락의 쇠잔을 수용하지 않아,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쾌락' 을 보존하려 든다(이기적 자기중심성).

또한 이러한 쾌락보존 행위는 계속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익숙해진 쾌락은 강도가 떨어지므로, '더 새로운 것' '더 강렬한 것' 을 향한다(무한 증폭). 이렇듯 관심이 감관쾌락의 강화와 보존에 몰두되다보니, 감관쾌락과 자아감이 밀착되고 자아의 행위가 감관쾌락에 종속되어 노예적 의존도가 심화된다(노예적 의존성). 그리고 쾌락경험에서 불변의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버리는 무지가 고착된다(무지의 고착).



인간은 탐욕과 소유욕을 쾌락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쾌락의 강도가 줄고 소멸되는 것이 자기 자아의 훼손이라고 오인하게 된다.

인간은 쾌락 강도의 감소 · 소멸을 '자아의 불안과 훼손' 으로 착각해

불변자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두 번째 방식은 '소유를 통한 자아확인' 이고, 이 과정에서도 탐욕이 발생한다. 니까야/아함의 무아설법에서 항상 등장하는 '나' '나의 것' 의 동시배열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의 정신과 신체 그 어디에서도 불변의 자아를 확인할 수 없는 인간은, 그 환각자아의 빈자리를 소유물로써 채우려 한다. '남의 것' 이 아닌 '나만의 것' 이라 생각하는 상품/지식/재산/사람 등의 확보를 통해 자아감을 견실하게 방어하려고 한다. 이 자아확인 방식은 '내가 소유한 것' 과 '자아' 를 동일시하려는 것이기에, 소유물이 많을수록 견실한 자아감을 성취할 것이라 기대한다.

자아감은 능동적 경험이다.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능동 자리' 에서의 경험이 자아감의 핵심이다. '능동 자리' 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아감은, 주인자리를 뺏긴 사람의 박탈감과도 같은 소외된 경험이다. 그것은 '주인의 자유에 의거한 능동적 존재감' 을 상실한 '소외된 자아감' 이고 '사이비 자아감' 이다. 마치 재산권을 상실한 사람이 여전히 집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과 같은, 공허하고 무력한 자아감이다. '소유하는 능동주체' 가 '소유되는 피동객체' 에서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주인자리를 놓친 자아감은 불안과 공허, 예속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소유물에 의해 능동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일은 근본적으로 헛발질일 뿐 아니라, 소유물 자체도 '변치 않는 나의 것' 일 수가 없다. 모든 '나의 것' 은 끊임없이 '나의 것 아닌 것' 으로 미끄러져 간다. 변치 않는 자아에 대한 기대를 '변치 않는 나의 것들' 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나의 것' 이라고 간주하는 소유물 자체가 '불변의 것' 일 수 없기에, 환각의 공허를 또 다른 환각으로 채우는 실패로 끝난다.

소유를 통해 불변자아를 확인하려는 욕망이 탐욕이다. 이 탐욕을 '소유탐욕' 이라 부른다면, 소유탐욕에도 크게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소유를 통해 자아감을 경험하려고 하면서도 소유자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자제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소유욕은 '약한 소유탐욕' 으로서 소위 '건전한 세속적 욕망' 이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소유를 통해 견실하고 안정된 자아감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 좌절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아에 대한 환상에 집착하여 집요하게 소유물 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소유욕은 '강한 소유탐욕' 으로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악을 초래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찰 달력 유감

사찰마다 달력이 있다. 양력과 음력이 큼직하게 박혀있어, 노인들이 좋아하는 세월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날짜 밑에는 육십갑자가 십이지간의 동물그림과 함께 적혀 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달력의 마지막장 12월 달력의 뒷장에는 거시기한 내용의 문자가 촘촘히 박혀 있음을 보게 된다. 1살에서 120세까지 십이지간의 동물그림으로 띠 문화를 홍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거기다가 삼재풀이라 하여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가 해당된다는 동물 이름과 함께 부끄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삼재를 살펴보면, 물의 재앙, 불의 재앙, 바람의 재앙을 의미한다. 들삼재는 삼재가 드는 3년을, 눌삼재는 삼재가 눌려있는 3년을, 그리고 날삼재는 삼재가 나가는 3년을 뜻함이다.

달력의 뒷장에는 또한 상충살, 원진살도 상대되는 띠와 함께 적혀있다. 상충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아 서로를 해치게 하거나 만나도 헤어져야 하는 모진 인연을 의미한다. 원진살이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살이 끼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살' 은 '죽일살(殺)' 을 의미한다.

자, 이쯤에서 사찰달력의 뒷장에 대한 어설픈 설명은 그만하고 유감표명을 해야겠다. 십이지간의 띠 문화는 물론 상충살, 원진살 따위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님을 먼저 박혀둔다.

한국어 사전에도 삼재풀이를 찾아보면, 삼재가 드는 해에 재액을 미리 막기 위하여 무당이 드리는 치성으로 설명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중국문화이자 중국의 민속신앙이 한국으로 흘러와 사찰 달력에도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버젓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조시대의 배불숭유정책에 의해 사찰은 여러 가지 의미로 졸아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속신앙과 교류하게 되고 민중과의 연결의 끈을 찾아 타협해 왔을 터이다.

칠성신앙과 산신, 용왕 탱화가 사찰 건물에 들어서게 되고 삼재풀이까지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 목탁을 울리는 종교의식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도 지식의 평준화도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논리의 전제를 필요로 한다. 무당도 불상을 모시고 있지만 불당이라고 부를 뿐 법당이라고는 칭하지 않는다.

삼재풀이는 무당 박수의 몫일뿐 깨달음의 종교, 마음의 종교, 오늘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몸짓들이다. 사찰에서 울리는 목탁소리에도 아름다운 힐링 문화가 담겨 있지만, 법당에서는 진리의 설법 문화가 그 둘레를 넓혀가야 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벽과 틈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상충살, 원진살 따위도 마땅히 사라져야할 어두운 그림자들이다. 마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삼재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사찰과 스님들까지 곁들여 떠올린다면 불교의 앞날은 어둠 쪽으로 기울게 분명하다.

하여, 사찰이 샤머니즘(shamanism)과 토테미즘(totemism)의 생활공간인양 오해하고 승려와 무당이 한통속으로 지레 짐작한다면 이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구원을 약속해 주는 메시아(messiah)도 키우지 않는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神本主義)적 타력신앙(他力信仰)도 멀리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는 사람중심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오늘의 종교가 불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형이상학으로 치닫거나, 운명론으로 기울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찰 달력에는 버젓하게 삼재풀이와 상충살, 원진살이 박혀있는 것이다. 중생의 눈높이로 변명을 일삼을 일도 아니요, 방편이라는 미명(美名)을 앞세울 일도 아니다. 마땅히 사찰달력에서는 사라져야 할 삼재풀이, 상충살, 원진살임을 거듭거듭 박혀둔다.

달력 삼재풀이, 불교 가르침 아냐 법당에 진리의 설법 문화 채워져야

불교의 대표적 가르침인 중도(中道)에는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다. 발길 닿는 곳이 세상의중심이요, 이르는 곳이 정토(淨土)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 법칙에서는 우연이나 돌연변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열려있다. 사찰도 열려있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도 열려있어야 한다. 관습의 벽을 털어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되돌아와 떳떳하고 당당하고 여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야한다.

우선은 조계종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사찰달력에서라도 이제는 삼재풀이, 상충살, 원진살이 영원히 떠날 수 있길 바랄뿐이다.

하여, 너와나 우리 모두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불제자(佛弟子)임을 밝힐 수 있게.

불교특별강좌

(사)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불교도의 지적교양 증진과 일반인의 폭넓은 불교이해 진작을 위해 불교특별강좌를 실시합니다.

인도철학과 불교
- 기 간 : 2016년 1월 4일(월) ~ 2월 29일(월) [매주 월요일, 8주간]
- 시 간 :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연구원
- 강 사 : 이태승 (본원 원장.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일본불교의 구조적 이해
- 기 간 : 2016년 1월 7일(목) ~ 2월 25일(목) [매주 목요일, 8주간]
- 시 간 :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연구원 강의실
- 강 사 : 원영상 (본원 연구위원. 일본 불교대학 박사)
- 수강료 : 각 강좌 당 100,000원 (교재비 포함)
- 수강접수 : 2015년 12월 10일부터
- 접수처 및 문의 : 한국불교연구원 사무국 TEL 02)762-5624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 현대뜨레비앙 148
TEL : 02)762-5624 FAX : 02)762-5627 우편번호 13133

松根油 송근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솔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찌들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솔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솔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 _ 이민희

☎ 010-8558-234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 56 156761 (조명숙)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부림사
- 법 명 : 백연(김병순)
- 주 소 : 서울 강동구 길 1동 351-3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5일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1천 년 미라불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

中 양춘 마을 주민들, 네덜란드 소유주에 '원소유권' 제기

지난 2월 불상 속에서 승려 미라가 발견돼 화제를 모았던 일명 '천년 미라불상'을 둘러싸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중국 푸젠(福建)성 양춘(陽春)의 마을 주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 인터넷언론 'Daily Mail'은 11월 20일 "양춘 주민들은 천년 미라불상을 돌려받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수개월 간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그들은 불상이 20년 전 도난당한 유물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적 분쟁은 승려미라가 발견될 당시 네덜란드 소유자는 당초 중국에 불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돌연 2천만 달러(한화 약 233억)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Daily Mail'은 "불상 반환을 협상하기 위해 양측은 개인적 협의 과정을 수차례 거쳤으나 변화가 없었다"면서 "중국과 네덜란드 간 정치적 문제로 불거질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춘 주민들은 '천년 미라불상'이 1995년 12월 마을 사찰에서 사라진 '장공조사(章公祖師)상'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공(章公) 스님은 송나라 때 양춘에서 앉은 채로 입적한 승려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스님을 기리며 시신 위에 얇은 진흙과 여러 겹의 에나멜 칠, 마지막으로 금칠을 더해 불상을 만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불상이 도난 된 1995년 12월 이후에는 도난 되지 않은 장신구와 함께 모사품을 제작해 절에 안치했다.

이에 따라 양춘 주민들은 반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SNS상에서도 반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Mark Rutte)에게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

2월 헝가리 박물관 전시 준비 중
'1천 년 승려 미라' 발견돼 화제
도난 된 '장공조사상' 의혹 제기
반환 미루며 법적 분쟁 불거져

그러나 네덜란드 소유자는 1996년 적법한 절차로 '천년 미라불상'을 구매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천년 미라불상'이 '장공조사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내가 불상을 처음 본 것은 양춘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95년 중순경이며, 전 소유주는 1994년 홍콩에서 이 불상을 구매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그는 "이 불상이 양춘 주민들이 도난당했다 주장하는 '장공조사상'이란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기꺼이 돌려줄 것"이라 말해 반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 푸젠(福建)성 양춘(陽春)의 마을 주민들이 지난 2월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천년 미라불상'을 두고 소유권 분쟁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1995년 12월 양춘 마을서 도난 당안 '장공조사상(사진 오른쪽)'이라는 주장이다. 사진출처=Daily Mail

이에 대해 양춘 마을 측 변호인 류왕(Liu Wang)은 "소송에 대비한 증거 수집을 모두 마쳤다. 올해 연말 재판을 통해 반드시 천년 미라불상을 되찾아올 것"이라며 "불상반환을 위한 유효기간이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ily Mail'에 따르면 류왕은 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류왕은 "도난당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낙관적"이라며 "12월 경 소송을 위해 네덜란드로 가서 현 소유자를 직접 만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천년 미라불상'은 지난 2월 헝가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던 중 "안에 무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네덜란드 메안더의료센터는 CT촬영을 통해 불상 내부의 미라를 발견했다. 중국 미술 전문가들은 불상이 960~1279년 송나라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 불상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7분 명상'으로 '인종 편견' 극복 가능

英서식스대학 연구팀 '사랑의 친절명상' 임상실험 실시

백인 · 흑인 각 71명 대상 관찰
무조건적 사랑과 관심 '전제'
뇌신경 반응서 긍정 감정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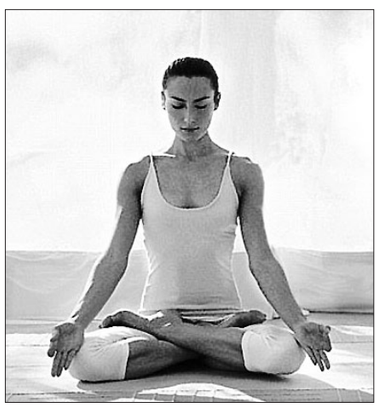
단 7분 명상으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낮출 수 있다는 명상 기법이 소개돼 화제다.

'텍타임즈(Tech Times)'는 11월 19일 "'사랑의 친절명상(Loving-Kindness Meditation, 이하 LKM)'을 개발한 영국 서식스(Sussex)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재학생 대상 임상실험 결과,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라는 감정을 낮출 수 있단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서식스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LKM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전제다. 또 이 과정서 내면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LKM이 개인의 사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임상실험 의도를 밝힌 알렉산더 스텔(Alexander Stell) 박사는 "명상이 좋은 감정을 갖게 한단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법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에 각기 다른 효과를 보인다"며 "LKM은 인종적 편견과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텍타임즈'에 따르면, 서식스대학 연구팀은 각각 71명으로 구성된 백인 집단과 흑인 집단을 대상으로 나눴다. 첫 번째로 백인에게는 흑인의 인물 사진을, 흑인에게는 백인의 인물 사진을 나눠주고 뇌신경 반응을 관찰했다.


영국 서식스대학 연구팀이 '사랑의 친절명상(LKM)'을 개발하고, 7분 명상이 인종 편견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상실험 대상자들이 7분 동안 '당신은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문구를 떠올리며 사진 속 인물을 보도록 했다. 이후 두 집단의 뇌신경 반응을 다시 관찰하고 첫 번째 결과와 비교했다.

알렉산더 스텔 박사는 "이번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친절함이란 자신의 의심과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랑과 친절'이란 긍정적 감정을 적극 심어줄 수 있는 LKM과 같은 명상 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텍타임즈'는 "미국의 경우 2008~2012년 백인과 흑인 간 인종 편견을 조사한 결과 48%에서 51%로 증가했다"고 주목하고, "미국 사회에 팽배한 인종 편견을 낮추는 방편으로 LKM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식스대학 연구팀의 임상실험 관련 보고서는 신경의학계 저널인 'Motivation and Emotion' 71호에 게재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리랑카, 사상 첫 '불교위원회' 신설

행정부 산하기구로 조직… 관련법 개정도 추진

인종과 종교 탄압으로 세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스리랑카 정부가 2016년 행정부 산하기구로 '불교위원회(Buddhist Council)'을 조직한다고 밝혔다.

'News.LK'는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의 말을 인용, "스리랑카 정부가 '붓다 교육(Buddha Sasana)'을 천명하며 내년까지 행정부 산하 기구로 '불교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 현정 사상 처음 구성되는 '불교위원회'는 스리랑카 불교계의 니야카 세로(Nayaka thero) 승단의 조언을 받는다. 조직에 앞서 비하라(Vihara), 데와라감(Dewalagam) 등 관련법 개정도 진행된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발전하는 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자원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교위원회는 국가와 불교의 조화를 구축하고, 나아가 불교 발전의 첩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BC' 방송은 "스리랑카 불교위원회가 자칫 인종과 종교 탄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도의 힘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사진 왼쪽) 스리랑카 대통령은 11월 21일 하루말고다 케싸라마(Harumalgoda Keththarama) 사원에서 열린 '고승 축언 법회'에 참석했다.

스리랑카는 인구의 70%가 불교도(샹할리족)이다. 그 다음으로 힌두교도 13%, 이슬람교도 10%, 기독교도 7% 등이 뒤를 잇고 있지만, 불교도가 주류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도는 막강한 파워를 가졌음에도 소수민족인 힌두교도과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등에 대한 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다.

박아름 기자

英 노팅엄에서 '태국 축원법회' 열려

태국 스님 5명, 타이 레스토랑서 태국 전통의식 선뵈

국교회의 나라, 영국 노팅엄에서 일군의 태국 스님들이 타이 레스토랑 개업식에서 축원 법회를 봉행해 시민들 이목을 사로잡았다.

'노팅엄포스트'는 11월 25일 "5명의 태국 스님들이 노팅엄의 랜드마크 '인투빅토리아(intu Victoria) 센터'에 오픈하는 타이 레스토랑 '타이쿤(Thaikhun)'에서 축원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전통적인 불교의식으로 진행된 법회서 태국 스님들은 레스토랑 곳곳에 성수를 뿌리며 진언을 염송하고, 대중설법 등 의식을 진행했다. 노란빛 태국 전통 가사를 두른 태국 스님들은 애버딘(Aberdeen)의 부다람(Buddharam) 사원과 에든버러(Edinburgh)의 담마프라팁(Dhammapratip) 사원 2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불교는 태국 문화의 정수"라고 설명한 '타이쿤'의 스파이핀 리(Saipin Lee) 지배인은 "태국에서 '5'라는 숫자는 새로운 것을 축하할 때 선택하는 번호"라며 "태국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태국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불교에도 관심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불교의식이 처음이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니겔 휘틀리(Nigel Wheatley) 인투빅토리아 매니저는 "인투빅토리아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다녀가는 랜드마크"라며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5명의 태국 스님들이 11월 25일 영국 노팅엄의 첫 타이 레스토랑 '타이쿤(Thaikhun)'에서 축원 의식을 봉행했다.

'노팅엄포스트'에 따르면, '타이쿤'은 태국 이민자 K. 케크락홋(K. Kaewkraikhot) 대표가 '태국 길거리 음식을 영국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다'는 모토로 설립됐다. 그래서 레스토랑 이름도 타이쿤, 즉 '당신의 태국'이다.

케크락홋 대표는 "태국 전통 음식을 제공하고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노팅엄의 사람들과 태국의 '거리 음식 장면'의 진짜 맛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도시 공간에서 정통 태국 레스토랑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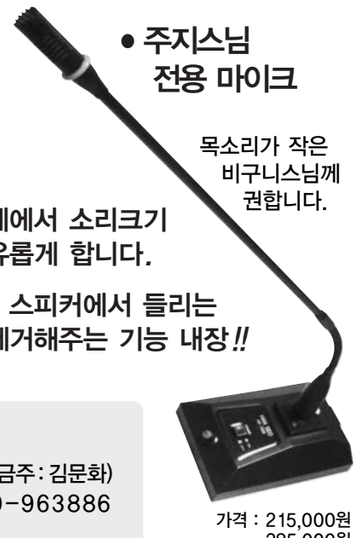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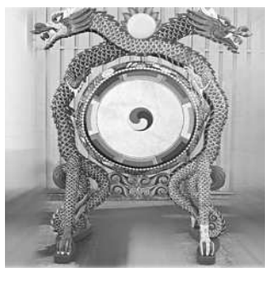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 m.btn.co.kr

2015년 11월 2일 부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가을대개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변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공익을 실천하겠습니다.



월 오전11:20 수 밤11:00/ 목 오후3:50/ 일 오후6:50



수 오전11:20 목 밤11:00/ 토 오전8:30



화 오전11:20 토 오후1:50/ 일 밤9:50



화 오후7:30 수,토 오후1:20/금 오전6:20/일 오전8:50



화 오후2:50 목 밤8:00/ 일 오전11:20



수 오후1:50 금 밤22:00/ 일 오전4:00

BTN 은 모든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71번 olleh HD 233번 Btv HD 555번 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聖鐘社 SUNG JONG SA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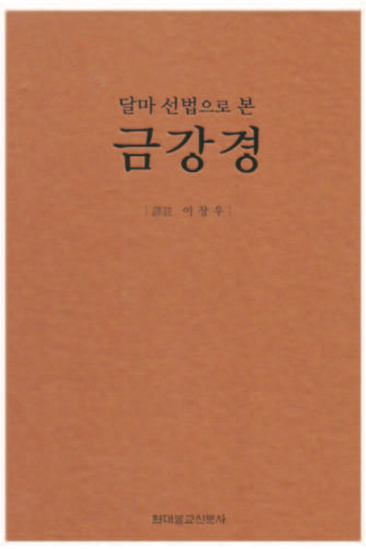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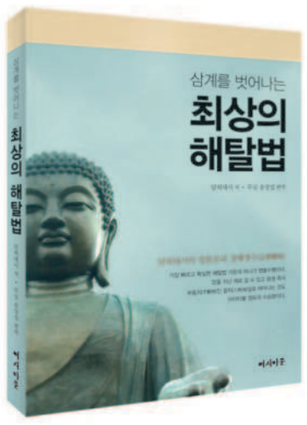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돈법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담허대사의 염불론과 정혜쌍수(定慧雙修)



담허대사 저 · 송상섭 편역 | 신국판 | 부분칼라 | 232쪽 | 12,000원 | 여시아문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출판 및 구입 문의 : (02)2632-8739

중국의 고승 담허(倓虛,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은 법문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왕생극락하여 해탈하게 되어있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



아미타불 48대원
- 무량수경 · 아미타경과 정법개술

연관스님 · 보정거사 번역 |
46배판 | 부분칼라 | 250쪽 |
10,000원 | 비움과소통

곧바로 불퇴전지에 올라 성불하는 묘법!

이 책은 『무량수경』 상권의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을 서술한 한문과 번역문 및 해설, 보정 서길수 박사가 산스크리트어로 옮긴 『아미타경』 한문 원문과 번역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법을 개술한 대만 방륜거사의 『정법개술(淨法概述)』 번역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법개술』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스님이 번역한 염불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이다.

염불이 살아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비움과소통은 정토불서 발행을 통해
아미타부처님의 대원大願을 일깨우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비움과소통은 여시아문의 자매 브랜드입니다.
불교쇼핑몰 비움과소통 몰(www.bns-mall.co.kr)
불서전문 책방 비움과소통(02-2632-8739)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00 | 팩스 02-737-0698

삼성문화재단 50주년 기념
Leeum ‘한국건축예찬’ 전

전통 사찰 건축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구본창 작가의 ‘통도사’. 작가는 통도사의 사계를 담기 위해 매달 같은 곳에 올랐다. 삼성미술관 리움 제공

국내 대표 사진작가 6명이 2년간 촬영

해인사 · 통도사 · 선암사 비경 소개

천년고찰의 화려함 · 장엄함 담아내

사찰 입체지형도와 부조 모형도 눈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명언을 남겼다. 오래된 사찰, 궁궐과 왕의 신위를 모신 종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들 문화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쉰다. 낡은 건축물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얼과 정신이 담겨 내려온다.

이런 천년의 지혜는 오늘날 일상적 거리를 채우는 현대건축물에서 만날 수 없는 가치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우리네 옛 건축을 되돌아보는 일은 옛 것과 새 것의 조화, 지속가능한 공간을 위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정신세계, 우주관과 세계관을 ‘전통건축’을 통해 만나는 전시전이 마련된다. 삼성문화재단이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한국건축예찬–땅의 깨달음’ 전이다. 이 전시전은 12월 19일부터 2016년 2월 6일까지 용산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삼성문화재단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연말에 출간되는 전통건축 사진집에서 출발했다. 주명덕、배병우、구본창 등 6명의 현대 사진작가들이 해인사、불국사、통도사、종묘、창덕궁、소쇄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건축 10곳의 모습을 2년에 걸쳐 찍었다.

현대사진가들의 사진작품 외에도 고미술, 고지도, 모형, 디지털 미디어 등 다매체로 펼치는 대규모 전시다. 불교사찰과 유교문화를 반영하는 왕과 왕실의 사당인 종묘를 ‘침묵과 장엄의 세계’라는 주제로 엮어 종교적, 정신적 세계관과 연관시켰다. 궁궐과 성곽, 관아건축을 포함시켜 ‘터의 경영, 질서의 세계’, 서원과 정원, 민가를 하나로 해 ‘삶과 어울림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소개한다.

이 전시전의 백미는 전통사찰을 소개하는 2부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왕족 및 귀족세력은 불국토를 실현코자 하는 의지로 천년고찰의 화려함과 장엄미를 만들어냈다. 법보사찰 해인사, 불보사찰 통도사, 오랜 선방이자 수련도량으로 유명한 선암사의 비경이 주명덕, 구본창, 배병우 작가의 대형 사진에 담겼다.

대개 산에 위치한 사찰의 특성을 반영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의 전경 사진을 크게 배치하고, 사찰 내부의 건축적 구조와 세부는 모니터 영상으로 보여준다. 1년여에 걸쳐 사찰의 사계를 담았으며 주명덕 작가의 경우 성철 스님 생전부터 20년 이상 촬영해온 해인사의 속살을 공개한다. 그는 성철 스님 생전에도 해인사 스님들과 교류가 많았던 이로 알려져 있다. 해인사의 외관과 가람 풍경,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같은 내부를 비춘 그의 사진 곁에는 18세기 김윤겸이 그린 〈영남기행화첩〉 속 해인사 전경도 전시돼 있다.

불국사는 문화재 전문 서헌강 작가가 찍었다. 입구와 전각, 사찰 내부 디테일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이번 전시의 협력큐레이터로 활동한 전봉희 서울대 건축과 교수는 산지사찰과 평지사찰의 특성을 각각 드러내는 해인사와 불국사의 입체 지형도와 부조 모형을 만들어 소개했다.

구본창 작가는 진신사리가 모셔져 삼보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통도사를 답사하며 사계절을 담아냈다. 배병우는 사찰의 원형이 잘 보존된 선암사를 흑백으로 담담하게 보여줬다. 홍매화가 핀 담장과 절의 모습이 따뜻하다.


주덕명 작가의 ‘해인사’

이 밖에 ‘차마고도’로 잘 알려진 박종우 감독은 종묘의 침묵과 장엄함을 5분짜리 영상으로 담아냈다. 길이만 100미터가 넘는 종묘의 웅장함, 전쟁으로 인한 화재로 수차례 중건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시간성, 19칸 49명의 신위가 모셔진 상징성, 왕실 제례문화가 3채널 스크린 속에 표현돼 있다.

이와 함께 전시회는 3D 스캔 건축 영상물을 각 건축물의 배치도와 함께 연출하고, 일부 사진들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영상 투사해 관람객의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한다.

지난 2013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신라’ 특별전에 선보였던 석굴암 축조 과정 영상을 더욱 발전시켜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실감나는 영상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 코너로 ‘용두보당’이나 ‘금동풍탁’, ‘용두토수’, ‘아미타설법도’ 등 사찰이나 건축 관련 유물도 보여준다.

특히 ‘금동대탑’의 3D 복원 과정은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3D 스캔 방식으로 이 탑의 구조와 설계를 보여주면서 9층탑으로의 복원과 함께 금동대탑의 원래 색을 재현했다.

전시는 IT기술과의 결합으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느껴볼 수 있게 한다. 리움미술관이 관객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확대 기술인 DID를 적용해 손으로 터치하며 작품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 삼성전자의 협찬으로 173인치 스마트 LED 사이니지(디지털 게시판) 비디오 월을 비롯해, 95인치 대형 TV화면을 통해 사진가들이 담아낸 전통 건축의 미를 현장에서 보듯 감상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꽃’ 생전예수재 장엄지화 한눈에

천태종 ‘석용스님 특별展’ 12월 2~7일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서

생전예수재 장엄 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석용스님의 특별전이 마련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 본전시장에서 석용 스님의 한국전통지화 특별전 ‘지지 않는 꽃’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장엄(전통지화) 이수자인 석용 스님(한국전통지화연구보존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생전예수재 장엄과 한국전통지화’를 주제로 지화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1589년 감로탱화에 나타난 꽃을 재현한 작품을 비롯, 1900년대 난등 등 생전예수재에 장엄되는 다양한 지화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치자、양파껍질、강황(노란색), 소목、홍화(빨간색), 장녹(꽃분홍) 등 천연 염료로 색을 낸 모란, 작약, 연화, 국화 등 18가지 지화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오후 2시마다 법고무 특별공연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오후 2시 30분에는 석용 스님의 지도로 전통지화 체험의 시간도 마련된다.

석용 스님은 “생전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쌓는 의식인 생전예수재의 장엄 지화를 선보여 각박하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행복을 기원할 예정”이라면서 “불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인 꽃을 전통문화인 지화의 진수로 향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전통지화연구보존회 이사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전통공예 가운데 잊혀져가는 한국전통지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특히 생전예수재 장엄을 통해 불교문화로서 면면히 이어오는 전통지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라면서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영산재 장엄(전통지화) 이수자인 석용 스님

BBS불교방송 신규프로그램 4편 선보여

‘월호 스님의 능엄경 강의’ ·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등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11월 23일부터 ‘월호 스님의 능엄경 강의’, ‘선타 스님의 달마어록 강의’,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등 TV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리셋 밝고 둥글게’ 오후 3시) 진행자 월호 스님이 ‘월호 스님의 능엄경 강의’(화 오후 5시)로 불자들과 만난다. 월호 스님은 부처님과 아난의 대화를 담고 있는 능엄경을 쉽게 풀어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신행법을 제시한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의 어록에 담긴 선지식의 지혜를 되짚어 보는 ‘선타 스님 달마어록 강의’(화 낮 12시)는 오랫동안 달마대사를 연구해온 선타 스님(안양 선우정사 주지)이 불자들을 대상으로 쉽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오전 11시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에서 한의학 상담을 진행하는 조성태 박사도 BBS-TV 프로그램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수 낮 12시)으로 얼굴의 특징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친숙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경제학자로 유명한 우승택 교수가 들려주는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화 오전 8시 30분)는 약사경의 44개 서원이야기를 우리의 생활과 접목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준다.

BBS불교방송은 “‘치유와 존중의 BBS TV와 라디오’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하나씩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미얀마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BTN 드라마 '붓다'

"대지가 깨달음의 증인… 모든 중생 구제하리라"

지난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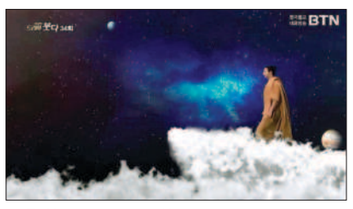
수행자의 길을 택한 싯다르타는 온갖 고행을 체험한다. 여러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구했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다.

싯다르타는 가장 맹렬한 고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싯다르타는 네란자라 강가의 우르벨라촌 근처의 보리수 밑에 자리를 잡고 수행에 몰두했다. 싯다르타는 전혀 음식을 먹지 않았다. 싯다르타의 몸은 극도로 피로해 80세의 노인과 같아졌으며 등뼈가 굽었다.

싯다르타의 가혹한 수행은 다른 고행자들의 모범이 돼 주변 모두가 그를 흠모하며 따랐다. 6년의 시간이 흐르고 싯다르타의 몸은 점점 야위었다. 콘다냐 등 다섯 비구들이 고행하는 싯다르타를 흠모해 따랐지만 정작 싯다르타는 고행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 네란자라 강에서 쓰러진 싯다르타는 수자타의 공양을 받고 기운을 차리게 된다. 싯다르타는 문득 고행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깨닫는다. 수자타의 죽을 먹은 싯다르타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다시금 정진에 들게 된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룬 싯다르타. 깨달음을 얻은 후 싯다르타는 드디어 중생구제를 위한 법륜을 굴린다.


마구니들이 쏜 화살은 꽃비로 변한다.


깨달음의 순간 대자유를 느끼는 모습


자살을 하려는 장자에게 법을 전하는 부처님

"나는 이 자리에서 일체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죽는다 해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싯다르타가 외친 말은 최후의 다짐이었다. 싯다르타가 가부좌를 틀고 선정에 든 순간 싯다르타의 몸에서 흘러나온 빛이 욕계에 가득했다. 마왕은 이것이 싯다르타가 장차 붓다가 될 징조임을 알고 방해하기 위해 다시금 나타났다.

수많은 고비를 넘어선 싯다르타에게 마군들은 수없이 많은 화살을 날렸다. 하지만 그 화살들은 싯다르타에게 닿지 못하고 꽃비가 되어 날렸다.

마왕은 마침내 외쳤다. "네가 궁극의 지혜를 깨친다 하여 누가 널 믿어 줄텐가."

싯다르타는 선정인을 한 오른손을 풀어 무릎 위에 얹으며 땅을 가리켰다.

"대지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안에서 밖에서 행복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마침내 싯다르타는 깨달음을 얻고 붓다, 즉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의 걸음걸음마다 구름이 모인다. 부처님은 대자연과 하나가 된다.

아이들이 부처님의 상서로움을 보고 수자타에게 말하고 부처님은 아이들과 과일을 먹는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 오렌지를 먹지. 완전한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먹으면 오렌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이지."

반면 샤카성에서는 라훌라가 성년이 된다. 숫도다나왕은 이렇게 말한다.

"라훌이 구속을 느껴선 안 되네. 어떤 지식도 모자람이 없게 하게. 삶의 실상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네. 탄생, 죽음, 행복, 슬픔 등을 모두 라훌이 실상을 몰라서는 안 되며, 싯다르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걸세."

부처님의 곁에서는 수행자들이 모인다. 이들은 부처님에게 깨달은 바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이를 배웠는지 묻는다.

"나에게는 잠시 배운 이는 있지만 스스로 깨우쳤소."

"스승의 공을 가로채는군요. 어느 누구도 스승이 없는 이는 없소."

"사람은 궁극적 진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고, 몸소 그것을 알아야 하오. 이 순간에 깨달음이 있고 자유가 있소."

"진리가 평범하고 단순하다면 왜 현자들이 평생을 수행으로 보내겠소. 수행은 힘든거요."

부처님은 지난 수자타의 공양을 보고 떠난 다섯 비구를 찾아 만난다.

다섯 비구는 부처님에게 의문을 보낸다.

"싯다르타는 음식을 먹고 속세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어찌 깨달음을 얻었겠는가."

무명으로 인한 탐진치와 고통 없애는 가르침 전해
다섯 비구 첫 제자로 맞고 사성제 설법, 팔정도 제시

"저는 꼭 부드러운 풀잎처럼 되겠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더러움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상서롭고 단순한 것입니다. 내면의 눈으로 저를 보세요."

다섯 비구는 무릎을 꿇고 다시 제자가 되기를 청한다. 이윽고 길을 떠난 부처님은 마차를 수리하는 곳에서 한 아이가 독초를 먹는 것을 구해낸다.

"업의 윤회에서 구원받을 것을 나는 저 마차바퀴처럼 법을 굴려 펼치려하네."

부처님은 다섯비구에게 첫 법문을 한다.

"무지에서 괴로움과 오해, 근심이 일어난다네. 탐욕, 분노, 자만심, 혼란, 질투와 두려움도 모두 무지에서 나온다네. 뒤바뀐 견해는 양극단으로 자리해 양면을 지닌다네. 북극성처럼 중도를 지켜야 하네. 몸은 굶주리지도 욕망에 치우치지도 말아야 하네. 그래야 모든 근심을 여읠수 있고, 사랑과 수용을 경험한다네. 이런 경험 후 아무도 증오하지 않고 자비심과 너그러움만이 남아있게 된다네."

부처님은 미망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계학, 정학, 혜학을 닦아야 함을 강조한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있다. 첫째는 중생이 있는 한 괴로움이 있어 인간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은 무상한 점에 애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나는 점은 무엇일까. 셋째는 해탈의 진리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로 보고 양극단을 여의는 것이다. 넷째는 모든 괴로움의 족쇄가 풀리고 궁극적 진리를 보는 길이 있다. 바로 팔정도라네."

부처님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을 설한다.

샤카국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고 있음을 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어떤 카스트든 상관없이 문호를 활짝 연다."

부처님의 길에 한 사람은 자살을 하려 한다. 부처님은 이를 막아선다.

"이거 놓으세요. 제 삶의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아니네,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있고,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있네, 자네와 얽힌 인연, 만물이 자네의 삶에 기여했고, 자네의 생명에 권리를 갖고 있네. 일어나게. 일시적 분노에 휩싸이거나 분노가 가라앉았는가."

"저는 행복 · 부 · 번영이 있으나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자네는 그것을 충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네. 욕망이 충족되면 다시금 욕망이 일기 때문이라네. 죽음은 다가 아니네, 삶을 부정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게."

BTN Buddhist True Network
본방 매주 수 · 목 저녁 9시
재방 일요일 새벽 1시 · 오후 3시(각각 2회 방영)
월~목 새벽 1시/ 화 · 수 오전 9시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관계와 연기를 알아야

드라마붓다에서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대단히 재미있고 긴장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다.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계와 연기를 알아야 한다.

드라마붓다에는 셋이 물고 물리는 관계가 꽤나 많이 나온다. 이른바 삼각관계이다. 대표적인 것은 끝까지 괴롭히는 관계이지만 번번이 싯다르타의 승리로 나타나거나 아예 싸움이 되지 않게 하는 싯다르타–야소다라–데바닷따의 관계이리라. 그들은 어려서부터 경쟁과 사랑의 나눔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관계였다. 경쟁자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으니 잘해서 왕권을 쥐는 것으로 노력했으면 좋을 텐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출가하였던 마하남(마하나마)에게 빼앗기는 데바닷따는 출가하여서도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여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인연으로 나중에는 성불하게 되리라는 경전의 스토리도 있다.

그런데 재미있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삼각관계도 있어서 흥미롭다. 유명한 국제미녀이자 창녀인 암바빨리와 빔비사라왕과는 연인 사이였고 암바빨리는 싯다르타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다. 드라마에서는 빔비사라의 아들 아자타삿투가 그녀를 좋아하기에 그녀가 낳은 지와까(Jivaka)를 위해서 그와 혼인해 왕위를 물려주면 어떨까 하는 꿈을 꿔본다. 하지만 아들 지와까는 붓다를 존경해서 왕위보다는 출가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리고 승단의 주치의로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 꿈은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로서 주치의를 하므로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그러나 야소다라를 사랑하는 싯다르타는 암바빨리의 이성으로 다가오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도로서의 마음만 받았으며, 사랑에 감동한 암바빨리가 나중에 그녀의 망고숲을 승단(상가)에 기증하였다. 이는 대림정사(암라수원)가 되었다.

삼각관계가 전쟁과 쿠데타로 중생제도의 시작에 흥미 배가

그녀와 빔비사라가 낳은 아이가 콘단냐라는 설도 있고, 그녀가 낳은 아이가 유명한 의사인 지와까라는 설도 있다. 아무래도 콘단냐는 아닐 것 같다.

드라마에서 긴장을 유지하다가 왕위를 차지하지 못할 만큼 흐트러진 삶을 사는 아들 데바닷따에게 실망하고,온갖 나쁜 짓을 한 자신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하는 싯다르따에게로 마음이 돌아선 망갈라와 숫도다나 및 드로다난과의 관계는 흐릿한 삼각관계이다. 처음에 숫도다나는 망갈라와 좋아하는 관계였다가 마하마야와 혼인한 것으로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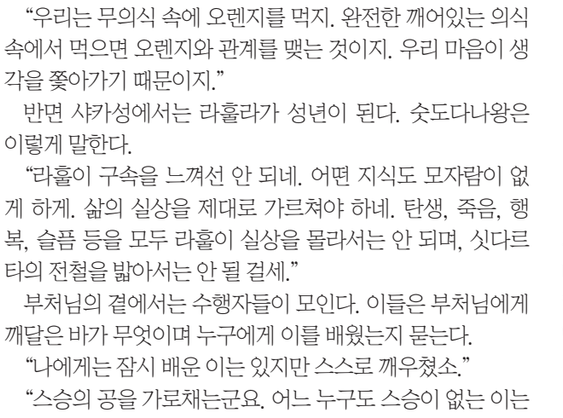
아주 특이한 삼각관계는 남자끼리의 관계이다.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전쟁까지를 사이에 둔 관계여서 흥미를 북돋는다. 그들은 싯다르타와 프라세나짓과 빔비사라이다. 물론, 싯다르타의 인격에 반한 빔비사라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소한 빔비사라가 실권을 쥐고 살아있을 동안은 언제나 싯다르타와 빔비사라가 한 편이었다. 프라세나짓의 공격을 함께 막아내고 돕는 관계로 그린다.

삼각관계는 아니지만 관계를 통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정권의 평화적 이양이 아닌 쿠데타이다. 경전에는 쿠데타 이야기가 몇 있다. 샤카족의 나라에서는 숫도다나대왕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자 싯다르타가 출가하고,이복동생인 난다도 출가하고,싯다르타의 아들 라훌라도 출가한다. 그렇게도 싯다르타의 태자자리를 탐내던 데바닷타도 속내는 붓다의 성스러운 지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출가하였다. 샤카족의 왕권은 결국 마하남에게 넘어가게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승단은 그렇게 번성해갔으나 세속국가와 정치는 쉽지 않은 모양이 되어갔고 결국 다른 원인이 있기는 했으나 멸망의 길로 치달려 가게 되었다. 그런데 코살라는 마하코살라의 아들인 파세나디(프라세나짓)이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드라마붓다에서는 화를 돋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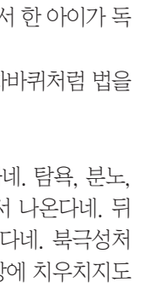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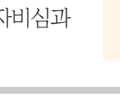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문위원)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1.19~2015.11.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부자수업	윤성식	불광출판사
2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3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4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5	이야기를담은사찰밥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6	너무멀리서찾지마라	정운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기적의명상치료	비디아말라버치	불광출판사
8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 스님	정토
9	무비스님의전심법요강설	무비	(주)조계종출판사
10	황제내경과생명과학	남회근	부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無求 씹으며 욕망의 끈 놓자 삶의 시야 확 트여"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본래 그 자리
맹난자 지음
북인 펴냄
1만 8천원

한국 수필 문단의 원로 맹난자 수필가(73 · 사진)가 펴낸 수상집은 제목부터 범상치 않다. 〈본래 그 자리〉이다. 붓가는데로 쓴 수필이 아니라 일종의 '화두' 같다. 일반 수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 책은 '한 인간이 존재의 부름에 어떻게 답했는가' 하는 기록이다. 그 응답은 단박에 깨친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아니다. 전생애에 걸쳐 한발자욱씩 깨쳐간 '점오점수(漸悟漸修)'이다. 또한 이는 언어도단의 비약이 아니라, 철저히 언어에 의지해 언어를 넘어선 '문자반야(文字般若)'인 것이다. 돌고 돌아 와보니 결국 '본래 그 자리'라는 깨달음의 순간 터져 나오는 '와지일성'을 이처럼 책 제목으로 쓴 저자의 문학적 성취는 가히 주목 받을만 하다.

책은 저자가 지금껏 살면서 순간순간 마주친 여러 질문에 대해 선인들 및 현존 철학자와 사상가, 예술가와 과학자 등의 저서를 읽고 중요 구절을 노트에 옮기며 스스로 답을 찾은 과정을 기술했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종교, 철학과 사상, 인류학과 우주과학 등 여러 분야 명저를 섭렵한 것을 토대로 오랜 동안 연구한 〈주역〉과 〈금강경〉 등 불교 관련 책을 기본으로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과 사유를 펼쳐 보인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새가 나뭇가지를 옮겨 앉듯, 이리저리 건너뛴 생각의 지도를 추려보니 책 한 권이 되었다. '오래된 나의 노트'에는 끄적거리다만 해답 없는 문제와 굴곡진 인생에 대해 알고 싶은 물음들이 많았다"며 "존재란 무엇이고, 영혼은 과연 있는가서 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등 그 일귀하처(一歸何處)가 궁금했다. 그래서 선인들의 철학과 사상을 참고해 한 가지씩 답을 달아 보았다. 이 글들은 문예적인 산문이 아니어서 '에쎄'라고 이름 붙였다. 어린 왕자가 지구를 다녀간 포물선처럼 이것은 지상에서의 내 시간 체험이 살비늘을 털어내듯, 숙제 한 듯 홀가분하다"고 그간의 힘든 작업 과정을 내비쳤다.

수필가이지만 저자 맹난자씨는 죽음과 인간의 근본체험 등에 관한 전문가다. 세계 명 작가들의 묘지를 둘러 보고 쓴 기행문 〈인생은 아름다워라〉, 동양 고전인 주역을 알기 쉽게 해석한 〈주역에게 길을 묻다〉 등이 그 증거물들이다.

이는 저자의 슬픈 가족사와도 무관치 않다.

저자는 9세때 6 · 25 피난길서 여동생을 흰 천에 싸서 허무하게 보내야 했다. 갓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다시 3살 아래의 남동생을 뇌염으로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실직에 장남까지 잃어 실의에 빠진 아버지는 약주만 들면 '한 많은 미아리 고개'를 탄식처럼 불렀다. 저자에겐 암흑기였다. 서뭇치는 그리움 때문일까? 고등학생인 저자는 틈날 때마다 미아리 공동묘지를 찾아가 동생 무덤에 기대고 누워서 책을 읽다가 돌아오곤 했다. 겨우 직장을 얻은 아버지마저 잠적하자, 저자는 졸지에 가장이 됐다. 넋 나간 어머니와 어린 세 동생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휴학계를 내고 서울시청서 촉탁근무를 했다. 꿈을 접고 실의에 빠져 있던 대학 3학년 저자에게 첫 번째 깨달음의 인연이 찾아왔다. 뇌허 김동화 박사였다. 정각사서 열린 〈금강경〉 강의에서 김동화 선생은 칠판에 "유구(有求)면 유고(有苦), 무구(無求)면 무고(無苦)"를 썼다. 저자는 그것을 마주대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을 본 순간 벼락 치듯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 가슴속 멍울들이 그대로 과녁에 꽂힌 듯 녹아내렸다. 담장이 무너지듯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허물어져 갔다. 움켜쥔 것 때문에 생긴 괴로움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무구(無求)를 씹으며 욕망의 끈을 놓아버리자 갑자기 안개가 걷힌 듯 시야가 확 트여왔다. 아마 이때부터 놓아버리는 습성을 익히게 된 것 같다."고 고백한다. 이때부터 저자는 불행 속에서도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그해 여름 어머니 마저 돌아가셨다. 의사는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선생은 '자살이 아닐까?' 하는 벙어리 냉가슴을 오래도록 앓았다.

이후로 저자는 문학서 삶의 위로를 찾았다. '불행한 삶을 살다간 작가들의 절망으로 자신의 슬픔을 치유하면서 인생을 쓰다듬는 습관'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저자는 수십년동안 세계의 대 문호들 묘지를 찾고, 그들이 갇혔던 정신병원이나 자살 현장을 맴돌며 그들의 삶의 궤적에 천착했다. 그리고 저자는 깨달았다. '어떤 삶도 인생에는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느 것이라도 이상한게 아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누구나 각 개인의 가슴을 열면 흉터 몇 개쯤은 지니고 살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자는 문학으로 극복한 셈이다.

저자가 책에서 거론한 총 11장의 주제는 '슬픔' '고통' '마음' '신' '죽음' '자연' '주역' 등이다.



인간의 본질 꿰뚫고 인생 진리 전해
'슬픔' '고통' '죽음' 등 11개 주제 거론
저자, 환지본처의 해답 〈주역〉서 찾아

이중 제3장 〈슬픔에 대하여〉를 펴보자. '병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자기의 넋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란 프루스트의 말을 되새긴 저자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슬픔의 근원과 실체를 탐구한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고리키와 휠더린, 두보와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도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슬픔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았다. 이들 작가와 시인들은 타고난 슬픔으로 작품을 빚는 데 사용했음을 발견한 저자는 발견한다.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빌려 "슬픔은 인간이 가진 정서 가운데 최고의 것이고, 동시에 모든 예술의 전형이며 시금석임"을 언급하며 슬픔을 슬픔으로 승화시킨 경위를 밝힌다.

제4장 〈고통에 대하여〉도 현대인들이 눈여겨 읽을만하다. 저자는 책에서 고통 극복의 정의를 설명한다. 두려움에 떨며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은 끝내 고통을 못 넘지만 고통 속으로 들어가 시련을 극복한 사람은 오히려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되돌아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리고 고타마 싯다르타 등 위인들의 예를 인용한다. 한 나라의 태자로 태어난 싯다르타는 6년간의 극단적 고행으로 붓다가 됐고, 잃어버린 청력을 딛고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 조실부모하고 가난했지만 학문에 뜻을 둔 공자 등의 일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저자는 "내가 남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화(禍)'요, 남이 나를 일그러뜨리는 것은 '복(福)'"이라고 부연한다.

책 제목과 연관된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존재의 실체에 대한 짧은 글들을 간추린 6장 〈존재에 대하여〉를 권한다. 인간 존재를 '색수상행식(色受相行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는 불교의 인간관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불교 교리를 인용해 "마음은 6근, 법은 6진, 몸은 허깨비, 모든 법은 거짓 이름만 있을 뿐, 일정한 실체가 없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아니니 어디에 내가 있는가"라고 되묻고 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은 죽음에 대한 구원"이라고 말머리를 시작한 저자는 제 9장 〈죽음에 대하여〉편에서 "예수는 부활로 영생을 약속하고, 붓다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불생불멸의 진아를 깨달을 것을 권한다. 도가는 죽음을 자연의 순환으로 바라보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등 각 종교서 보는 죽음과 에피쿠로스, 토마스 카라일, 플로티누스, 주제 사라마구, 몽테뉴 등 서양의 유명 철학자들이 설파한 죽음에 대해 저자도 함께 고민한다. "늙는다는 것, 이는 서서히 자살하는 것"이라는 롤랑 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통과의례를 거쳐 돌아가게 될 '환지본처'의 해답을 주역서 찾고 있다. 모든 자연현상은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가는 유기적 변화의 구조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무(無)는 곧 일(一)이다"라는 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귀결한다. 문학이라는 기본 토양위에 철학, 종교, 인생 등을 버무린 맹란자 수필가의 이번 책은 삶의 길을 잃고 해매는 우리들에게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저자 맹란자 수필가는?
서울서 태어나 숙명여자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국문과와 동국대 불교철학과를 수료했다. 1969년부터 10년 동안 월간 〈신행불교〉 편집장을 지냈으며 1980년 동양문화연구소장 서정기 선생에게 주역을 사사하고 도계 박재완 선생과 노석 유충엽 선생에게 명리를 공부했다. 2002년부터 5년 동안 수필 전문지인 〈에세이문학〉 발행인과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을 역임하고, 〈월간문학〉 편집위원과 지하철 게시판 〈풍경소리〉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수필집 〈빈 배에 가득한 달빛〉 〈사유의 뜰〉 〈라데팡스의 불빛〉 〈나 이대로 좋다〉, 선집 〈탱고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이 있으며,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와 개정판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작가 묘지 기행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등이 있다. 현재는 한국수필문학진흥회 고문, 〈에세이스트〉 편집고문, 〈문학나무〉 자문위원,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문인협회 상벌제도위원장으로 있다.

여행기 안에 녹여낸 뉴요커와 승려 스토리



부처와 아침을
롤랜드 메럴로 지음
김선희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펴냄
1만 3800원

"세실리아가 자리서 일어나자 옆에 있던 남자도 일어섰는데, 왠지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세실리아가 이젠 달라이 라마와 사귀는 중인가 보군.' 막상 가까이 가니 그렇지가 않았다. 이 남자의 행동거지는 어찌 보면 평화로운 승려라기보다는 장거리 트럭운전사 같았다. 세실리아는 긴 히피스커트 자락을 펄럭이며 다가오더니 나를 따뜻하게 안고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이윽고 서로 떨어졌을 때, 세실리아는 내 팔을 잡고 말했다. "오빠, 내 구루셔. 볼야 린포체라고."

린포체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치마 같은 옷자락 속에서 못이 박힌 두터운 손을 꺼내,

으스러질 듯 힘 있는 악수를 건넸다. 세실리아가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기절초풍할 말을 했다. "오빠, 린포체 구루도 노스 다코타에 갈 거야." 당연히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오토 링그링은 뉴욕의 잘나가는 출판사 편집장이다. 하지만 여동생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시던 고향으로 가는 여행에 자신의 구루인 심홍색의 낡은 승복을 입은 승려 볼야 린포체와 함께 가도록 했을 때 그의 평화롭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승려와 함께 여행 하는 것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지만, 자신도 즐기고, 낯선 이방인을 좀 서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는 길에 '미국식 즐거움'을 보여주기로 작정한다. 오토는 그와 함께 고향인 노스 다코타의 농장까지 가는 길에 허쉬 초콜릿 공장과 볼링장, 미니골프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린포체의 세계관을 엿보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책은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여행기 안에 뉴요커와 승려라는 캐릭터의 등장으로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심리적인 변화를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두 주인공이 볼링과 미니골프를 치거나 초콜릿 공장에 견학하는 단순하고 유머러스한 상황으로 녹여내는 한편, 승려의 강연회나 요가 수업 등 진지한 상황을 번갈아 배치하여 이야기 전개의 강약을 살려 읽는 재미를 주었고, 매일 아침 한 가지 질문을 주고받는 일상적인 상황을 넣어줌으로써 읽는 독자들이 자연스레 주인공의 심리변화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였다.

주인공 오토처럼 중년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된 인생의 전환점은 정말 크나큰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보면 삶의 진정한 의미,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담하고, 때로는 농담처럼 웃으며 받아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토와 린포체처럼 아침을 먹으며 던지는 질문과 답처럼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이다. 김주일 기자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쉽게 윤회를 벗어나
성불할 수 있는 도를 보인 원효성사의 논서!

- 종교의 마지막 논서 -

원효의 무량수경종요

정목스님 번역 · 해설 | 신국판 | 양장 | 흑백 | 384쪽 | 20,000원

오룡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정목 지음 | 신국판 | 컬라 | 280쪽 | 14,000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 · 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역해 | 신국판 양장 | 2도 | 348쪽 | 20,000원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힘을 체험케 하는 묘한 논서
현세에 안심을 얻고 정토를 감득해 묘관찰지를 증득하는 법

『무량수경종요』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을 원효성사의 깊고 넓은 지혜로 해설한 보배로운 저술이다. 염불수행법, 보리심, 정정취, 부처님의 지혜 등, 신행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다. 선근이 깊은 사람은 염불로 지혜를 성취하여 오탁악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세파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범부일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성사의 가르침을 우러러 믿고 염불하면 반드시 자비광명의 은혜를 입어 안심과 희망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량수경종요』는 '종교의 마지막 논서'이다. 비록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 세계와 인간의 존재방식과 실상, 범부와 성인의 세계관, 철학과 종교의 관계, 성자의 지혜 등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토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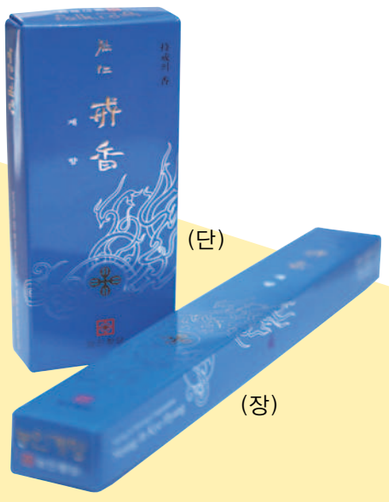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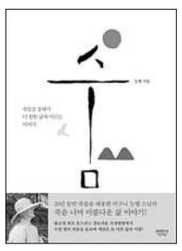
책 속의 밑줄 긋기

"죽음은 느닷없이 찾아온다. 어찌 보면 죽음은 예의가 없다. 당신에게 언제 가겠다고 다정히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불시에 찾아와서 당신을 사뭇 당황스럽게 만든다. 죽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학벌과 지위를 논하지 않는다. 또한 나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처럼 불공평하지 않다." 〈능행스님의 숨 中에서〉

"청정하게 장엄된 불국토는 청정한 대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나라의 수많은 불제자들은 항상 오묘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사자좌를 우러러보고 있다. 부처님은 사자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언제 어디에나 앉아 계시며, 한없는 방편으로써 보살행을 나타내 보이신다. 법성(法性)의 눈은 세간을 비추고, 그 몸은 널리 세간에 드러내시며, 시방의 모든 나라를 보호하고, 일체의 더러움을 제거하신다." 〈화엄경 이야기 中에서〉

Books

어떤 숨을 쉬며 살아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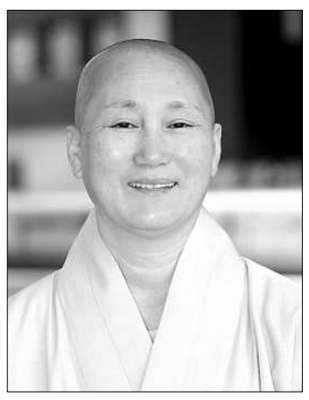


숨
능행 스님 지음
마음의 숲 펴냄
1만 3800원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은 언제나 공존한다. 그래서 수많은 성인, 철학자들에게 죽음은 단골로 등장하는 화두요 소재이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 무수한 질문을 던지며,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왔다.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했고, 그에 관한 저서들 또한 쏟아졌다. 여기 20년 동안 실제 죽음의 현장서 수천 명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한 비구니 능행 스님이 있다. 천주교 호스피스 시설서 죽음을 앞둔 한 비구 스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를 건립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죽음을 총망라해,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깨달음을 준다.

이 책의 미덕은 한 가지 측면에서만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다는 것이다. 능행 스님은 문학 영화 철학 종교 등 여러 관점서 죽음을 바라보고 고찰한다. 또한 지난 20년간 죽음을 배웅하며 겪은 가슴 한편을 찡하게 만든 감동적 실화들은 물론, 죽음이 터부된 사회에 대한 따끔한 일침, 조금은 민감한 주제인 고독사와 존엄사, 느닷없이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준비와 죽음 교육의 필요성, 더 나아가 죽음을 앞둔 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서 오로지 삶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역설한다. 삶 속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기는 어렵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저절로 삶의 의미를 되짚으며 어떻게 살지를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죽음은 물론 삶에 관한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힐링' 이라는 말이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힐링' 의 대중화는 '킬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방증인지도 모른다.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학생들은 취업에, 직장인들은 승진에 끊임없는 무한경쟁 속을 내뛰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숨 돌릴 틈의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달려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론가 달려간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 숨과 숨 사이, 그리고 숨의 흔적들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 관점서 죽음 바라보고 고찰
죽음에 대한 준비와 필요성 소개
20년간 죽음 배웅하며 겪은 실화
숨을 고르게 쉰다는 인식함 중요

이런 오늘날의 세태에 능행 스님은 '어떤 숨을 쉬며 살아갈 것인가' 에 주목한다. 이 책은 팍팍하고 거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숨을 위해 쓰여졌다. 턱에 닿을 듯 가쁘게 몰아쉬는 숨에는 화, 슬픔, 아픔, 외로움이, 새근새근 아이처럼 내쉬는 고운 숨에는 숭고함, 아름다움, 사랑이 존재한다. 어떤 숨을 쉴 것인가는 어떤 숨을 거둘 것인가와 다르지 않다. 거친 숨을 쉬며 살아낸 삶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힘겨운 숨을 맞게 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숨과 숨 사이를 느낄 여유도 숨의 진정한 가치도 잊은 채 숨을 쉬고 있다. 능행 스님은 매 순간 숨을 고르게 쉰다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하루 숨은 어땠는지 살펴보라고 권한다. 또한 고운 숨을 쉬며 살아가다 맞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붓다와 소크라테스 대화를 현재적 시점서 상상

소크라테스, 붓다를 만나다

해리슨 J. 펨버턴 지음 | 추미란 옮김
불광 펴냄 | 1만 3천원



물질 · 외부 지향적인 서양의 정신과 내면의 깨달음에 집중하는 동양의 정신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저자인 해리슨 J. 펨버턴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오고 다른 결실을 맺은 동 · 서양이 여전히 그 어느 쪽도 완전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 두 전통을 건설적으로 아우르는 중도의 길을 찾기 위해, 동 · 서양의 정신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며 집요하게 탐구한다.

그는 티베트 학승들에게 서양철학과 불교가 얽히는 지점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소크라테스처럼 '덕은 가르칠 수 있는지' 를 묻고,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명제에 도전하며, 과학과 경험론의 유효성을 의심한다. 그리고 불교의 순환적인 시간관과 서양의 직선적인 시간관을 상호 비교한 다음, 동양과 서양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니체, 칸트, 헤겔,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사에 한 획을 그은 사상가들을 압축적이고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들의 이론과 철학적 방법론과 심리를 시간 · 장소 · 배경에 상관없이 불교와 최대한 비교해, 어떻게든 동 · 서양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찾아내려 한다. 그러나 개념화와 이성에 진리가 있다는 서양적 사고와 이성 너머에 진리가 있다는 동양적 사고는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한다.

서양에서는 이성적인 통찰이 끝까지 갈 때 그것이 곧 깨달음이고, 동양에서는 이성을 초월한 주객이 없는 그 어떤 상태가 깨달음이다. 서양의 깨달음으로는 동양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 없고, 동양의 깨달음으로는 서양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없다. 동양과 서양은 애초부터 그 목표가 달랐고, 따라서 그 방법론이 달라졌고, 그러므로 현재의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와 정신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서양철학 대가들 사상 다뤄
동 · 서양 철학 형식으로 만남 주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사랑 교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기어이 동 · 서양을 만나게 한다. 내용이 아닌 형식으로써 만남을 주선한다. 저자와 학승들의 철학 강의는 열린 마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토론도 가능했다. 서로에 대한 호의, 존중, 그리고 궁금함으로 마침내 동 · 서양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책의 마지막서 "이제 붓다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한 걸음 물러서게 한 다음 자유로운 탐구 속에서 서로 만나게 하세. 그 속에서 그 둘은 자신만의 사고 유형에서 상대의 그것으로 옮겨가볼 것이고 서로 양립불가함을 볼 것이네. 바로 그때, 그래 바로 그때, 이들은 따뜻하고 건전한 웃음 속에서 서로 만난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한다.

이 책은 서구화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꽤 유용한 가치를 제공한다.

그동안 동 · 서양의 정신세계는 매번 만날 듯하다가도 돌이킬 수 없는 대분열을 일으켜왔다. 분명 그 둘은 사상적으로 중도의 길을 걸을 순 없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성적 사고와 내면의 자유를 포기할 순 없다. 열린 마음으로 붓다와 소크라테스의 만남을 바라볼 때 서로에게 호의와 존중을 품게 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움틀 것이다.

김주일 기자

쉽게 풀어쓴 일본 불교학자의 〈화엄경〉 34품 이야기

화엄경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 지음 | 장휘옥 옮김
불교시대사 펴냄 | 2만 5천원



〈화엄경〉은 아주 방대한 경전으로 원제목은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중국에서도 40권 본과 60권 본, 그리고 80권 본이 전해진다. 이렇게 많은 경전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전문 학자가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일본의 불교학자〈카마타 시게오〉선생께서 대중들이 쉽게 〈화엄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풀이했다. 34품으로 되어 있는 〈화엄경〉은 많은 번역서와 해설서가 나와 있지만 어느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절판시키기가 아쉬워 재출간을 했다. 〈화엄경〉에 관심 갖고 공부하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보고 수행 한다면 더 없이 이해가 빠르고 정확한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장 전체를 독송하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결점은 그 교학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경전을 한 자, 한 자 주의 깊게 읽지 않는 것이다. 경전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교리의 근본이 되는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르침 실천한 이들 행적 부각
끝부분 〈입법계품〉으로 마무리

이 책에서는 그들이 〈화엄경〉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밝히기 위해 각 품을 설명하기 전에 〈화엄경〉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의 행적을 부각시켜 놓았다. 특히 끝부분의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얻어가는 수행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우리도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처럼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나보자. 김주일 기자

생각 고문서 벗어나 일상서 마음 해탈하기

생각을 멈추고 존재를 시작하라

아눌라 스님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 1만 5천원



20년 가까이 근본불교 본향인 스리랑카 등지서 수행하며 위빠사나를 가르쳐온 아눌라 스님의 신작 에세이집이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늘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언가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갈증으로 괴로운 사람들에게 아눌라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타고 온 뗏목이 아무리 고마워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지 마라. 스스로 그린 종이호랑이를 보고 무섭다고 호들갑 떨지 마라.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생각고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아눌라 스님은 "생각은 살아 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에 대한 정신적 프린트에 불과한 것이다. 잠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 호랑이를 만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그린 호랑이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귀여운 강아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텅 비워버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부 마음의 장난에 속지 않는 법과 2부 일상서 마음 해탈하기로 나누어

아눌라 스님이 알려주는
'마음 장난에 속지 않는 법'

져 있다. 짧지만 강렬한 52편의 에피소드를 한 편씩 읽다 보면 온갖 생각으로 시끄럽던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명쾌해진다. 위로보다 지혜를 주는 글, 숨어 있는 행복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마음속의 불씨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려주는 글들이다. 아눌라 스님은 일상서 얻은 깨달음을 경쾌하고 투명한 수채화처럼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백일만 하면 힘이 생긴다!



선을 배우는 길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선수행의 길라잡이.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묵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위빠사나),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간화선 수행법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은 다음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조복 받는 것처럼 속전속결의 법이다. 위빠사나 수행법은 작전을 펴서 적의 군대를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붙잡아 항복시키는 것과 같다.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법은, 처음엔 적의 군대를 작전을 펴 무력으로 점점 섬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특공대를 보내어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생포해 항복을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 대현 지음 / 302쪽 / 값 15,000원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솟아오른 해가 천지를 환히 비추는 것 같은
충만한 존재감, 너와 나의 경계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대자유함,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림과 함께 읽는 한영대역판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십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왕마다 달랐던 억불… 한국불교 고난기

19. 조선전기, 억불정책을 단행하다

조선시대는 흔히 '숭유억불'의 시대로 표현되는데 억불의 강도와 정책의 방향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불교정책의 기조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태종부터 성종대까지는 강도 높은 억불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어 연산군, 중종대에는 불교 관련 법제가 사문화되면서 공식적 폐불이 단행되었다.

16세기 중반 명종대에 일시적으로 선과 교의 양종이 재건되었는데, 이는 승려의 인적 계승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불교 존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었다. 조선후기에도 법제상의 변화는 없었고 불교를 공인하지도 않았지만,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국가에서 승려의 노동력과 사찰의 자원을 활용하였다. 이는 정책상의 방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공리적 성격의 불교시책을 편 것이었다.

성리학적 유교이념을 국가통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건국한 조선은 1392년 개국 이후 이전 시대와는 다른 불교정책을 취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지만 신료들의 의견에 따라 신생 왕조국가의 기반 조성을 위해 불교계의 폐단을 혁파하고 특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승려 자격증을 국가에서 발급하는 도첩제를 시행하였다. 신분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어 양반은 포 100필, 양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을 내야 승려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조대에는 국왕 자신이 불교에 호의적이었고, 또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불교의 큰 사회적 지분 때문에 억압적 정책을 펴기보다는 이전의 불교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연산군의 폭정을 그린 영화 〈간신〉의 한 장면. 연산군은 자신의 직속 기생 집단인 '흥청'과 '운평'을 운영했다. 도성의 원각사는 이 같은 기생들의 숙소로 쓰였고 국립대학 격인 성균관은 왕의 연회장으로 쓰였다. 당시 불교 기록에는 "승려가 사태를 당한 암울한 시기"라고 쓰일 정도였다.

태종 즉위… 억불의 시작

하지만 태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억불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태종은 조선 개창에 큰 역할을 하였고 정몽주와 정도전의 제거, 왕자의 난 등 많은 정쟁을 치르며 신하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다. 또한 그는 고려 말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성리학 교육을 받고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등 유교적 소양을 갖춘 군주였다.

1406년(태종 6) 11개 종파에 속한 242개의 사원만을 국가에서 공인하고, 그 외의 사찰들에서 보유하던 공적 성격의 수조지와 사원노비를 속공하였다. 당시 실록 기사에 따르면 사원전 3~4만 결, 사원노비 8만 명이 환수되었다고 한다. 종파별로 공인된 사찰의 수를 보면, 조계종과 총지종을 합쳐서 70사, 천태소자종과 천태법사종은 43사, 화엄종과 도문종은 43사, 자은종 36사, 중도종과 신인종 30사, 남산종 10사, 시흥종 10사였다.

이어 다음 해에는 11개 종파를 조계종, 화엄종, 천태종, 자은종, 중신종, 총남종, 시흥종의 7개 종파로 축소, 통합하였다. 이와 함께 공인된 242개의 사원 중 고려시대의 비보사(자복사)로서 주로 지방 읍치에 있던 88개의 사사를 명산대천에 있는 사찰로 대체하였다. 이는 유교적 지역 공간 재편 과정에서 각 지방의 중심지에 있는 고려적 전통과 관련 있는 사원을 폐사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정책방향에서 추진된 일이었다.

태종대의 억불 조치로 인해 불교계가 보유하던 막대한 양의 토지와 노비가 국가로 환수되었고 이는 사원경제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242개의 공인 사찰에는 공적 성격의 전지와 노비 소유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가 추가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242개 이외의 사찰들도 경제기반의 상당수를 잃기는 했지만 민전 형태의 토지는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승려를 전부 환속시키거나 사원 자체를 없애는 폐불의 단행은 아니었다.

다음 세종대에는 국가의 문물제도가 정비되고 독창적 고유문자인 한글이 반포되는 등 왕조국가의 전성기를 맞이한 시대였다. 그럼에도 태종대의 억불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424년(세종 6)에는 기존의 7개 종파가 선종과 교종의 양종으로 통합되었고 선종과 교종에 각각 18개씩 총 36개의 사찰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선교양종 36개의 사찰은 앞서 242개의 사사처럼 군현을 단위로 한 것이 아닌 도별로 배정되었고, 그 중 경기도와 개성 지역 17개 사사를 포함해 20개 이상이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었다. 이들 사찰에는 승려와 보유 토지의 한도가 정해졌는데, 양종 36사에 공식적으로 허용된 승려 수는 선종 1950명, 교종 1800명, 총 3750명이었다. 또한 공인된 사사전은 선종 4,200여 결, 교종 3700결을 합친 총 7900여 결로 태종대 242개 사의 1만1000여 결에 비해 3000결 이상 축소되었다.

또한 승적 관리 등 승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국가관서인 승록사가 폐지되었다. 대신 선종은 서울의 흥천사, 교종은 흥덕사에 교단 자체 관리기구인 도회소가 두어졌고, 고위 승려의 선발시험인 승과도 선종과 교종에서 각기 시행하게 되었다. 나아가 왕실불교를 상징하는 궁궐 내 내불당이 혁파되고 승려의 도성출입이 제한되는 등 억불의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건국 태조는 유화책에 가까워
태종부터 본격적인 억불정책 시작돼
세조는 호불군주… 개인적 신앙 깊어
연산군, 사화 일으키며 폐불정책 시행
16세기 임란 거치며 부활 전기 만들어

유교로의 전환… 세조만 친불

세종대에는 왕세자를 책봉할 때 뒤에 문종이 된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해 유교의 개조인 공자의 위패에 절하는 의식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이는 앞서 고려의 국왕이 승려인 왕사와 국사에게 제자로서의 예를 표하고 스승으로 모신 것과 비교할 때, 불교국가에서 유교국가로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종의 아들인 세조는 조선시대의 유례없는 호불군주로서 친불교적 행보를 걸었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심에 더하여 민심의 회유와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불교에 적극 귀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서를 간행하고 언해하였으며 서울 도심에 원각사를 창건하였다.

또한 지방의 유명 사찰들을 중건하고 다량의 사원전을 지급함과 동시에 제반 잡역을 감면해 주었으며 사찰 경내에 관리나 사대부가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했다. 이로 인해 특혜를 입은 일부 사찰은 산업을 경영하고 부를 크게 증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정도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조대에는 역을 피해 도첩을 받지 않고 승려가 된 이들이 크게 급증하였다.

이후 유교국가의 정형이 갖추어진 성종대에는 지방의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언론을 주도하였고 세조대의 친불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억불책이 재차 강화되었다. 성종도 집권초기에는 대비의 영향으로 "이단인 불교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만 믿지 않으면 되며 승려 또한 백성이므로 모두 없앨 수 없다"고 하였지만, 정치를 직접 장악한 후에는 억불의 강도를 높였다. 즉 도성안의 염불소와 비구니 사찰을 철거하고 국왕의 탄신재를 혁파하였다. 또한 세조대에 급증한 피역 승려의 수가 정치쟁점화 되면서, 도첩의 발급을 중단하고 도첩이 없는 승려들을 색출해 일부를 환속시키기도 했다. 이는 승려의 수를 줄이고 향후 승려가 되는 공식 통로를 막는 폐불을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성종대에 반포된 조선의 공식 법제 〈경국대전〉에는 도승과 양종, 승과와 같은 불교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그 초안은 앞서 세조대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승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선교양종에 신고하고 3경을 외운 후 정포 20필을 내야 했으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양천의 신분을 불문하고 도첩이 발급되었다.

또 선종과 교종의 승과 규정을 정하였고 국가공인 사찰의 주지는 승과 출신의 승려 중 예조에서 임명하게 하였다. 반면 사찰의 신규 창건은 금지되었고 승려 수와 거주공간을 제한하였으며 토지와 노비를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금하는 등 불교정책의 법제화와 동시에 억제 조치가 함께 명문화되었다.

연산의 폭정, 불교도 된서리

다음 연산군 대에는 즉위 초의 경우 불교에 대한 억압적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1504년(연산군 10) 왕이 생모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갑자사화를 일으키면서 우발적 형태의 폐불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일부 관료와 유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국립대학격인 성균관이 폐쇄되면서 왕의 연회장으로 쓰이는 등 극심한 혼란상이 펼쳐졌다. 그 과정에서 세조가 창건한 도성 내 원각사가 기생의 처소로 쓰였고 양종도회소가 철폐되면서 한강 남쪽 교외의 청계사로 쫓겨났다.

또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승과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다음 해에는 사원전을 전부 몰수하고 승려를 환속시키라는 명령까지 내려졌다. 이는 말 그대로 폐불이 단행된 것이었으며, 불교 측 기록에서도 연산군대를 떠올리며 "승려가 사태를 당한 암울한 시기"로 보았다. 하지만 몰수와 환속 조치가 내려진 같은 해에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되었고 따라서 실제로 폐불의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반정으로 즉위한 중종은 처음에 왕권을 강화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종의 유훈을 내세워 일부 환수된 왕실 관련 수륙사와 능침사의 몰수 전답 반액을 되돌려주었고 도성 내 비구니 사찰인 정업원을 재건하였다. 그러나 반정을 주도한 조광조 등 사림세력이 공론을 주도하면서 더 이상 승과가 시행되지 않았고 일부 폐사가 된 사찰의 전답은 유교 교육기관인 향교로 이속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1512년에는 양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1516년에는 〈경국대전〉의 도승 조항이 삭제되었다. 승려의 자격을 인정하는 도승제가 없어진 것은 불교존립의 기본 전제인 인적 재생산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이었고 이는 법제상의 폐불을 의미한다. 또 사림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사원경제를 통해 왕실재정을 충당하던 내수사의 고금리 장리를 없애는 한편 능침사 외의 사찰에서 기신재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왕실불교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었다.

후대에 이때의 상황에 대해 "승려들이 머리를 기르고 환속하여 절에 승려가 남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고, 또 선종의 사법계보가 사실상 단절되다시피 한 것을 보면 이 시기 억불정책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기묘사화가 일어나 기묘사림이 축출되고 중종 후반대에는 척신세력이 정권을 운영하면서, 불교정책도 공리적 시책으로 전환되었다. 즉 공인받지 못한 불법적 승려의 급증이 사회문제가 되자, 무도첩 승려들을 국가의 공역에 활용하는 대신 신분증명서인 호패를 지급하여 승려로서의 활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

이처럼 연산군과 중종대를 거치면서 불교는 인적 자원과 유형적 자산의 계승 측면에서 거의 폐불 상황에 이를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 사찰판 불서의 간행이 16세기에 들어 급증하였고 벽송 지엄을 필두로 하여 선과 교의 전통이 교육을 통해 전승된 것을 보면, 이 시기에 각고의 노력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재생의 길을 모색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16세기 중반 명종대에 선교양종이 일시적으로 재건되고 이후 임진왜란 때의 충의를 내세운 의승군 활동으로 인해 불교계는 부활의 전기를 만들 수 있었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입·종·안·내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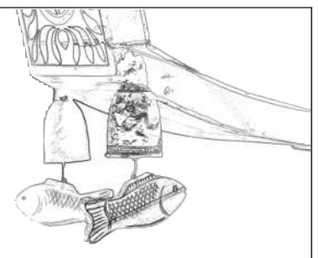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물이 풀과 약초와 나무를 키우듯이 청정한 원을 지닌 보살은 중생을 자비로 적시고 중생이 지니고 있는 맑고 깨끗한 성품을 키워준다.

- 보적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호적,
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미륵불 (대형)

석가모니 불상

알 림

010-4630-800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얼굴손금만봐도어떤질병이있는지한눈에알수있다
  암질병,산소문제재판,가족,교통사고운을알수있다
- 관상, 손금, 성명학, 타로, 사주 (개인지도, 단체)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책 출간 (판매 중)

010-4014-8822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빙의퇴마,천병,
신병,우울증,병명없이 아
프고 우환 고생하시는분.
스님, 보살 상담환영
금강사 010-5152-1222

불사용 달마도

40*60cm 한폭 6천원
불사용 선물용 달마도가 필요
한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달
마도를 친필로 그려드립니다
- 5매이상 절이름
스님법명 써드립니다.
010-2953-8770
청암달마원

자연산 상황버섯

면역력 증진
생명 연장력
뛰어난 항암력
(지리산 심마니)
010-8687-9003

비구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7-206-0113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신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8916-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0-4946-666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사찰 소임 원합니다

게송,법문,범패,불교의식
전문 / 함께 큰불사 이룰
수 있는 원력! / 땅이나 건
물 저렴하게 보시하실 분.
큰 인연 연락주세요.
곡차, 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010-2553-8827

공 고

*공부, 수행하면서
노스님 시봉할 분
남녀불문, 45세이상,
월사례비 백만원
(숙식제공)
010-4905-0575

특수한 기도법을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근육테스트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균형을 바로 잡는
터 치 포 핼 스 11월 강의일정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터치포핼스는 근육테스트를 이용하여 우리 몸과 대화하여 증상중심이 아닌 그 증상을 있게 한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획기적인 대체의학요법입니다. 침이나 지압, 마사지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대체요법을 하신 분들께 진단법으로 아주 훌륭하게 접목될 수 있으며, 그 자체 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균형잡기 요법입니다. 자신과 가족, 또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터치포핼스〉를 쳐보시면 소개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강연회 : 3차 - 11월 12일(목) 밤 7시 30분 / 4차 - 11월 1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지하철 명동역 3번 출구 퍼시픽호텔 우측 지하 〈면역공방 가위 바위 보〉
- 3기 터치포핼스 : 〈1〉 코스 : 11월 21일(토), 22일(일) / 장소 : 상동 / 비용 : 30만원

010-3335-0336 김도림 배상 (문의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346-2328

비구니 부전스님과 보살님과 공양주와 자기기도 (지장기도)할 비구니스님을 구합니다.

고찰인 산내암자에서 참선정진하며 기도도 병행하며 함께 여생을 사원에서 공생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경북 예천 내원암 (연락바람)
054-653-1180.
010-6353-118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해남 황토 고구마

산지직송
1BOX 10kg 25,000원
(택배비 포함)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3602-04-065595 예금주 : 황향숙

010-3349-8802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 사찰 관리하실 분 65세 이상 1명.
▶ 사찰 과수원 관리에 도움 주실 분 (나이제한 없음)

(충북 단양)
010-5960-208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3개월 사주,관상 대모집 (월 10만)
원격상담문의 010-5801-2203 부천상동역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출장강의 가능,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 인 연 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땅속 혈과 맥을 잡아내는
족집게 도술풍수!!!

太極山水穴脈地理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집안이 흥성한다!

- ◆명당은 반드시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다!
- ◆혈과맥 짚어내는 비술 득통(풍수계 최초)
- ◆혈맥터는 반드시 발복흥성 되는 생기복덕처다!

▶ 터감정 명혈점지 알선상담 ◀

절터 · 사업장 · 아파트 · 주택지 · 묘지 · 납골 · 수목장 등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 **태극산수혈맥지리**는 자연과학과 장심통수련으로 백발백중 감정·점지 할 수 있는 획기적 풍수지리다 : **비술전수자모집**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81 절로암 참설당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천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타인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며 타인의 깨끗한 생활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나쁜 말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 발각정심경 -

사 찰 안 내

▶ 부산 사찰 안내 ◀
- 위치 : 부산 온천동
- 총부지 : 약 80평
- 건물 : 법당 22평, 요사채 25채, 산신각, 뒤는 산, 남향 주차
- 가액 : 스님사정상 몽땅 3억 5천 (몸만오시면 됩니다)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사찰
- 임야, 토지 5,0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산속사찰임, 조용함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경북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28평, 1층 방3
- 주방거실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 상단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 법종, 소불 108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5천 월세 3천에 70만원

010-8611-756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전망좋고 위치가 좋습니다
- 명산인식장산과 보문산 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m
- 대전역(택시) 10분거리,대지 70평, 건물:1층 요사채 35평, 2층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 가액 : 3억 3천만원

010-8701-960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경기수도권 ◎ 위치:경기
◎ 대지:200평 ◎ 부지:700평
◎ 법당:30평 ◎ 법당:50평, 요사:40평
◎ 요사:40평 ◎ 신도시,산 및 차량진입
◎ 양도:9억원 ◎ 양도:14억8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법인 사찰 양도
* 목조법당, 목조요사채, 방사건물 등
* 안정된 도심지 사찰, 토지 1,200㎡
* 양도가 : 5억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 2층 임법당, 대지 99㎡
- 1층 방2, 부엌, 창고, 욕실
- 2층 법당 삼존불
- 옥상 휴게실, 텃밭. 주차가능
- 지하철, 버스, 시장 가까운 곳
- 가액 : 1억 4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 -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사찰최적지전통한옥

(밀양 얼음골)

- 총부지 6,200평, 전통 한옥 2채 (45평 30평) 및 한옥보일러실, 해발 400M 전망 최고의 명당
-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등 영남알프스 인접
- 현재 팬션 운영중
- 가액 : 33억

주인직 010-6563-3122
010-7100-62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900만원

010-4646-363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돌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영산 갓바위 자락
- 대지 225평, 답 289평, 도로인접
- 1층 시멘트 벽돌 슬라브 주택 26.47평 1층 슬라브 창고, 법당 21.22평 1층 시멘트 블럭조슬라브 12평 62평 방4개 응접실, 주방, 욕조, 화장실 0.8평
- 주불 지장보살. 탱화, 신중, 칠성, 산신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4억 5천

010-6534-1777
010-3511-6781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270-2
- 평수 : 약 50평(2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함 스님 불사 이전 관계

010-9389-745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 사 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가액: 21억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전철 문정역에서 3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5평, 법당, 방3
- 원목탁자, 삼존불, 탱화3점, 에어컨2대
- 냉장고, 세탁기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8년간 운영(절을 지어 이사하게 됨)

02)762-0108
02)433-0108

사찰(급)안내

-납골당 5,000기 허가 운영중-

- 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447-4외 6필지(447-1,2,3,5,6 산144-5)
- 총부지:31,411㎡터(약 9,501평)
- 건물 : 법당 91.16㎡(28평) / 요사채 81.07㎡(25평)
- 납골당시설, 목조기와대웅전, 목조기와요사채, 납골시설, 풍수, 전경최고
- 교통 : 2차선지방도에서 500m 광주광역시에서 30㎞/장성읍에서 12㎞/ 장성 상무대옆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4115-5454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 50평, 심야전기
- 종교용지 대지 포함 약 500평, 전 1,480평
- 가액 : 5억 2천

011-9731-1415
033)762-2494

"급"불교사 양도

- 장소 : 부산시 사하구 대로변
- 평수 : 10평
- 보증금 : 천오백만원
- 월세 : 45만원

※개인 사정으로 급 양도합니다. 시설금 육백에 모두 다 드리고

- 몸만 나갑니다.

010-6770-7598

사찰(급)안내

- 소납이 급히 공사찰 소임관계로 부득이 양도 하고저 하오니 뜻 있는 스님들께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750만원
- 평수 : 35평

051-959-5925
010-3742-59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 +종무실 +종무실 방 +주지실 +기도실 +탈의실2 +주방 (전체 강화마루 +보일러 +방음벽 +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5분거리
- 3층 건물중 2층, 같은 3층(60평)
- 종무실 1, 방 2, 화장실 2, 욕실 1, 휴원(상태 깨끗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99만원 (관리비 없음) 시설비 3천만원 즉시 법회가능

02)993-0399
010-5205-0118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원주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290평, 대지200평, 전9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다실 4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3천(조절가능)

010-9070-9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 거리 호남선 옥과 IC 5키로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 적송나무숲 암자, 노천약사석불
- 가액 : 3억 5천
- 장난전화 하지 합시다

010-8224-1688

최고의명당사찰터안내

- 위치: 인정이 넘치는 마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583번지
- 옆에는 동해바다 송지호 앞에는 송지호 해수욕장
- 총 750평, 진입도로 4곳
- 가액 : 평당 30만원

010-2344-7304
02)449-5315

암 자 안 내

- 위치 :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 대지 전 합 1,380평
- 건 약 50평, 태양광 온수
- 사진 전송가능
- 상담후 저렴하게 드립니다
- 가액 : 1억 3,000만

010-3288-1317

포교원(삼존불)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 2층 약 27평
- 가능역에서 약 5분거리 위치좋음
- 가액: 1,000만원, 월 60 합 1,500만원(조절가능)

010-3247-55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4천만원

010-7161-2108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54-283-6293
010-4606-725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사찰 800평, 요사채 50평
- 창고 9평, 법당 20평, 삼신각 7평
- 경관 좋음, 남향, 넓은 주차장
- 가액 : 2억 4천 5백만원

055)583-9635
010-8676-9635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신녕 1075번지외 5필지
- 등기상 3천평이나 실평수4천여평임
- 가옥 60여평 한동
- 현장 대형차 진입
- 사계절 계곡물 흐름
- 가액 : 4억(절충가)

010-6253-3107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양양읍 근처 한적한곳
- 잘 보존된 기와 한옥 1동
- 부속건물 2동 상수도 입식주방, 수세식 화장실
- 대중교통 편리지역
- 가액 : 4,500만원

010-8899-88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 평수 : 40평, 3층 건물중 2층
- 쑥뜸, 창고 6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5451-60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 7천만원)
- 불사관계로급양도

010-5019-5385

사 찰 안 내

바다 근처 예쁜 사찰들

- 위 치 : 동해, 남해, 거제도 바닷가
- 총부지 : 동해 약 600평, 남해 500평, 거제도 약 400평
- 건 물 : 법당, 산신각, 용신각(용왕당), 요사채 등등
- 가 액 : 동해 2억 5천, 남해 2억 5천, 거제도 3억 5천
- 조망권 : 바닷가 200m이내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전망
- 전, 월세도 가능함 (거제도)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친환경 삼베타올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6〉 위빠사나 수행

즐거움에 대한 집착 벗어나자



위빠사나에 들어가며

나는 현재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을 끝내지 못했다.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물질과 정신, 연기의 무상, 고, 무아의 특성을 보는 데 초점을 둔다. 물론 연기를 대상으로 할 때는 연기하는 물질과 정신의 특성을 본다. 사실 물질 수행이나 정신 수행을 하는 동안에도 위빠사나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궁극 물질과 궁극 정신인 마음, 마음부수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물질과 마음, 마음부수의 특징인 무상, 고, 무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물질과 정신, 연기 수행과 위빠사나를 나눈 건, 물질과 정신, 연기 수행의 초점이 무상, 고, 무아를 보는 데 있지 않고 물질과 정신, 연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 있기 때문이다.

위빠사나를 하기 전에 물질, 정신, 연기의 요소를 4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 수행을 한다. 4가지 측면이란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말한다. 특징은 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기능은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이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타남은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방법, 나타나는 모습 또는 결과의 모습이다. 가까운 원인은 의존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이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물질, 정신, 연기를 정의하고 이해한다.

물질은 존재를 구성하는 5온 중 색온이며, 모두 28가지다. 이 28가지 물질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형상, 소리, 냄새, 맛, 영양소, 눈 감성물질, 귀 감성물질, 코 감성물질, 혀 감성물질, 몸 감성물질, 심장토대, 남성 물질, 여성 물질, 생명기능, 허공의 요소, 몸 암시, 말 암시, 물질의 가벼움, 물질의 부드러움, 물질의 적합함, 구체물질의 생성, 구체물질의 상속, 구체물질의 쇠퇴, 구체물질의 무상함이다. 이 물질들을 4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이해한다.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다. 마음은 식이고 식온이다. 마음부수는 52가지인데 이것을 수온, 상온, 행온으로 분류하면 느낌은 수온이고, 인식은 상온이며,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부수는 행온이다. 이렇게 정신을 수온, 상온, 행온, 식온으로 분류하여 각 온에 속하는 마음, 마음부수를 4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먼저 식온부터 보겠다.

식온의 '식'은 마음이다. 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재생연결, 바왕가, 5문전향, 5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유익한 자와나, 해로운 자와나, 등록, 의문전향, 죽음의 마음. 이들 마음을 4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이해한다.

수온은 느낌이다. 느낌은 육체적 즐거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평온의 5가지가 있다. 느낌도 마찬가지로 4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이해한다. 수온의 나머지 요소도 이와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행온에 속하는 마음부수는 식과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 부수다. 그 마음부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접촉, 의도, 집중, 정신적인 생명기능, 주의,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결정, 정진, 희열, 열의, 믿음, 마음챙김, 부끄러움, 두려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정신적 몸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 정신적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정신적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정신적 몸의 적합함, 마음의 적합함, 정신적 몸의 능숙함, 마음의 능숙함, 정신적 몸의 올곧음, 마음의 올곧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연민, 함께 기뻐함, 통찰지의 기능, 어리석음, 부끄러움 없음, 두려움 없음,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의 50가지다.

마지막으로 연기의 요소다. 즉 무명, 행, 식, 정신, 물질, 6가지 감각장소, 접촉, 느낌, 갈애, 취착, 존재,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다.

위빠사나– 무상, 고, 무아 보기

물질, 정신, 연기를 4가지 측면에서 정의함으로써 위빠사나의 대상이 되는 물질, 정신, 연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작업을 마친 후에 위빠사나를 한다.

위빠사나는 궁극 실재인 물질, 마음, 마음부수, 연기의 특성인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다. 나는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위빠사나를 했다. 이 수행에서는 깔라빠 내의 물질, 즉 속성 혹은 성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 깔라빠는 궁극 실재인 물질이 아니다. 깔라빠는 물질이 모여 있는 것이다. 8가지 물질이 모여 있는 깔라빠도 있고, 9가지 물질이 모여 있는 깔라빠도 있으며, 10가지 물질이 모여 있는 깔라빠도 있다. 깔라빠 내의 물질인 지, 수, 화, 풍, 형상,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성 물질, 감성물질, 심장토대, 소리의 특성인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땅의 속성인 단단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때까지 관찰한다. 단단함의 생멸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물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무상이다.' 하고 결정을 한다. 그 결정이 의문전향이다. 의문전향 후 자와나가 7번 일어난다. 의문전향과 자와나의 대상은 물질이므로, 물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문전향과 자와나에서 본다. 그것이 분명하면 물질이 무상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대상이 물질에서 마음으로 바뀐다. 그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 그런 후에 아는 마음도 무상이라고 결정한다. 그러면 아는 마음을 무상으로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여 의문전향과 자와나가 일어난다. 무상이라고 아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다시 또 무상이라고 아는 마음이 무상하다고 결정을 한다. 그 마음을 대상으로 위빠사나를 한다. 이렇게 앞선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위빠사나를 한다. 내 경우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사라지는 것만 계속되었다.

무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물질이나 정신이 무상한 것이 고(苦, 괴로움)다. 무아는 물질과 정신에 대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궁극 실재인 물질과 마음, 마음부수, 연기가 무상, 고, 무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무상, 고, 무아와 반대되는 생각인 법(法)이 계속되고 즐겁고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물질 · 정신 · 연기 '정의' 내려야
'무상, 무아, 고' 이해 가능
위빠사나 수행하는 이유는
사물 속성 그대로 아는 것
궁극 존재 관찰해 허상 물리쳐
괴로움 거부 대신 수용해야

이렇게 나는 물질의 무상, 고, 무아를 보고 난 뒤 그것을 보는 정신을 대상으로 무상, 고, 무아를 보는 위빠사나를 했다. 그랬더니 정신 인식과정의 마음과 마음부수의 무상, 고, 무아를 보고 그것을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무상, 고, 무아를 보는 위빠사나로 넘어갔다.

연기를 대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다. 연기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의 무상, 고, 무아를 보고 그것을 보는 마음의 무상, 고, 무아를 보는 위빠사나를 한다.

이렇게 물질과 정신에 대한 위빠사나를 경험한다. 물질과 정신의 위빠사나 지혜가 깊어지면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점

위빠사나 수행은 사물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사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를 이루는 몸과 마음이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 몸과 마음의 속성, 다시 말해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

위빠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이루는 근본 요소를 가지고 한다. 몸은 궁극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궁극 정신인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다. 위빠사나 수행에서 궁극 물질과 궁극 정신으로 구성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궁극 물질과 궁극 정신이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궁극 물질과 궁극 정신의 속성을 보기 때문에 모든 허상을 물리칠 수 있다. 물질과 정신이 빠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괴로움'이고, 몸과 마음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아'다. 몸과 마음은 자체의 법칙인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일 뿐, 우리의 생각이나 바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은 전혀 없다. 상황이 이렇기에 괴로움은 불가피하며, 불가피한 괴로움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에 저항해 봤자 스스로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괴로움만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요즘 서양의 정신치료에서도 불가피한 괴로움과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을 구별하여 후자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일을 한다. 무지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다. 이렇듯 판단의 기반이 허술하니 후속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본질을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알게 되면 자연과 같이 된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면 그에 맞게 몸과 마음을 대한다. 몸이 계속 바뀌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괴로움이 불가피하다고 알면 몸의 괴로움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몸이 괴롭다고 마음까지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통제할 수 없다. 괴로울 만한 상황이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일을 벌여 더한 괴로움을 자초하는 대신, 그러한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파지도록 하고,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더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벌어질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괴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괴로운 그 순간에 알 수 있으면 괴로움을 보는 것이 달라진다. 그렇게 알고 보는 것이 우리를 덜 힘들게 한다.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다. 보통 우리는 즐거운 것이 사라지면 그 자체로 괴로워하며 후유증에 시달리지만, 즐거움도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즐거움에 매달림으로써 일어나는 고통을 덜 겪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면 살아가는 것이 달라진다.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다 그러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동요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유다. 수행은 종교의 측면이나 영성의 측면이 아닌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끝〉

이 글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죽림사
- 법 명 : 혜안(손정모)
- 주 소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007번길 32

- 사찰명 : 바름정사
- 법 명 : 행화(백상욱)
-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서길 30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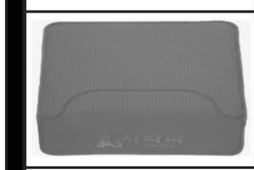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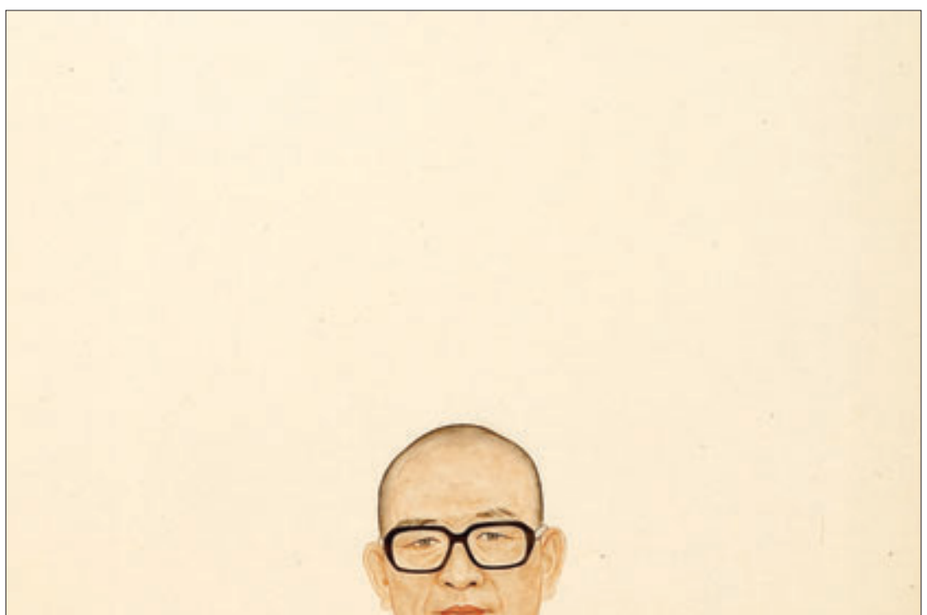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송담 스님

번민과 고뇌 '자기승화' 계기로 작용



송담스님, 143×74, 종이에 수묵 채색, 2015

송담 스님을 그리기로 하였다. 경허, 만공, 전강 스님의 선맥을 잇는 우리시대의 대선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을 친견할 기회가 없었다. 더욱이 용주사의 사태로 스님께서 조계종단에 탈종선언을 한 직후여서 더욱 뵙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서로 마음을 통하는 지인으로부터 송담 스님께서 인천 용화사에서 결제 법문을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다.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다음날 용화사를 찾았다.

용화사 법보전은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건물 밖의 복도는 물론이고 계단 아래에까지 스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대선사의 위용을 실감했다. 스님의 법문이 어떠하기에 이토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 의아했다.

법문 시간이 되자 송담 스님께서는 법상에 오르셨다. 그리고 주장자를 높이 들더니 사방을 향해 들어 보이면서 대중들의 눈을 살피셨고 이내 법상을 내리쳤다. 법당 안 밖은 숙연했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듯 살아있는 에너지로 충만해 보였다.

스님의 법문은 '이 뭐꼬?' 에 대한 화두였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공간을 우렁우렁하게 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스님의 눈은 우아하게 보였으나 동공에는 심지가 있어 사람을 쏘아보는 기백이 가득했다.

법문이 끝나자 다시 주장자를 높이 치켜들고 사방을 휘둘러 대중들의 뺨을 보시더니 다시 꽝 내리치셨다. 그 소리는 스님의 법을 이해하는 자를 아직 찾지 못한 신호이면서 법구망신의 분발을 촉구하는 가르침이었다.

법상에서 내려 걸어 나오는 순간 나는 스님 앞에 나가 잠시 서 계실 것을 요청 드렸다. 그러자 송담 스님께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시며 누군지도 모를 사람에게 눈길을 맞추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 순간은 3분여로 매우 짧았지만 스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세심히 관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의 왼쪽 뺨에서는 한량없는 감정이 교차되고 있다. 분명 스님은 낮은 자세로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자에게 미소를 보이셨지만 눈빛의 파장은 상감 형식으로 내외를 꿰뚫고 있는 듯 했다. 스님의 빛은 그만큼 강력했다. 다시 스님의 손을 관찰했다. 곱디고운 손이었지만 손 마디마디에는 굳은살이 박여 있었다. 이는 결코 스님의 구도 행위가 편안하지 않은 지난한 과정을 관통했을 것이라 짐작하게 했다.

나는 스님을 뵌 이후 스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스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스님의 얼굴을 그렸다. 스님의 인상은 순하다. 전체적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한 좋은 가문의 어진 인품을 타고 난 것으로 추정된다. 눈은 성현의 눈맵시처럼 귀티 있었지만 눈빛은 강하다. 눈두덩은 두툼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숨어있다. 강한 신념이 읽혀진다. 안경은 도수가 없는 보안경이다. 아마도 눈물샘을 조절하기 위한 수정 안경이거나 아니면 눈빛이 너무 강하여 그 빛을 감추기 위한 도구인지도 모른다.

눈썹은 아래로 향하고 있으며 숱은 풍성하다. 이런 눈썹의 형상은 스님의 인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도가의 상을 연상하게 한다. 코는 선이 굵고 곧추 서 있다 그리고 코 선이 뚜렷하며 끝에는 기운이 모여 있다. 코 망울은 맑고 수려하다. 인중은 선이 숨어있어 청수한 이미지를 자아내게 한다. 입은 얇고 섬세하다. 형태만으로 보면 말을 아끼는 과묵한 성격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신중함도 느껴진다.

턱은 넓고 선이 뚜렷하다. 하악골의 모습은 남성적인 의지의 소유자임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경외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귀는 아주 크고 길며 두툼하다. 특히 귀가 서 있고 귓불이 복스러워 상대를 배려하는 겸손이 몸에 배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친견했던 스님의 인상을 되 뇌이며 그림을 그려 나갔다. 평소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 싶었다. 그 인상 속에는 깊이 있게 들여 다 보지 않으면 읽어내기 어려운, 아름다운 번민과 고뇌의 순간들이 읽혀졌다.

3분 간 스님 눈 맞추며 관찰
아름다운 번민과 고뇌 발견
과거 손가락 다쳐 고통 받던 중
無(무)자 화두 깨우쳐

스님은 분명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훌쩍 뛰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잘은 모르나 이 어려움이 스님이 모든 공안을 타파한 것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나는 광주 용화선원에 찾아갔다. 목적은 원감스님을 만나 송담 스님의 초상을 그리는데 대신 모델을 서 줄 것을 부탁드리는 거였지만, 기실 송담 스님에 대한 살아 온 과정과 구도 행적 그리고 깨달음을 위한 무아의 경지를 묻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원감스님이신 성조 스님은 스승의 그림을 위해 최선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이 스님의 분신처럼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양 주저하였다.

모델을 취해준 후 선방수좌 스님 네 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스님에 대한 일화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실화들은 스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송담 스님이 넷가에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다. 다친 손가락의 깊은 상처는 지혈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 손가락 끝을 묶어 천정에 끈으로 메달아 누워있었다. 이때 스님은 불현듯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순간 無(무)자 화두를 깨치게 된다. 그러면서 1700 공안이 열리는 '확철대오(廓徹大悟 : 확연히 꿰뚫어 크게 깨우침)' 의 순간을 맞는다. 스님의 나이 31살 이었다. 이후 전강 대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게 된다.

달마대사로부터 전법을 이은 혜가 스님도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불교뿐 아니라 유가인 맹자 고자편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늘이 장차 대임을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마음과 뜻을 괴롭히며 그 힘줄과 뼈를 고달프게 하고, 그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곤궁하게 하며 행하는 일마다 자신의 의지와 엇갈리게 한다. 이로써 마음을 분발하게하고 인내심을 강하게 하여 지금까지 그가 능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 로마서에서도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한 세월이 당시엔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바로 그 고통이 예술적 자양분으로 되돌아와 창작의 원천이 된다.

번민과 고뇌는 인간을 육체 뿐 아니라 정신마저 피폐화 시킬 정도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만 때로는 새로운 자아에 눈뜨는 자기승화의 계기로 작용한다.

송담 스님께서 손가락을 다쳐 無자 화두를 깨친 것은 수행의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스님의 초상화는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神, 53×70, 종이에 수묵, 2015
동양 예술의 정수는 神이다 그러나 정신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까지 포함한다.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랑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함께 행복해지는 삶, 함께 부처되는 삶



석길암
금강대 인문한국(HK) 연구센터 교수

최근 손에 잡고 있는 화두가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해져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 대부분은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며 오늘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대부분은 내일의 안온함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의 저변에는 '내일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을 버티기는 하지만, 과연 내일은 좋아질까 하는 불안감이 쉴 새 없이 엄습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필자는 그런 생각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행복해야 한다' 는 것이 필자가 내린 화두의 결론이다. 도대체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내일을, 아니 당장 오늘을 살아갈 삶의 밑천이 없는 까닭이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을 버티게 만들지만, 오늘 그리고 지금의 행복은 지금의 삶도 그리고 내일의 삶도 미리 장밋빛으로 바꾸어놓는 마술을 부리기 때문이다.

불교는 내일을 기약하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수많은 선사들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를 외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불교는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복을 말한다. 그래서 내일의 살아가는 조건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오늘 당장의 살아가는 조건을 바꾸는 데도 열심인 종교가 바로 불교이다.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고 한다.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알아듣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사실은 '당신은 이미 부처인데 왜 부처답게 살지 못하느냐' 는 이야기이다. 부처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체의 고통을 떠난 존재이고, 일체의 고통을 떠나는 방법을 가르친 스승이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부처인 당신이 부처답게 살지 못하느냐고?

우리는 그 다그침을 살짝 외면한다. 어떻게? '저는 아직 중생인데요.' 이다.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아직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나는 아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거기에는 내가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존재이고, 내가 보살핌을 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고, 내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인색하다. 이래서야 불자가 아니고 중생투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우리는 그 타성에 젖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 중생이 중생처럼 사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생각에 한줌의 부끄러움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불교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이라 가르친다고 거리낌 없이 뱉어낸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누구나 이미 부처라고 가르친다. 부처인데 왜 중생처럼 사느냐고 다그친다. 그럼 부처와 중생은 무엇이 다를까? 부처는 한량없이 나누는 존재이고, 중생은 나누는데 한량없이 인색한 존재라는 점이 다르다. 나누고 사는 것이 부처라는 얘기이다. 신통력을 부려 한 방에 내 문제 당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처가 아니다. 지금 처해있는 조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부처라는 이야기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마음나눔 못지않게 물질나눔도 중요하다. 종교는 고래로 그러한 마음나눔과 물질나눔의 마지막 안전판 노릇을 역사 속에서 해왔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에는 그 마음나눔과 물질나눔의 많은 조건을 국가와 제도가 대신한다. 그렇지만 국가와 제도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고 놓치는 부분 역시 적지 않다.

적어도 불자라면, 국가와 제도 그리고 사회가 나눔을 제대로 하도록 감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불교답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데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 오늘은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이다. 오늘 행복해져야 내일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나누어 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마음이든 물질이든 먼저 앞서서 나누어야만 오늘 행복해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지금 눈앞에 닥친 팍팍한 삶도 마찬가지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누고 헤치고 바꾸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부처다.

발언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47명의 필진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진보 · 보수 · 중립 진영 패널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진영싸움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도법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진정한 사실과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 현실은 사실과 진실을 물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결과 불이 났는데도 불을 끄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그 출발은 사실과 진실을 묻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죽을힘을 다하여 사실과 진실을 물어야 한다.

역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낼 수도 없고 잘라내려고 해서도 안된다. 누군가 역사를 잘라내려고 한다면 그는 삶을 통째로 파괴하고 부정하는 사람이다. 마땅히 역사는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드러난 사실과 진실을 부정하고 자기주장을 한다면 그는 진정한 우리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온 명백한 진실인 우리 역사를 보편적 상식인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고 그 진실을 균형 있게 기술해야 마땅하다. 그 길만이 우리 삶과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념싸움, 진영싸움을 끝내는 분명한 길이다.

국정화, 민주주의에 배치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다. 역사 관점을 획일화하고 다른 생각을 배제하겠단 것은 다양성과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더 두려운 것은 만약 이 문제가 이대로 진행되어 국정 교과서가 나왔을 때 야기될 혼란과 부작용이다. 아이티 문명과 문화의 시대에 흘러넘치는 정보에 과잉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획인된 역사를 강요하는 것은 현재의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안타까운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치적 진영논리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령층이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내용과 상관없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내용의 중요성이 진영에 갇혀버려 왜곡되기 때문이다.

더 넓고 크게 멀리 바라보며 편협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길 바란다. 진영의 논리로 가지 않길 바란다. 다른 것에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그저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길 바란다.

역사교과서 좌편향이 문제다



서경석 목사

국정화 문제는 본질적 이슈가 아니다. 진짜 이슈는 현재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이냐 아니냐, 좌편향의 정도가 국정화를 할 정도로 심각하냐 아니냐가 이슈다.

현재 국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분적 수정이 불가능하고, 통째로 다시 써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관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좌파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후의 역사발전을 보며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바른 역사책을 쓸 것인가를 경쟁해야 한다. 제일 먼저 역사전쟁에서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 그 대신 학계의 역사전쟁은 계속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좌파가 주장하는 '대안교과서' 를 찬성한다.

이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좌파 역사학계에서 훌륭한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이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社說

도봉서원 복원 불교계와 협의해야 된다

3년전 도봉구가 도봉서원 복원을 하면서 벌인 발굴 조사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보라 해도 손색 없는 불교 유물 77점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유교 서원터에 불교 사원의 유물이라니. 이유가 있었다. 도봉서원은 정암 조광조를 추모하고자 선조 6년(1573) 창건됐다. 하지만 고종 8년(187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명맥이 끊겼고 1972년 일부가 복원됐다. 이 도봉서원은 영국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유물이 나온 곳은 큰법당으로 추정되는 중심 건물터다. 출토 당시 유물들은 대형 청동솥에 담겨 있었다. 불교계는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유림이 영국사를 훼손하고 도봉서원을 세운 증거라고 해석한다.

불교계는 도봉서원의 복원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와 문화재청, 도봉구청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원의 존재를 외면한채 서원을 복원하는 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면 보류된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최근 불교계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봉구청측에 따르면 불교계를 배제한 채 12월 7일 이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불교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순수한 학술 목적의 세미나가 아니라 복원 타당성을 관계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유교계측의 여론몰이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유교계는 분명 이 곳이 고려시대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전면 재검토돼고 이에 앞선 철저한 연구 및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영국사의 존재가 다시 묻히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교과서 불교 서술 확대 환영한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역사 · 도덕교과서의 불교 서술이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본지가 입수한 교과서 집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삼국시대' 단원에서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의 불교수용 사례가 자세하게 서술될 전망된다고 한다. 특히 '불교가 수용되어 중앙집권국가의 새로운 이념이며 종교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고 집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삼국이 왕권 강화를 위해 이용한 율령 반포 · 관등제와 함께 불교가 중앙집권체제 성립에 끼친 영향을 인정받게 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고려시대의 경우 불교 · 유교문화의 특징과 다양성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분했다. 이 단원에서 눈에 띄는 집필기준은 '천태종의 성립과 결사운동 · 조계종의 발달에 대하여 서술한다' 는 대목이다. 현행 교과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학생들이 한국불교의 역사적 기반이었던 양 종단의 활약상을 배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도덕교과서에서 불교사상의 특징을 △연기적 세계관 △주체적 인간관 △평등의 세계관으로 정의해 모호함을 나타냈던 부분은 '자비의 윤리' 로 변경됐다. 또한 한국불교의 특징은 통불교적인 관점에서 화쟁 사상과 선교 통합이 강조되도록 서술했다. 이는 그간 불교계가 제시한 대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불교의 인간관 및 세계관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교과서 서술 변화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산하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의 제안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가져온 성과이다. 그동안 교과서 불교서술의 오류를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에 개정방안 담은 기안지 발송 등 교과서 불교서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교과서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지식 기준이다. 교과서 내 불교 서술에 대한 부분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 하다. 집필 기준에 따른 양질의 교과서가 발간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재범 없는 '미란다 불교 민영 교도소' 건립 본격 추진

보편적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재단법인 진각미란다 이용도 이사장

재범 없는 '미란다 불교 민영 교도소' 건립 추진은 불국정토 건설의 장을 여는 자비와 희망의 메세지!

부처님께서 평생 길에서 맨발로 법을 전했듯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재소자들을 부처님 연기법의 선근으로 교화하고, 다시는 악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출소자에게도 배려와 나눔, 관심과 자비로서 새로운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소통하고 화합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촉진하고 있다. 교도소의 과밀화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님의 대 자유사상과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교정포교에 새로운 장을 펴나가고자 불교계 민영교도소 건립을 위하여 오래 전 재단설립과 함께 필요한 재원 마련과 적정한 부지 선정 등 만전을 준비를 거쳐 이제 민영교도소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진각미란다 이용도 이사장을 만나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설립 배경 및 추진방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과거에 묶여 "범죄학교" 된 숙명의 교도소 개선안 마련되어야

정부의 교도소 민영화 방침에 따라 기독교에 이어 불교 민영교도소 건립을 추진하여온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교도소는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하다보니 결국은 그 자리가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되고,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재범률도 7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20대 전후의 떼강도 대다수가 감방에서 만나 범죄 수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워 출소한 이후 몰려다니는 이른바 '감방동기생' 이 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보다 나은 교정행정과 기술 및 교육 등으로 수감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준비로 수감 시에는 기업체와 상호 유효노동력 체결을 통해 기술 습득 및 기본생활 자금 마련으로 출소 후 자립의지를 키워 재범 없는 교정교화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 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 경험자체가 사회 부적격자라는 낙인이 찍어 출소자의 사회정착이 힘들다면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범죄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도행정이 교정행정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형자의 교정교화의 성공으로 나타나는 재범률의 축소와는 반대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재범률의 수치는 아직도 과거의 '형무소 수준' 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또한 교도소에서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는 수형자들의 교화자립에 중점을 두고, 불교적 마음수련과 사회 적응도를 온전한 사회 진출을 돕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는 이 이사장은 양질에 수용생활을 완성하기 위하여 명상수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교적 가르침에 의한 기초적이 마음수련으로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응도를 높이고, 사회기초 정착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여 기술적 종교적 인성을 높여 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 · 육성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는 그 운영에 있어서 민간 경영 기법과 회계 관리 방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방안을 강구하고, 수용자 관리, 교화, 상담, 교육 훈련 등에서 민간의 탄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을 위함에 두고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미국의 CCA와 WCC를 모델로 한 미란다 불교민영교도소 재범 없는 민영교정 행정 마련"

이 이사장은 " 범죄재범의 제로화 방안 –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 는 미국의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와WCC(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를 모델로 하여 수용 기간 동안 일정의 금액을 저금해 출소 후 사회정착 기초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조된 기술력으로 사회적 생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계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조금도 범죄적 마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며 본 시설의 운영방향에 따라 제2, 제3의 생산성을 이루는 민영교도소를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면 수용인 들이 놀고 있는 인력이 아닌 생산성을 추구하는 수용생활로 이끌어 사회의 기초적 성장생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장은 "범죄자라 외면하지 않고 가족과 형제처럼 따뜻하게 받아드릴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첫 걸음이다"라며 사업추진 목적을 말했다.

국내 첫 민간교도소 경기여주 '소망교도소' 의 모범사례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는 사회적 비용을 낮춘 효과를 인정받아 민간교도소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교도소 이지만 구영교도소에 비해 10%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범률 완화로 인한 사회간접비용과 운영비 절감효과를 합치면 지금까지 약1,110억 원의 절감효과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너무 좋은 환경이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소망교도소 소장은 "재소자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불만만 키운다면 교도소는 범죄 수법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키우는 범죄학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진정한 교화가 이뤄지는 교도소가 필요한 이유" 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불교 미란다 민영교도소' 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방안을 제도화하여 과밀도 형식에 수용생활과 비생산적 운영 방안을 활기 넘치는 생산적 수용 시설로 완성시키기 위한 것" 이라하며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방안을 프로그램화 하는 한편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가장 어두운 자리에 포교의 문을 열고 어둠이 아닌 밝음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우리 자신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장학재단 운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 전개

우리의 현실은 날로 발전하는 물질문명과 정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정신문화가 파괴되고 도덕성 해이됨에 따라 규범이 흐트러지고 가치관이나 도덕정신의 결핍으로 각종범죄와 무질서,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이사장은 사회와 국가의 장례를 위하여 새로운 정신문화 창조와 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 충효대상, 시민대상, 위대한 한국인 대상 등 진행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함으로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경사 변순기 · 봉암 변진설 기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충 · 효 · 예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역사의식 고취와 문화계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불교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는 종교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한다. "현 시대의 종교의 타락과 시대정신의 상실은 세상을 더 황폐화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종교고유의 정신적 가치를 회복한다면 보다나은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도소는 범죄학교가 아닌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참회의 현장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수행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교정포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불교계의 한 차원 높은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밝혔다.

Ⅰ. 민영교도소의 의의

1. 민영교도소의 역사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민영교도소는 크게 미국식과 브라질식으로 구분되어진다. 미국식의 민영교도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출발한 기업형태이다. 미국의 민영교도소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CCA와 WCC는 영국과 호주 등지에 자사 망을 갖춘 다국적 교정회사로 미국에서는 민영교도소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로 불리는 사업이다. 브라질식의 민영교도소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의 대표적 모델로서 '휴마이타 종교교도소' 로 1984년 설립되었다. 종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교도소는 재범률이 4%에 불과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국내 첫 민영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브라질형 교도소를 모델로 하고 있다.

2. 민영교도소의 추진 배경

가. 교정수요의 확대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촉진하고 있다. 교도소의 과밀화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약 47개 교정시설의 정원이 4만 8000여명인데 반해 수용자의 수는 약 6만 여명이 넘음으로써 수용밀도 125%의 과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교도관의 수 또한 1만 2000여명에 지나지 않아서 교도관 1명당 수용자의 수는 1대 5.1정도이다.(이 수치는 행정 등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수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수용자를 관리하는 현장의 교도관의 숫자만으로 계산한다면 1대 5.1의 수치를 믿는 교도관은 거의 없다.)

나. 교정경비의 확대

수용인원의 증가는 교정경비의 증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더욱이 IMF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미리 책정된 예산으로 증가하는 수용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업무량의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을 낮게 하고 있다. 사실 교도소 한 개를 새로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350억~500억원이 드는 현실과 약 500명의 수용기준의 구금 시설에 드는 일년 예산이 약 50억~60억이 넘는 현실에서 민영교도소를 통한 민간 자본의 흡수는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 교정행정의 실패

지금의 교정이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적 여론과 더불어 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재통합이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재통합이론이란 범죄자와 범죄를 유발시킨 사회까지도 서로 상호간에 개선되도록 하는 이론으로 최근 강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이론의 일환으로 복지단체나 민간분야의 교정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Ⅱ.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추진 현황

1995년 전부터 시작된 기독교 교도소 움직임은 2001년 재단법인 '아가페' 가 출범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또한 경기도 여주에 6만여 평의 목장 부지를 구입해 2006년 8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교도소는 형기 1~7년 사이 초, 재범자 500여명의 남자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가페측이 교도소 건설과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을 맡게 되며 500여명 수용규모의 기존 교도소에 지급하는 재정의 약 90%선인 연간 45억~50억원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직원의 구성은 법무부가 7명의 감독관을 파견하고 100여 명의 직원과 1000여 명의 자원봉사들이 근무를 할 것이며 재범률을 4~5%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민영교도소에 관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과는 달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민영교도소 건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타 종교계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Ⅲ. 민영교도소 운영 관련한 쟁점

1. 교정행정의 전문성 문제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논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재범률일 것이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의 성공으로 나타나는 재범률의 축소와 반대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재범률의 수치는 현 교정행정의 실패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교정행정의 전문성에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도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로 인한 수용인원의 증가는 교도관에게 본연의 업무보다는 그 수용자들을 그저 지켜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마저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도소를 범죄를 학습하는 곳으로써 '학교' 등으로 칭하고 있으나 사회에 널리 보급된 인터넷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의 학습이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인권의 무분별한 주장으로 인하여 강력, 특이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교화권 마저도 적용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에 단지 수용될 당시의 상태로 출소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로 인한 교도관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교정의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애써 무시한 체 교정교화의 실패의 원인을 모두 교도관에 돌리고 그 대안으로써 민영교도소의 설립만을 주장한다면 이 또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 형벌권의 위임 문제

사회통제나 형벌권은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써 교정기관은 국가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형벌집행권이 민간에 의해서 행사될 때에는 법치국가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질서를 무시하는 풍토가 만연한 우리의 현실에서 본다면 이는 많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교도관은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국민을 대신해서 범죄자들의 형벌을 집행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공무원이다. 범죄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차원의 공적인 감정을 지닌 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들을 관리한다면 분명 어느 한쪽의 감정에 치우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민영교도소의 직원과 수감자의 위법적 유착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이것은 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당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3. 교정행정의 일관성 저해 문제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할 때 그 범죄자의 연령, 죄질, 범수,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약 47개소에 분산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 수용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용기준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한 수형자 특정종교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그 종교를 신봉하므로 그 시설의 수용을 원하면서 생기는 행정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종교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에 수용되고 보니 종교적 참여를 강조하여 싫증이 난 수감자가 본래의 시설로 수용을 원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특정 종교운영의 구금시설 수용에 부적합이라고 판명된 자가 법원에 그 결정의 부당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정 종교운영의 구금시설의 수감자가 다른 시설로 이감을 원했을 때 처리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종교적 자유, 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서 발생되는 행정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모든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이 모든 행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국가 지원 예산 범위에 따른 문제

사실 교정의 민영화는 사회의 법체계의 큰 변화임에도 국민적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민영교도소의 설립의 정당성의 하나로 현 교정시스템의 잘못만이 부각되고 나머지의 문제들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민영교도소의 운영 예산 문제이다. 정부는 현 구금시설의 500여 명의 수용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약 90% 이상을 민영교도소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니 그 규모는 연간 45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과연 운영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 지원 받는 시설이 민간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패한 교정행정의 대안으로써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영교도소가 국민적 관심사를 끌게 된다면 이 예산 지원의 문제는 국민에 의해서 성토의 도마위에 오를 것이 뻔한 것이다.

5. 종교적 침해의 문제

민영교도소에 수감될 자들의 조건엔 '특정 종교를 믿는 자' 란 규정은 없다. 이는 국가에서 시설운영 예산을 지원 받는 시설이 특정 종교적 색체를 띠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특정 종교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라면 이런 규정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용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형자의 종교적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 수용기준에 합당하여 수용되었으나 종교적으로 타 종교를 신봉하는 수용자의 종교적 침해, 종교는 신과 당사자의 내면의 대화임에도 시설운영 주체의 운영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더욱 깊은 종교적 신념의 강화를 강요함으로써 생기는 종교적 침해, 시설운영의 주체가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자신이 그 시설에 수용될 것을 원함에도 탈락된 수형자의 심리적 박탈감도 종교적 침해일 것이다. 국가운영 시설에서도 종교가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알고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종교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음은 개인이 갖는 종교적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 안 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6. 민영교도소에 대한 시민의 태도

가. 지역이기주의

벌써 민영교도소 설립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도소가 혐오 시설로 인식된 상황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갈수록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수용시설의 현대화, 증대화의 요구로 많은 수용시설이 필요한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핵 폐기장의 설립 과정에서 보았듯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밀어붙이는 결과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주었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 인권단체 등의 문제 제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를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이유로 "형벌 집행권이 민간에 의해 행사될 때에는 법치국가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 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 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민영교도소 실패를 예로 들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민영교도소의 실효성,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 등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으며 불교계 등의 타 종교단체는 특정 종교 단체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지는 법 제정 등에 반대를 해왔다.

7. 종교적 교정교화의 측정 문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라면 적법한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회 곳곳에 있는 종교 시설 등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적법한 기관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점을 인식한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종교 구금시설도 그런 곳으로 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곳이라면 그 세금으로 인한 사업의 실적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 운영에 투자되는 자금은 유형의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하지만 수감자의 교정교화에 투자된 자금을 유형의 자료로 산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출소자의 숫자의 자료화로 감화의 성공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신과 당사자의 내면의 대화인 종교적 깊이를 어떤 근거로써 자료를 산출하는데 가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편적 객관성 보다는 특정 종교의 교리라는 주관적 관점으로 흐를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교적 힘에 의해서 수감자를 교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상자를 흉악범, 강력범, 폭력범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민영교도소의 수감 대상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사실 교정교화가 필요한 사람 보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처음 실행되는 것 이여서 노하우가 없어서 그렇지만 노하우가 쌓이면 수용대상의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어떠한 실험적 모델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종교적 신념도 인간 그 자체를 뛰어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종교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8. 기타 문제

위에서 지적한 민영교도소 설립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노동력 착취문제, 국가지원금의 외의 시설 운영자금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의?공개와 예산 확보의 정형화, 국영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민영교도소의 직원의 노조, 임금 관련한 파업, 무기 사용 등 많은 논란들이 제기 되고 있다.

결 론

위의 글에서 교정의 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교도소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서술해 보았다. 이에 부족하지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 관행 및 사법체계의 변화

전체 수용자 중 미결수가 40% 정도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는 비율이 25%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적 위주의 수사관행은 마구잡이식 구속수사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도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 일 것이다. 또한 사법부도 보석제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과실범, 초범, 생계형범죄, 약물관련 사범 등의 범죄자에게는 각각의 범죄에 특성에 맞는 신중한 선고를 해야 함에도 양형의 길고 짧음으로 판결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전과자와 예비 범죄군을 양성하고 이로 인해 교정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정의 실패는 교정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체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관련 법률 체계의 완비

교정은 범죄자를 구금, 격리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공권력의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서 교정관련 법체계는 부끄러울 정도로 허술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과히 폭발적으로 향상된 국민의 인권의식은 교정을 인권의 사각지대란 오명을 갖게 하였다. 그나마 교정의 근간을 이루는 모법인 행형법 마저도 그 자의성과 임의성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늦기 전에 교정 법률의 체계를 갖추는 일은 중요하다. 인권의 신장에 맞춘 법률의 제정은 과거의 구태 연한 관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이는 교정의 민영화를 실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비해야 할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교정의 학문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교정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정학은 형법의 범주에 포함된 부수적 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학문연구의 미비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양상에 대해서 각각의 범죄자 처우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범죄의 수법에 따른 수사기법이 제시되고 법원이 그 판단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교정에 있어서 교화권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단어마저도 생소하게 생각하게 하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 교정에 중요한 것은 형벌 집행권과 교도관 교화권의 학문적 정확한 정의와 그것을 위한 행동 지침들이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지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정의되고 있는 현 상태의 교정에서는 어떠한 처방도 과거와 같은 답습을 할 것이다.

넷째, 교정의 개방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교정행정은 교정의 실패를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단연 선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중대한 오류로써 지금 우리 교정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밀폐된 조직에 민간의 참여를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국민들에게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일례로 한 TV프로그램에서 수형자에게 교도관이 폭행당하는 내용들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그러나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정말이냐 혹시 거짓으로 짜고 만든 것 아니냐 등 의문의 질문들이 대부분 이였다.(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현 우리의 교정의 실태임에 불구하고 말이다.) 구금시설이 이지경이 되도록 위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이런 사실들을 지금까지 감추다가 이제 공개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조직의 폐쇄성과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경직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정의 민영화가 이 실패한 교정의 대안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체 미봉책으로 실행되는 어떠한 처방도 무의미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정은 광의의 형사소송법이다. 즉 수사, 공소, 재판, 집행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부분의 집행으로 이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것이다. 비록 사회적 무관심으로 크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모든 법이 국민을 위해서 실행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왜 이런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지를 알리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교정의 시스템 정비에 관하여 우리는 이런 절차를 거의 생략했다.(국민을 위해서 실시되어야 함에도.)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의해서 밀실에서 토의가 행해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교정의 민영화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교정의 민영화가 사회재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실행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잊혀진 匠人 스님 찾아

문화재 파수꾼 최선일 박사



최선일 박사는 …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최선일 박사는 1990년 홍익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2006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원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강진청자자료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있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실관 감정위원으로 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1996년 강진 고성사 현주 스님으로부터 ‘견철(見哲)’ 법명을 받았으며 2013년 현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으로부터 ‘고불(古佛)’이란 호도 받았다. 저서로는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연구〉와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조소〉가 있으며 논문은 〈조선후기 전라도 조각승 색난과 그 계보〉,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과 조각승 계찬〉 등 40여 편을 썼다.

성보문화재를 접하다 보면 문득 생기는 의문이 있다. ‘과연 이런 작품은 당시에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이다. 우리는 사찰에서 불상과 불화 등 수많은 성보들을 접하지만 정작 이런 성보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그 대부분이 스님들이 만들었음에도 이런 스님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이런 스님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이가 있다. 바로 미술사학자 최선일 박사다. 최 박사는 20여 년 동안 전국 사찰의 성보를 만든 옛 스님들의 발자취를 조사해 그들이 빛을 보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7~19세기 조선시대 곳곳의 사찰에는 불상과 불화를 만든 조각승과 불화승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려 장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잊혀진 ‘승장’이죠. 수행과 함께 장인으로도 높은 경지에 오른 이들이었습니다.”

11월 2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에서 만난 최 박사는 먼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최 박사는 “예로부터 사찰에서 불사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으며, 승장(僧匠)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불상을 좋아한 불심이 승장 연구로

최 박사가 ‘승장’에 대해 주목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1997년 전남 강진청자박물관에 학예연구사로 일하게 된 최 박사는 여가시간을 활용해 인근 사찰을 답사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처님 모습이 나온 사진을 스크랩할 정도로 부처님 상호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사찰을 돌아본 최 박사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인근 사찰의 불상이 비슷했던 것이었다. 한층 강해진 궁금증에 불상을 꼼꼼히 살펴본 최 박사는 동일한 조각승이나 같은 계보에 속한 스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됐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나 찾아보았어요. 승장에 대해 조사한 것은 산별적으로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2001년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일하게 되며 승장에 대한 기록물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

“성보를 문화재로 지정할 때 근거자료가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조선후기 작품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연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문이나 화기에 작가의 이름이 있더라도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근거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할 만큼 훌륭한 성보인데도, 자료가 없어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최 박사는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수백 년 전 활동한 승려 작가들의 기초자료 조사가 끝나 이에 기반해 개별 승장들에 대한 평전,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00년 12월 17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조각승 색난 스님의 활동과 불상 양식을 학계에 처음으로 알리는 논문 ‘조선후기 전라도 조각승 색난과 그 계보’를 쓴 이후 최 박사는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짬짬이 전국 사찰 300여 곳을 돌았다.

각 사찰에 전하는 사적기(寺蹟記)라든가 사적비(寺蹟碑), 상량문과 탑비 등의 자료를 모조리 훑었다. 또 불상 발원문, 불화의 화기, 사찰의 사적기, 비문 금석문 등이 있다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사진을 찍고 글로 옮겼다.

“한번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평균 세 번 정도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 시 사찰 스님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사정을 설명 드리죠.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찰 입장에서도 생판 모르는 학자가 문득 찾아와 문화재를 보자고 하면 허락하기 어렵죠. 수차례 방문해 사정을 해가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갔지요.”

조각 · 공예 · 회화 등 망라한 사전 펴내

홍익대 미술사학과 선배인 안귀숙 박사가 최 박사에게 큰 도움이 됐다. 함께 승장들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6,000명에 달하는 스님 장인들의 실체를 밝혀냈다. 최 박사는 안 박사와 함께 이런 내용을 정리해 학계 최초로 〈조선후기 승장 인명사전〉을 펴냈다. 2007년 ‘불교조각’ 편을 시작으로 2008년 ‘불교회화’, 2009년 ‘공예와 전적’, 2010년 ‘건축과 석조미술’ 편이 나왔다.

이 인명사전은 1600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시대 성보를 만든 승장들의 주요 창작물과 활동 내역을 처음 밝힌 귀중한 자료다. 최 박사는 “기초자료 2,000여 건을 바탕으로 10년 넘게 자료를 갈무리했다”고 했다. 건축가로 활동한 스님만 1925명에 달하고 직접 석비 등을 세운 도편수 스님만 632명이 넘었다.

10년 넘게 전국사찰 300여 곳 답사
匠人 스님 ‘승장’ 6000명 실체 밝혀
문화재 근간 밝히고 환수에도 기여
재일교포 정조문 회장, 다큐영화 제작
불교문화재센터 건립 서원 세워

최 박사는 ‘승장’의 위상이 당시에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대강백 등의 표기가 있는 화기 등에서 당시 스님들이 여러 분야에 통달했으며, 그 역할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사찰 불상의 발원문과 사적기 등을 보면 대부분이 스님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들 스님들의 작품 경향과 사제간의 계보 등을 밝히는 일은 불교미술사의 저변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근간을 밝히는 작업입니다.”

최 박사는 불교의 흥기였던 신라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억불숭유의 시기였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맥을 이어왔다고 설명한다. 당시 유학자들이 공예를 천시했기에 스님들이 있어 그 명맥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런 승장들의 맥은 왜 잊히게 됐을까. 최 박사는 조선 후기 가람정비가 완료되며 신규불사가 줄어든 것을 주요원인으로 짚었다.

“임진왜란 전후 사찰 중창과 중건은 승장(僧匠)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이후 후기로 가며 점차 민간이 이를 맡게 됩니다. 이판과 사판의 구분이 강해지고, 승단 내에서도 승장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또 불상과 공예품이 사찰마다 이미 구비돼 있어, 승장으로 대변되는 전문장인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지요. 이후 불사에서는 일반 민간의 장인들이 본격 참여하게 됩니다.”

최 박사는 승장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은 이들이 지닌 원력을 현재의 불자들이 이어가게 하는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불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주한 이의 원력과, 평생을 불모로서 바친 장인의 원력이 함께 녹아든 결과입니다. 이런 원력 하에는 스님과 대중들의 구분이 없었어요. 이런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재 가치 재조명하는 근간

최 박사는 현재의 법맥, 강맥과 같이 불화와 조각 등에도 계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제식으로 어른 스님이 젊은 스님에게 이를 전하고 이것이 유파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화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아직까지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바가 없어요. 제 남은 과제가 이런 맥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최 박사는 이런 장인과 맥을 중심으로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재조명하게 되는 효과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예로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한 청허당대사 진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진영은 화기가 없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승장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703년에 행규 스님이 쓴 〈용천지〉에 당시 의상, 보각, 청허, 송운, 동운 등의 진영을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영이 양식적으로 시기가 앞선 작품일 것으로 추정되고 문헌이 남아있어 같은 작품으로 보아도 충분합니다. 이를 토대로 1700년대 전반에 그려진 다른 진영과 청허당대사 진영을 비교하면 18세기 초반 진영의 양식적인 특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범어사 칠성도와 미국 포클랜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도 운문사 신중도의 제작 시기와 사찰 등도 최 박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밝혀냈다.

“당시에 사찰에서 불화를 조성할 때 유명한 스님들을 초빙하면서 여러 점을 함께 만들었죠. 포클랜드박물관에 소장된 청도 운문사 신중도의 경우 화기가 잘려진 상태로 일부 글자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운문사, 운흥사 신중도의 화기와 대조하면 화기가 동일했죠. 동일 시기에 한 스님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승장 조명은 문화재 환수에도 활용

이런 최 박사의 노력은 지난 2014년 5월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인사동 마이아트옥션에 출품된 불교문화재를 조계종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등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근거를 밝혀냈고, 조계종 표창까지 받았다.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 · 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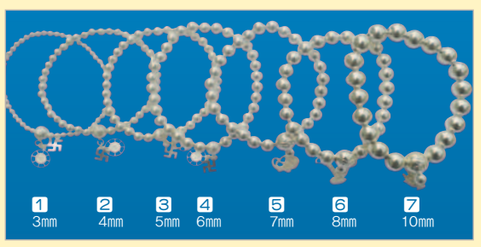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9㎜ 금강체인팔찌 B형 115,000원


10㎜ 반야심경 평반지 42,000원


10㎜ 반야심경 회전반지 84,000원


9㎜ 금강저팔찌 115,000원




사각금강저 두줄 팔찌 1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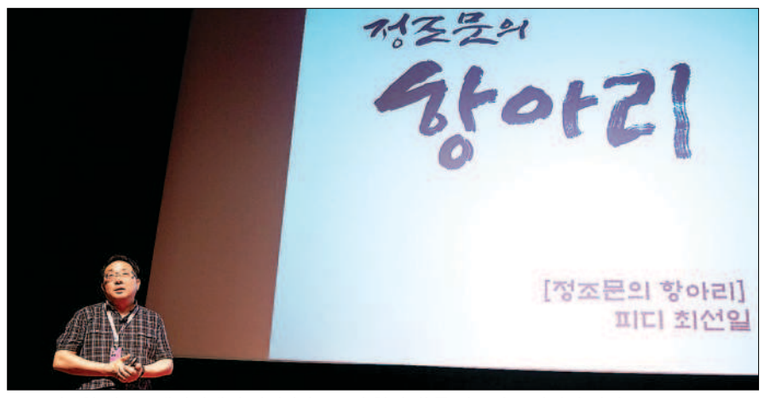

10㎜ 만자 팔찌 130,000원

「인터넷 : 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 · 목걸이 · 팔찌 · 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주얼드림)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치렵니다”


2008년 3월 화성 용주사 지장전 불상 조사 모습.



2015년 5월 전국국제영화제서 영하 ‘정조문의 항아리’를 선보이는 최선일 박사



최선일 박사가 펴낸 저서들. 상단의 책들이 〈조선후기 승장인명사전〉이다.


2015년 6월 나우회 전시회를 진행하는 최선일 박사

“예를 들어 당시 고성 옥천사 나한상 2점의 경우 옥천사에서 도난당한 7점 중 일부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나한상은 색난 스님의 작품인데 사진 상의 유사점과 함께 현재 이 도난품의 양식 등이 색난 스님 작품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대야했지요.”

최 박사는 승장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결국 해외에 유출된 불교문화재를 환수하는 데도 이어진다고 했다.

“여러 사정이 있지만 결국 불교문화재가 해외에 떠도는 것은 우리가 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만들어 집니다. 우리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자들이 찾게 됩니다. 또 소장하는 이들도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돼 더욱 잘 보존하게 되고, 인연이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런 취지에서 인간문화재 20여 명으로 구성된 나우회 모임도 후원하고 있다. 나우회는 해외반출문화재를 재현해 전시활동을 진행하고, 이 수익금으로 해당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보통 20~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에요. 전통기법을 이어 이 시대에 재현하는 것도 무형의 재산입니다.”

문화재는 모두가 향유해야 할 자산

최 박사는 문화재는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하는 자산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 내 한국문화재를 수집하고 가치를 재조명해온 정조문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정조문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정조문의 항아리’ 제작에 PD로 참여하기도 했다.

“정조문 선생은 한국의 간송 전형필 선생과 같은 분입니다. 재일교포로 일본인이 수탈해간 한국문화재를 일본에서 보며, 민족의 정신이 강탈당했다고 느끼셨어요. 1924년 6세 나이로 일본에 건너가 파칭코 사업으로 번 돈을 스스로에게는 쓰지 않고 그 돈으로 한국문화재 1700여 점을 수집합니다. 이어 일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인 쿄토에 고려미술관을 세워 한국문화를 알렸죠.”

여기에 최 박사는 2001년 고려미술관이 소장한 색난 스님이 만든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을 조사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를 그렇게 흔쾌히 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문화재를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고려미술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조문 선생님의 큰 딸이 운영하는 교토의 찻집에 가면 우리 선조들이 쓰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생전에 만나지도 못했지만 이를 통해 정조문 선생님의 사상과 사고를 흠모하게 됐습니다.”

최 박사가 제작한 ‘정조문의 항아리’는 3년 동안 340명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전주 국제영화제와 DMZ다큐영화제에 초대작으로 상영됐다.

최 박사는 승장에 대한 연구도 결국 우리 문화재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라고 덧붙였다.

“사실 그동안 개별 스님에 대한 자료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들 사이에는 자료를 독점해 갖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어떤 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후학들을 위해 제공해야 학문도 발전하는 것이지요. 승장에 관련된 사전을 내고, 또 관련 자료를 책으로 계속 내는 것도 다른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입니다.”

최 박사는 “불화승, 주종장, 목수, 와장, 각수 등 승장 활동에 대한 전체 조사 후 개별 작가론, 평전 연구로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을 맺었다.

불교문화재 공유하는 센터 건립이 꿈

현재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최 박사는 2009년 6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도 세워 학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인연을 맺은 대원사 석문 스님이 소장으로 최 박사는 현재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17평 남짓한 이곳은 함께 공부하는 이들의 공동체 공간입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곳이지요.”

학자로서는 북한의 문화유산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박사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전문위원으로 북한 불교문화재를 총 망라한 〈북한의 문화재〉 간행에 참여했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차원에서 2016년 개성의 문화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연다.

최 박사는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모은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현재도 연구소에 중복된 서적 등을 속초 보광사에 보내 불교도서관을 만드는데 돕고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사찰은 문화재를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사람들이 찾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찰 역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찰에서는 문화재를 조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량이 되는 한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불교문화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때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 부처님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발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다. 많은 발원 중에는 부처님의 아름다운 미소와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있다. 또 스님들의 독경소리와 법문을 들으며 불교경전을 마음껏 소리 내어 읽고 싶어 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 부처님의 숨결이 흐르는 산사에 혼자서 걸어가서 3배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 발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장애인 법우들이 있다.

불교경전에는 장애인이란 명칭은 없지만 〈약사경〉에는 ‘일시적인 병에 대해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은 병으로 병(病)의 상태가 감소되거나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장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림 · 박구원

필자는 1993년 우연한 기회에 수화를 배울 수 있었다. 동국대와 강원을 졸업 한 후 조계사 원심회에서 수화를 배웠다.

처음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는 안타까움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 주리라는 발원을 하였지만 나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 스님이 수화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몹시 의아해 하며 설마 하던 청각장애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려 한다는 것과 스님이라는 특별한 호기심이 합쳐져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수화로 대화가 통할 무렵 불교에서는 장애인을 죄인 취급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스님, 사찰에 가면 우리 장애우들을 보면 좋지 않게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전생에 업이 많아 이렇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불길하다며 피하기도 합니다.”

“왜 불교에서는 장애인 포교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를 보는 이런 인식부터 없애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불교계에 장애인단체가 많아서 장애인 포교가 활성화됐다면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장애가 전생의 업(業)이라는 것도 불교를 잘못 해석해서 내린 오해라고 이들에게 설명했다.

“불교에서는 요즘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자활운동을 부처님 당시부터 실시하였으며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바보로 불리던 주다반다카를 제자로 삼았으며 수행 중 실명한 아니룻다 존자를 십대제자로 삼았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지체 및 지적장애인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스스로의 장애를 자신의 수행으로 극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였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가 바로 우리 부처님이시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이냐”며 반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흡족해 하곤 하였다.

장애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찰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부처님께 예불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중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인근사찰에서 진행하는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싶지만 비장애인 불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줄 것 같아서 새벽은 물론이고 아침시간에는 도저히 기도에 동참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소리도 자주 들었다.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모두 부처님의 제자들이건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법당도 마음대로 참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진 평등사상을 견주어 볼 때 장애인도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의 작은 아픔을 지녔기 때문이다.



해성 스님(연화원 이사장)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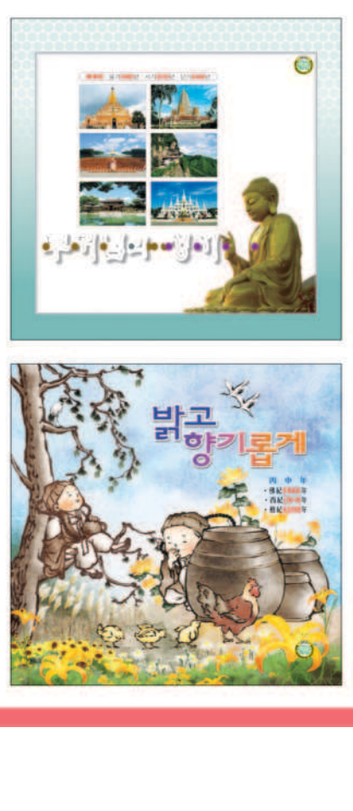
















지혜를 얻으려면 나부터 먼저 알아야 지혜가 늘어가요!

인식하는 주체가 사라진 경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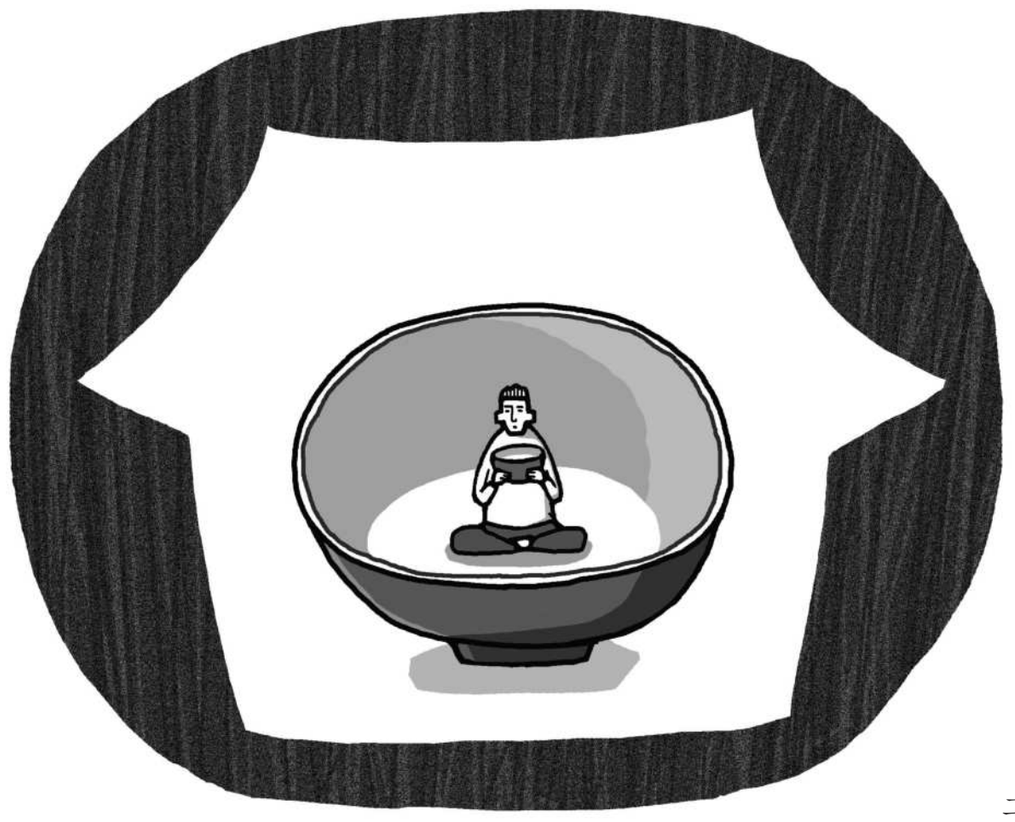
질문 한 선사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경계(境界)를 인식하는 주체가 남아 있는 한 인식된 모든 것은 속임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식하는 주체가 사라진 경지란 어떤 경지일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그때는 주인공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헤아려 봅니다만 이에 대해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물맛을 알려면 내가 직접 먹어 봐야 압니다. 정말 뜨거운지 미지근한 건지, 따뜻한 건지 찬 건지 그거는 먹어 보는 사람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어 보지 않는 이상에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른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책을 보고 경전을 보고 모두 봐도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해 나가면 모두 거짓말이 되고 모두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딱 마셔 보고, 딴 물은 또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딱 먹어 보고 그 물을 그냥, "야, 이건 먹으니까 시원하더라." 하고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약사가 감로수를 주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걸 먹어 보지도 않고 저 물맛이 어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 누구든지 나 아님이 없고 이럴 때는 물도 바로 내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맛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물을 줘도 그때는 아주 톡톡한 맛이 나고 그게 감로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으려면요, 나부터 먼저 알아야 지혜가 자꾸 늘어 가요, 나부터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트여야 남도 이끌어 갈 수 있지,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내가 귀를 뜨지 않고 남을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들 해서, 남에게 진짜로 보시해라 하는 거…. 금(金) 한 덩어릴 주고서 늘려라 이랬더니 그 금이 없어질까 봐 늘리지 않았다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 놓고 체험하고 가면서 남들한테 그 마음공부를 전달해 주게 되면요, 그만큼 공덕이 큰 겁니다. 이건 세세생생의 공덕입니다, 올바로만 관법을 일러 준다면. 한 사람을 이끌었는데 수십억의 중생들을 이끈 셈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집합소 하나를 포교했는데, 집합소 안에 들어 있는 중생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 집합소 안에 있는 자생 중생들이 전부 바뀌어서 화(化)해서, 보살로 화했으니 얼마나 그게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냥 그 옛날에는 주먹을 번쩍 들거나 내리치거나 이런 등등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띔을 해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도리를 어찌 알아서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는 도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트여 주면서, 귀를 트여 주면서…, 하하하.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나중에 이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후회하시지 말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 몇 발자국이나 떼어 놓고 이 모습이 없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이 모습이 없어지기 전에 이 도리는 꼭 알아야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새 햇빚도 줄 수 있고, 그 뿌리에 물도 줄 수 있고, 꽃도 피게 할 수 있고, 그 열매도 열려서 영원토록 굶지 않고 먹게 해 줄 수 있는 바로 무종(無終)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시(無始)요, 무종이요. 이 모두를 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영원토록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이 혼란에 빠진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질문 저는 지금 목수 일을 하면서 틈틈이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과학 잡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 시간이 앞으로 가는 지역과 거꾸로 가는 지역이 공존할 수 있다는 논문을 보았습니다. 우주가 대 폭발로 팽창을 하면서 앞으로 흐르던 시간이 다시 수축을 하면서 거꾸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을 해 보니까는 지금까지 큰스님뿐만 아니라 살아 계셨던 선지식께서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래라는 게 과거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말로 시간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시간의 흐름에는 앞과 뒤가 따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흐름 자체가 애당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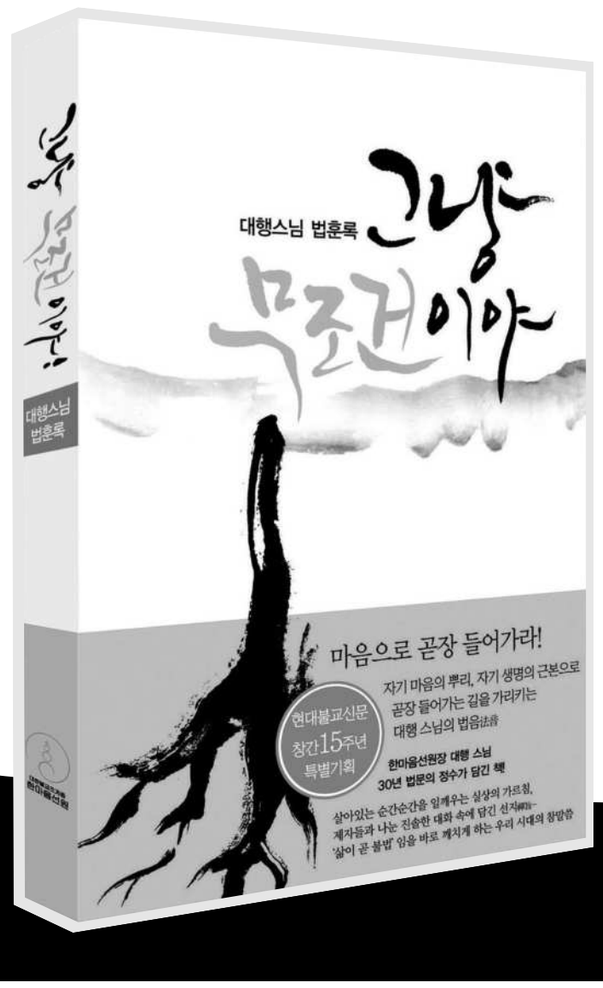
답변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와 같이 서울에서 부산을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고 갔는데 거기서는 종점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댁은 종점으로 내렸지만 거기서 타는 사람은 시발점이 되죠. 댁이 타고 올 때 또 시발점에서 타죠. 그래서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다 이게 되고, 이것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그것도 없다. 그건 논설이다, 이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 바퀴 이렇게…, 이게 둥글어서 둥근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둥글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과 이 평지, 이 허공 이것이 전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둘 아니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그전에 버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안에서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싸우면 되느냐. 바깥에서 이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럭하면 안 되니까 이 마음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거꾸로 가느니 바로 가느니 그건 이유에 불과해요.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위대하고 커서가 아니라 진리가 조그마해도 그렇고 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에너지가 이게 뒤에 달렸다면 우린 이 세상에 나온 물질세계입니다. 그래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고 물질세계는 보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에너지는 얼마나 되느냐? 그게 아니다. 용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정신세계에서 이렇게 배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너희는 살아라, 부처님께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명심해서 듣고 너희가 훨훨 벗고 자유스럽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그렇게 그대로 있었지만, 우리가 연결 연결 해서 본다면 그렇게 알게끔 다 이렇게 있는데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여직껏 그렇게 그냥 웅덩이 속에서 사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거꾸로도 없고 바로도 없다!

☞ 29면에서 계속

어때요? 그 목수 일 하는 데, 거기에도 우주의 섭류가 있을 텐데요. 어디든지 없는 게 없어요. 발 한 짝 떼어 놓고 가는 데도 그게 보통 발 한 짝 떼어 놓고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두 살아나가는 게 과학 아닌 게 없지만 그 과학이라는 그거보다도 더, 아주 너무나 섭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거꾸로도 없고 바로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도 세포가 있고 이렇게 혈관이 있듯이 이 지구에도 이 법망이 있죠. 인간한테도 법망이 있죠. 이 법망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데 혈관이라고 그렇게 했겠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생명들이 수없이 한편으로 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없이, 우리의 몸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죽어 가도 둘이 아니게 죽어 가느냐. 그래야 아무 기탄 없이 순서대로 개천에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주 정확한, 정말 인간을 만들어서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님은 모든 걸 다 아시리라.' 그렇게 믿고 계시죠? 보려면 다 볼 수도 있고 알려면 다 알 수도 있지만 그 귀찮게 조그만 거 가지고 알려고 하고 귀찮게 그럴 필요가 없죠. 알기만 하려면 뭐, 삼천 년 전 거든 후 거든 몽땅 알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또 말하거나 그런 것도 없죠. 단 하나 '어이구,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잘했으면 빨리 훨훨 벗을 텐데….' 하고 아쉬움은 있겠죠. 그러니 모두 여러분들도 '지금은 과학 시대고 또 배움의 길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니 어쩌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뛰어넘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의 몸뚱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암흑이지만 이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새새 틈틈이 어느 곳에, 어느 고장에 어느 것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습 그 속에 있는 모두를 모르죠. 하여튼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들 하십시오.

본래 불성이 있다면 무명은…

질문 중생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불성이 있었다면 무슨 까닭으로 그 불성이 온갖 무명(無明)을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태초부터 무명이 있었다면 중생에게 어찌 불성이 있다고 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불성이라는 것은요,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성이라면 그 생명의 근본은 전체에 같이 돌아가는 평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이 세상이 직결이 돼 있고, 세상은 가설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은 그렇게 같이 돌아가지만 그 외에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의식 자체가 천차만별로 돌아갑니다.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중생(下衆生)은 나쁘고 좋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쁘고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든 중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다스리면서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본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그것이 영혼 자체가 살아나온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 업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자기 자성(自性)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과 현실에 사는 자기가, 즉 말하자면 같이 합류화돼서 작용을 해야만이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맡긴다는 생각도 망념 아닌지요

질문 주인공에게 맡겨라, 맡겨라 하시는데,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온갖 망령된 장난일 뿐이라고 이해됩니다. 맡긴다는 생각도 망념의 한 가지일 것인데, 망념과 사량으로 주인공에게 맡겨서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지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째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두 번째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세 번째도 둘이 아닌 도리에서 둘이 아닌 나툼을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명을 벗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든 모든 의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 상대성의 끈에, 인과의 끈에 의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첫째는 주인공이라는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중심을 꿰어야만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말입니다. 차도 중심이 있으니까 바퀴가 굴러가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없으면 목석이죠.

세상에 탄생한 것 자체가 화두입니다. 화두가 따로 있어서 내가 화두를 딴 사람한테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북하면 부처 중생을 다 집어삼키는 공부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여여한데 그럼 왜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하느냐? 이런 게 또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그 사실, 또 나 자체가 화두라는 거, 그리고 와선이나 입선이나 행선이나 좌선이나 이것을 한데 합친 것이 참선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이라는 말 자체도 바로 그 뜻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발심하셨는지요

질문 대행 큰스님께서 발심하실 때의 마음, 그리고 닦아 이루셨을 때의 체험 등을 말씀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저는요, 9살에 남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 불러 봤습니다, 얼마나 엄한지…. 그래서 (가슴을 가리키시며) 여기에다가 아빠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인데 늙고 젊고가 따로 있겠느냐. 어차피 이렇게 갈 거라면 차라리 그냥 가는 게 좋겠지?' 하고선 뭐, 죽고 사는 건 염두에 두지도 않고요.

그러나 남의 집을 살다 보니까 고생이 돼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어도 아빠를 부르고 울었고, 고독해도 아빠를 부르고 울었죠. 그때는 물통에 물을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일전을 가지고 물을 사면 고련씩 요만큼씩 한 표를 주었는데, 표 하나씩을 가지고 한 지게, 두 지게 요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지게를 져야만이 그 집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살, 열 살, 열한 살이 되기까지 그것을 져 날랐습니다. 그것만 져 나른 게 아닙니다. 엄마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를 업고 잤습니다.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곤 했죠. 나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냥 업고 자고, 온통 야단을 하고 울면 같이 울고, 그렇게 아빠에게 맡기고 했는데, 그 애를 주려고 과자를 사 놓은 걸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 사정은 일일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 거를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만 붙들고 울었을 뿐이죠. 이걸 얘기를 하려니까 그 얘길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그저 모든 일체를 다 거기에 맡겨 놓고 했죠. 물을 길러 가도 신발이나 좋았습니까, 어디? 게다짝이죠. 또 게다짝이 닳아서 못 신으면 짚신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물이 다 엎질러져서 옷도 다 젖고 그래서 귀퉁이도 무척 쥐어박혔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나니까 한 모금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저 바깥에 나가서 뜨뜻한 물도 없이 기저귀를 빨아서 전부 철망에다 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손이 얼어 부풀어서 그냥 뭐, 막 아파서 죽겠죠. 시린 게 아니라 아파요. 아픈 거를 꼭꼭 쥐고서 거기다 맡겼죠. 그저 그때서부터 거기다 맡기는 것을 내내 하면서, 밤이면 밤대로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나같이 어려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밥을 굶는 때가 많았습니다. 아주 뭐 밥 굶는 사람이 늘비했죠. 그러니까 있는 곳간에 가서 보이지 않게 훔쳐다가 어떡하면 저 사람네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내면에 맡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죠. 허허허….

내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8·15 해방이 되기 전이니까 열여덟 살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감응은 왔지만 정말 열여덟 살에, 지금으로 치면 깨쳤다 그러지만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나'가 혼연히,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왔고, 그 아빠는 반드시 나를 리드해 줬습니다. 항상 그저 잘못된 거면 잘되게 다스려 주고 또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네가 일할 때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일을 안 할 때는 네가 나와 하나가 되고,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子)가 부(父) 앞으로 가면 부와 하나가 되고, 부가 자 앞으로 오면 자와 하나가 되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그때에 생각하기는 체가 없는 마음이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부와 자는 둘이 아니다. 그건 체가 없어서 그냥 이 몸도 움죽거리게 자꾸 이끌어 주면서,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둘로는 안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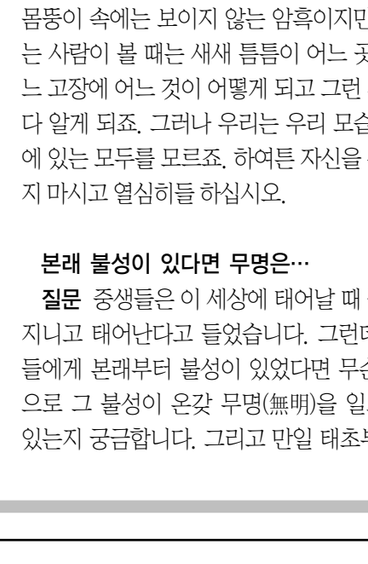
그렇게 하면서 알고 갔는데 그 후에 날이 퍽 추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여름이 옳은 거냐 겨울이 옳은 거냐? 겨울이 좋으냐 여름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여름과 겨울이, 사계절이 어떻게 둘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사람이 춥다 덥다 하는 거지 진리라는 건 춥다 덥다가 없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천지가 한데 합치는 거 같았습니다. 산하대지가 일제히 전부 손끝을 한데 모으고 (합장해 보이시며) 그냥 전부 그러는 게 보이면서, 천지가 그냥 하나로 뭉쳐져 버리면서 차츰 차츰 차츰 작아지면서, 불덩어리가 작아지면서 그냥 불덩어리 구슬이 돼서 그냥 팡! 일어나는데 그때에 놀랐습니다.

그럭하고 난 뒤에 무척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 '천(天)은 지(地)를 다스리면서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을 다 기르는데, 제가끔들 천차만별로 마음에 따라서 저렇게 짓고,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하니 참 너무도 기가 막히구나! 나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데, 왜 저다지도 저러는가?' 하는 생각에서,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하여튼 무척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것처럼 또 싱긋싱긋 웃고 다녔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와서 가는 길만 알았지 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지, 가는 길을 알고 오는 길을 안다면, 그게 양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겁니다, 싱그럽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도 고생하는 거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살, 8·15 해방되고 나서 입산을 해서 스물세 살, 즉 말하자면 6·25 나던 그해 3월 달에 계(戒)를 받았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말을 영 못하다가 이 근래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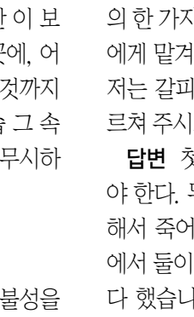
> 꼭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자기 자성을 발견해야 된다.
>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과 현실에 사는 자기가,
> 같이 합류화돼서 작용을 해야만이 진짜 인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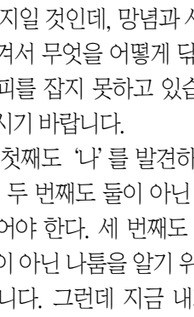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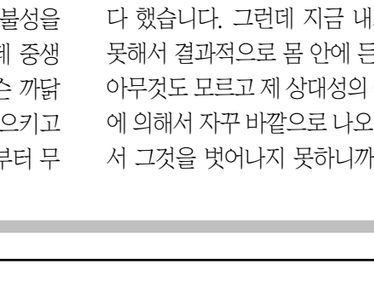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불사추진위원장 김홍중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